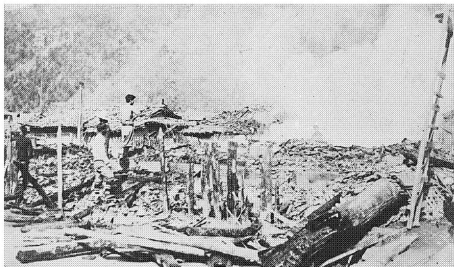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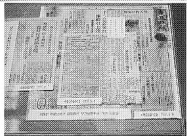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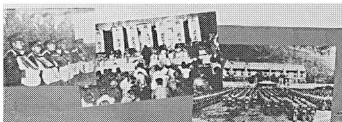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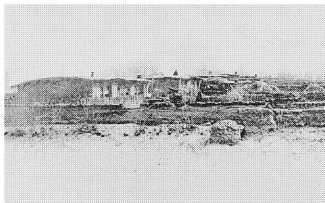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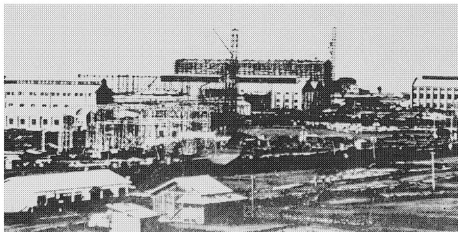
백두산전설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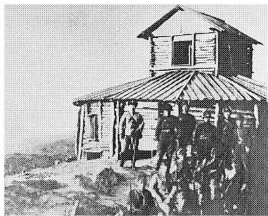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도술에 밀림의 나무들도 갑자기 《유격대》가 되여 일제놈들을 골탕먹였다는 전설이 깃든 장백현의 수림지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속에 아이들의 꿈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있는 유격근거지 아동단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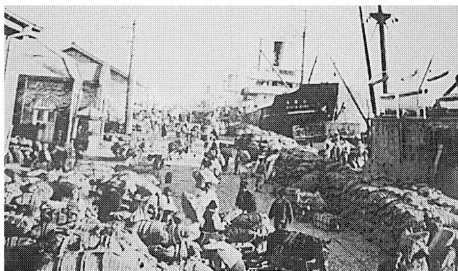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노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시였다는 신기한 전설이 깃든 중국의 농촌지대(안도현 흥륭촌과 소사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친솔하신 항일유격대의 습격을 받아 만신창이 된 보천보시가. 왜놈들은 보천보란 말만 들어도 질겁을 했으니 이곳으로 배치되여오던 경찰놈은 나무그루터기를 보고서도 유격대인줄로 알고 기절해 쓰러졌다.

보천보전투에서 녹아난 적들의 패망상을 폭로한 출판물자료들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별님이 내려와 신기한 쥐기밥을 주었다는 전설이 깃든 오가자

길림육문중학교시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찬 눈보라를 잠재우시고 찾아주시였다는 내도산

항일유격대에 대한 공포증으로 공장구내의 작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왜놈들이 갑자기 환각을 일으켜 웃음거리가 되였댔다는 전설을 가지고있는 옛 흥남비료공장

대원들의 아픔을 두고 걱정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을 받들어 백두
산기슭에 피여났다는 두메아편꽃

항일유격대의 습격이 두려워 왜놈들이 성벽을 높이 쌓고 포대를 사방에 세워놓았지만 장군님의 명함장 하나에 성문이 저절로 열리는것은 어쩔수가 없었다.

일제의 앞잡이로서 별의별 악행을 다하던 《경방단》놈들의 앞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있었다.

항일유격대《토벌》에 동원된 일제군용기

당시 농민들은 말했다. …겁날게 없수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슬쩍 올려다보시기만 해도 엿가락처럼 녹아떨어질거우다. …

바람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잦아들지 않던 거센 파도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빌었더니 잦아들었다는 전설을 낳은 당시 일본놈들의 화물선

왜놈들이나 면장이 찾아왔을 때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폭포수가 성을 내며 물을 뿌리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약비를 내리게 해주었다는 울림폭포

차　　례

하늘을 나는 노전

항간에서 도는 말에 의하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언제나 몸에 자그마한 목책을 지니고 다니시였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자주 목책을 들여다보시며 생각에 잠기시기도 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써넣기도 하시였는데 그 목책에 어떤 글이 씌여있는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누가 제나름으로 짐작을 해서 이야기를 돌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령님의 그 작은 목책에는 여러가지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 술법이 들어있다는것이였다.

목책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도, 돈화 등지의 농촌마을들에 나가시여 초기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에 생겨난 하늘을 나는 노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하얀 갈대들이 어지럼증에 걸린것처럼 하늬바람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비척이던 어느 가을이였다.

박가성을 가진 한 로인이 큼직한 도끼를 들고 마당에서 쩡쩡 나무를 패고있었다.

로인의 힘이 어찌나 셌던지 그 아근에서는 장손로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젊어서는 콩 세가마니를 등에 진채 엎드려 샘물을 마시였다고 한다. 또 언젠가는 소발구에 나무를 싣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구채가 뚝 부러지자 나무와 발구를 통채로 짊어지고 소를 그냥 끌고왔다고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꼴이나 쓰는 사람을 두고 말할 때면 《장손령감만큼이나 힘이 센 사람》이라고 비겨 이야기를 했다.

이미 짜개놓은 장작개비가 산더미를 이루었다.

그런데 마지막 토막이 말썽이였다. 굵기가 한아름이 되는 옹이박이나무였는데 어찌나 굳은지 도끼날이 먹어들지 않았다.

도끼날이 두곳이나 뭉청 떨어져나갔다.

로인은 황소숨을 씩씩 내쉬며 계속 도끼질을 했다. 일단 마음먹고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 그였다.

하지만 그놈의 옹이는 아무리 내리쳐도 끄떡을 안하고 누가 못견디나 보자는듯 약을 올렸다.

이때 귀에 설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수고하십니다.》

나무를 패는 역사에 등뒤에 웬 젊은이가 와 서있는것도 모르고있던 박로인은 힐끔 뒤를 돌아보았다.

수수한 바지저고리에 검은 목도리를 두른 키가 훤칠한 젊은이가 자그마한 괴나리보짐을 어깨에 메고 서있었다. 용모가 준수해보이고 첫눈에 믿음이 가는 젊은이였다.

하지만 로인은 아무 대꾸없이 다시 도끼질을 계속했다.

《로인님, 좀 쉬십시오. 제가 패보겠습니다.》

로인은 그래도 들은척을 안했다. 자기도 패지 못하는 나무를 거기라고 어떻게 패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지금껏 젊은이들의 일솜씨를 두고 한번도 마음싸한적

이 없었다. 그리고 당초부터 그들의 방조를 받을 생각은 꼬물만큼도 가지지 않았었다.

그래 모르쇠를 하고 도끼질만 하는데 또다시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로인님, 집에 도끼가 하나 더 없습니까? 그게 쉽게 패질것 같지 않습니다. 쌍도끼질을 해봅시다.》

(쌍도끼질이라. 이 젊은이가 접어드는품이 괜찮은걸.)

로인은 맥도 빠진데다 젊은이의 말에 귀맛이 돌아 일손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도끼야 있지.》

그는 도끼를 가지고나와 젊은이에게 내밀었다.

그리고는 어서 패보라는 식으로 나무토막에 눈짓을 했다.

젊은이는 옹이짬에 도끼날을 슬쩍 대보더니 높이 쳐들었다가 《여싸—》하는 소리와 함께 힘껏 내리쳤다. 앞뒤로 금이 약간 벌어졌다.

《로인님, 도끼로 이 앞을 찍으십시오.》

로인은 젊은이가 가리킨곳을 도끼로 내리찍었다. 금이 좀 더 벌어졌다.

이번엔 젊은이가 자기 도끼를 뽑더니 다른 쪽을 힘껏 내리쳤다.

《삐거덕》하는 소리가 났다. 로인이 다시 도끼를 뽑아서 내리쳤다. 드디여 나무는 두쪽으로 갈라졌다.

《됐네. 임자가 수고했네.》

로인은 도끼를 놓고 손을 툭툭 털더니 땀을 씻으며 나무모태에 걸터앉았다.

그는 젊은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도끼질을 하는것을 보니

일솜씨가 보통이 아니였기때문이였다.

《그래,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방금전까지 무뚝뚝하던 로인이 사뭇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라고 딱히 정한곳은 없습니다. 그저 이곳저곳 품팔이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반대없으시다면 로인님댁에서 며칠동안 함께 지냈으면 하는데요.》

젊은이의 목소리에서는 진정이 느껴졌다.

《그런 일솜씨를 가지고서야 어디선들 밥벌이를 못하겠나. 반대없으니 어서 좋도록 하게.》

박로인은 쾌히 승낙을 했다.

이날부터 로인량주는 젊은이와 친혈육처럼 따뜻이 지냈다.

웃음을 모르던 집안에 화기가 돌고 사철 어둡기만 하던 방안이 한결 환해졌다.

로인은 이 산골에서 살면서 갈을 베여다 노전을 결기도 하고 싸리를 베여다 삼치를 엮기도 하고 고로쇠나무를 해다가 도끼자루를 깎아서 장에 가져다 팔아 살아가고있었다.

젊은이는 박로인이 하는 일 어느것이나 이미 손에 익혀둔것처럼 막힘없이 척척 도왔다. 오히려 내노라고 하던 로인이 무색해질 지경이였다. 박로인이 삼치 두개를 엮을 때면 젊은이는 세개를 엮었다. 로인이 도끼자루 열개를 깎을 사이면 열다섯개를 깎았다. 그러면서도 젊은이는 작은 목책을 옆에다 펴놓고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이상도 하다. 저 목책에 일을 빨리 해제끼는 묘술이 적혀있나부다. 아니면 젊은이가 혹시 도술을 배우는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글자를 들여다보면서도 일솜씨가

그리도 빠를수 있으랴.

젊은이는 밤이면 밤마다 이웃마을에 구경을 간다면서 집을 나갔다가 새벽녘에야 돌아오군하였다. 잠도 모르고 피곤도 모르는듯했다.

로인량주에겐 점차 그 젊은이가 손아래사람이 아니라 손우사람처럼 돋보이기 시작했다. 그만큼 믿음도 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이웃마을에 갔던 박로인이 급히 집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젊은이, 지금 웃고개쪽에서 경찰들이 이리로 밀려오는데 무슨 일일가?》

《경찰놈들이 온다구요? 아마 여기에 볼 일이 있는 모양이군요.》

젊은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다.

그러나 경찰을 늘 불길한 징조의 상징으로 여겨왔던것만큼 로인내외는 마음이 썰렁해서 안절부절을 못했다. 이곳엔 집이라곤 자기네 단 한집뿐이니 틀림없이 그 경찰들이 이 젊은이때문에 오는것 같았다.

그런데 젊은이는 태평스레 일감을 찾는것이였다.

《아버님, 집에 갈을 베여다놓은게 있던가요?》

《있잖구, 그건 왜 그러나?》

《노전을 한잎 결어볼가 해서요.》

(갑자기 노전은 무슨 노전, 참 마음도 편하군.)

박로인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껏 젊은이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에나 감심을 했던것만큼 군말없이 밖에 나가 갈단을 들고왔다.

젊은이는 이때에도 자그마한 목책을 옆에다 펴놓더니 그것

을 들여다보면서 갈을 까기 시작하였다.

(모를 일이다. 시각을 다투는 때에 목책을 들여다보다니. 저기에 위험을 막아내는 신기한 술법이라도 들어있는게 아닐가?)

로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사이 갈 한단을 다 깐 젊은이는 노전을 겯기 시작하였다.

박로인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경찰들이 앞뒤쪽에서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젊은이는 계속 목책만 들여다보면서 노전을 겯었다. 얼마나 솜씨가 빠른지 번개같았다. 담배 한대 피울사이에 노전 한잎이 다 되였다. 마감에 노전귀까지 휘갑을 하고난 젊은이는 노전을 두르르 말더니 밖으로 나갔다.

때를 같이하여 앞뒤에서 고함소리가 들렸다.

《붙잡아라!》

로인내외는 다리가 떨려서 감히 밖으로 나갈 엄두를 못내고 문틈으로 내다보기만하였다.

경찰들이 갈가마귀떼처럼 사방에서 우르르 달려왔다.

그러나 젊은이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마당에 내려서더니 노전 한끝을 잡고 우로 홀 던졌다.

순간 어디선가 돌개바람이 불어왔다.

노전은 쭉 펴지더니 하늘로 떴다.

젊은이는 재빠르게 그우에 올라앉았다. 그러자 노전은 돌개바람을 타고 점점 우로 올라가는것이였다.

너무도 신기해서 로인내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여보, 젊은이가 노전을 타고 날아가는구려!》

《그러게 말이요, 참 이상도 하지. 짐작하던바대로 젊은이가 정말 도술을 익혔나보우다.》

둘이 하늘을 나는 노전만 쳐다보는데 마당에 이른 경찰들이 소리질렀다.

《령감, 노전우에 타고오른 사람이 **김일성**장군이 틀림없지?》

《**김일성**장군이라니요?》

로인내외는 얼떠름해졌다.

(그 젊은이가 **김일성**장군님이시라니? 일 잘하는 그 품팔이군이 정말 그분이시였단말인가?)

로인은 미처 대답을 못했다.

《령감이 갑자기 벙어리가 됐는가? 그가 **김일성**장군이 틀림없느냐말이다.》

로인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난 어떻게 된 일인지 통 모르겠수다.》

그러면서도 로인은 그분이 정말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분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신기한 술법을 쓸수 있단말인가.

박로인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경찰놈들이 날아가는 노전을 따라가며 총을 올리쏘는데 귀청을 째는듯한 총소리가 콩볶듯했다.

《제발 저분이 무사했으면!》

로인내외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놈들은 자꾸만 노전을 따라가며 총을 쏘았다. 수십놈은 잘될것같은 놈들이 이쪽저쪽으로 우르르 밀려다니며 총을 쏘아댔다.

노전은 얼마쯤 오르다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고 놈들을 끌고 점점 멀어져갔다.

로인내외는 날아가는 노전을 보려고 둔덕진곳으로 올라갔다.

(총알이 미치지 못하게 좀 더 높이 오르셨으면!)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날아오른 총알들이 모두 그물에 걸린 고기새끼들처럼 노전눈에 하나씩 걸린채 더 뚫고오르지 못하고있었다. 노전의 눈이 수천을 헤아리니 걸려있는 총알도 수천개를 넘을것이였다.

경찰놈들은 노전이 나는대로 깊은 골짜기로 따라들어갔다. 행여나 어디에 내리지 않을가 해서였다.

미구하여 총소리가 점차 떠지더니 더는 들리지 않았다. 놈들의 총알이 떨어진 모양이였다.

바로 그때였다. 놈들이 우묵진 골짜기에 오구구 몰켜서서 하늘만 쳐다보고있는데 노전우에 타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손바닥으로 노전을 툭툭 치시였다.

그러자 노전에 걸려있던 수천개의 총알이 한꺼번에 우박이 쏟아지듯 모두 놈들의 머리우로 떨어졌다.

《아이쿠!》

《아이쿠!》

경찰놈들은 창졸간에 모두 총알우박을 맞고 쓰러졌다. 그바람에 온 골짜기가 어둠이 깃든것처럼 새까매졌다.

참으로 그 꼴 통쾌하기 그지없었다.

《아! 저분은 우리 농군들처럼 일만 잘하시는가 했더니 신기한 술법을 부리시는구려!》

《이제 알고보니 장군님의 작은 목책에는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 여러가지 술법이 들어있었나보우다. 왜놈들은 아무리 날뛰여도 장군님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꼭 망하고말거요.》

로인내외는 날아가는 노전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감동을 금치 못했다.

눈부신 빛발

일제가 패망하기 몇해전에 사람들속에서는 일본천황이 갑자기 소경이 되였다는 소문이 쉬쉬 돌았다.

정말 천황이 눈이 멀었는가? 그게 사실이라면 까닭은 무엇일가?

어느날이였다.

천황은 밤이 이슥하도록 자기 방에서 까딱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다. 등불에 비친 그 모양은 돌미륵같았다. 심한 정신적고통이 모든 생리적활동을 정지시킨 모양이였다.

그는 이마적에 벌어지고있는 일들로 하여 며칠째 몹시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내선일체》요, 《동조동근》이요하면서 조선사람들의 귀에 덕지가 앉도록 선전을 들이댔지만 《친일》감정이 아니라 반대로 배일감정이 온 조선땅과 만주를 휩쓸고있었다. 게다가 일본인민들과 일본군병사들속에서도 련공사상이 움터 걷잡을수 없게 퍼지고있었다.

이것을 막아보려고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한끝에 《반공전람관》과 《반공영화》를 만들어내도록 했는데 나가자마자 코코에 걸리고 처처에서 망신이였다.

나가사끼에서 《반공전람관》을 열었을 때였다.

거기엔 《유격대공작원》한테서 빼앗았다는 우산, 고무신, 식기따위와 지도들을 차려놓았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큰 망신을 당할줄이야.…

한번은 구경을 하던 한 조선로인이 거기에 있는 고무신짝을 보더니 자기가 신다가 보름전에 잃어버린것이라고 덥석 집어들면서 말하는바람에 개코망신을 당했던것이다. 망신에 그쳤으면 괜찮다. 들어왔던 사람마다 《저건 모두 위조품이다.》, 《이 집은 〈거짓말전람관〉이다.》하고 침들을 뱉고나가는바람에 며칠 못가서 문을 닫아매지 않으면 안되였다.

반공영화를 만들어 돌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름있는 연출가와 배우들을 그러모아 영화 《보로노 게시다이》(《망루의 결사대》라는 뜻)를 만들어냈다.

영화에서는 마지막 한사람까지 다 죽으면서 망루를 《지키》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른바 《반공희생정신》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데 도꾜의 어느 영화관에서 필림을 돌릴 때였다. 영화에는 유격대가 팔에 부상을 입은것처럼 권총을 쥔 손에 붕대를 감고 들어왔다가 놈들을 쏘아눕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어두운 객석에서 한둘이 박수를 치더니 온 장내가 박수를 치는것이였다. 의도와는 달리 역선전이 되였던것이다.

영화상영이 중단되고 불이 켜졌다.

관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지 아무런 주저도 없이 통쾌한 표정들을 짓고있었다.

《누가 먼저 박수를 쳤는가? 박수를 친 사람은 다 일어서라!》

경찰들이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쳐도 누구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범인》을 잡으려면 다 잡아가야 할판이였다. 어쩌는수없이 놈들은 기권하고말았다.

이렇게 되자 천황은 공산군과 맞서고 인민들의 반일감정을 없애는데는 총칼만이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많은 병력을 만주땅에 들이밀었지만 그건 또 어떻게 되였던가.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가 온 겨우내 백만의 관동군을 만주광야의 눈보라속으로 끌고다니며 맥을 빼놓더니 숨쉴 틈을 주지 않고 타격을 들이대는바람에 그 인적물적손실이 헤아릴수없이 막대하다는것이였다. 아무리 병력을 들이대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실로 골머리가 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아프기만 한것이 아니라 미칠지경이였다.

천황은 지금 자기가 숨만 쉴뿐이지 목숨은 이미 저승에 가 있는듯이 느껴졌다.

(나를 지옥의 길에서 구원해줄 힘은 이 세상에 없을가?)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던 천황은 악몽과도 같은 상념에서 헤여나보려고 서재에서 주섬주섬 책을 뒤적였다. 어느 하나도 마음을 달래여줄만한것이 없었다.

책표지를 화려하게 장정한 《가네하도(금비둘기)이야기》가 눈에 띄였다. 이미 이야기도 듣고 활자로 찍힌것도 읽어보았지만 그것이라도 다시 보고싶었다.

그는 걸상등받이에 몸을 잔뜩 젖히고앉아 책을 펴들었다. 일본의 초대천황인 신무천황에 대한 신화였다.

신무천황은 싸움을 잘했다고 한다. 《신무》라는 이름도 그

로부터 비롯된것이였다.

그런데 한번은 그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싸움판에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끼고 날이 어두워졌다. 앞을 가려보기 힘든데다 군사들은 사기를 잃었다. 이젠 다 진 싸움이라고 생각되였다.

이때 난데없는 금비둘기가 날아와 기발대우에 앉았다. 금비둘기는 밝은 빛을 뿜었다. 그러자 사방이 밝아지고 군사들은 용기를 냈으며 신무천황은 싸움에서 이길수 있었다.

이것이 그 책의 내용이였다.

《그런 금비둘기가 나에게도 날아와주었으면! 나에게도 날아와주었으면!》

천황은 하늘에 빌기라도 하듯 중얼거리며 두손을 가슴우에 모아쥐였다. 그리고는 눈을 딱 감고 자기 머리우에 금비둘기가 날아와 천리만리 눈부신 빛을 뿌려주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때였다. 사람이 그랬는지 바람이 그랬는지 출입문이 비스듬히 열렸다.

천황은 저도모르게 어떤 감촉을 받고 눈을 떴다. 순간 그는 놀라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열려진 문틈으로 밝은 빛이 스며들고있었다.

(어두운 밤인데 무슨 빛인가?)

달빛은 아니였다. 등불빛도 아니였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번개불보다도 밝았다. 해빛보다도 눈부시였다.

《그러니 나에게도 정말 금비둘기가 날아오는 모양이구나!》

그의 가슴이 후두두 들뛰였다. 너무 흥분되여 심장마비라도 걸릴가봐 그는 얼른 진정제 한알을 입에 넣었다.

《아! 금비둘기! 구원의 빛을 가지고오는구나!》

천황은 분명 하늘이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했다.

문이 점점 더 열려지고 빛도 자꾸만 밝아져 벽에 부딪쳐나오는 반사광까지도 눈이 부시였다.

(그런데 금비둘기가 뿜는 빛이 이다지도 밝다고 했던가?)

천황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드디여 문이 활짝 열렸다. 빛은 정면으로 맞받아 비쳐왔다.

천황은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을 뜰수가 없었다.

뜻밖에도 처억처억 지심을 울리는 발자국소리가 났다. 앞을 바라보려고 해도 눈이 시여 볼수가 없었다.

그는 두손으로 눈을 감쌌다.

발자국소리는 가까와지더니 방앞에 이르러 멎었다. 이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고 나를 보라! 나는 **김일성**이다!》

그 소리에 놀라 천황은 눈을 번쩍 떴다.

앞에 키가 구척인 젊은 장수가 우뚝 서있었다.

백두산에서 관동군을 풋강아지 다루듯 한다는 **김일성**장군이였다.

날아왔는가? 구름을 타고왔는가? 소문그대로 축지법을 쓰며 왔는가?

그이의 안광에선 눈부신 빛발이 뿜어나왔다. 또한 그이의 주위에서 비치는 배광도 마찬가지로 눈이 부시였다. 신화에 나오는 금비둘기가 밝은 빛을 비쳤다 해도 여기에 비하면 등잔불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천황은 그이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앞이 새까매졌다. 망막이 경련을 일으킨것이였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로 오시였는지?》

그는 말소리도 제대로 낼수가 없었다.

《네놈은 왜 남의 나라 땅을 강점하고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구느냐? 더 이상 그렇게 악하게 굴면 버릇을 떼주겠다!》

그 목소리 또한 지진이 일듯 방안을 흔들어놓았다.

천황은 목구멍이 막혀 대답을 못했다. 다만 숨넘어가는 소리처럼 《꺽, 꺽》하는 소리만이 나올뿐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한두마디 말씀을 더 하시고는 천황의 방을 나가시였다.

처억 처억 처억! 지심을 울리는 발자국소리가 멀어져갔다.

《아! 그 눈부신 빛! 그것때문이였구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것도 그리고 우리 관동군이 맞서보기도전에 벌벌 떠는것도 그 빛발때문이였구나!》

무엇이나 꿰뚫어보시고 무슨 힘으로도 막아낼수 없는 장군님의 안광에서 뿜어나오는 그 눈부신 빛발앞에선 아무리 백만대군을 들이밀고 묘한 계책을 꾸며댄다 하더라도 맥을 출수 없으리라는것은 자명한 일이였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날부터 천황은 며칠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것을 감쪽같이 비밀에 붙이려고 했는데 어느 한 내시의 입에서 나왔는지 천황이 소경이 되였다는 소문이 돌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백두산에서 싸우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일본땅에 건너와 천황을 혼내우시고 가시였다.》, 《일본신화에 나오는 금비둘기가 밝은 빛을 뿌렸다지만 **김일성**장군님의 안광에서 뿜어나오는 빛은 그보다 더 눈부시다!》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령주》가 드신분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바다에 진주가 있듯이 땅우에 《령주》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령주》라 함은 신령스러운 구슬을 뜻함이니 온갖 신비한것을 다 합쳐놓은 씨앗이기도 하다.

물론 신화나 전설에 륙각구슬이요, 팔각구슬이요 하는 신기한 재주를 부리는 구슬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것을 《령주》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름그대로 륙각구슬은 여섯면이 한가지씩 재주를 부려 여섯가지 신기한 일을 할수 있고 팔각구슬은 여덟개의 면이 한가지씩 재간을 피워 여덟가지 일밖에 할수 없으니 《령주》에는 비할바가 못된다.

그리고 륙각구슬과 팔각구슬은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수 있는 물건과 같은것이라지만 《령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의 머리속에 든다는것이였다.

《령주》가 들어있는 사람에겐 이 세상 모를것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의 마음속도 손금보듯 들여다보이고 먼 앞날에 생길 일도 환하게 내다보인다고 한다. 또한 그런 사람은 못부리는 재주가 없고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동서고금에 《령주》가 든 사람은 있어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항일무장투쟁시기 로인들속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령주》가 드신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한 객주집주인의 입에서 먼저 그런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실여부는 딱히 알수 없으나 듣고보면 그럼직도 하다.

1930년대에 함북 연사에서 사지령으로 가는 길목에 객주집이 한채 있었다.

객주집주인 황서방은 원래 물고기장사요, 석유장사요 하면서 등짐을 지고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던 떠돌이장사군이였다.

그런데 아무리 험한 령길도 넘어다녀봤지만 다리품에 비하면 벌이가 좋지 못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수는 없을가?)

어느날 사지령쪽으로 가다가 배가 출출해난 황서방은 길옆에 앉아 주먹밥을 꺼내먹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길손들도 점심때가 되자 여기저기 널려앉아 자기처럼 주먹밥들을 꺼내먹고있었다.

황서방은 무릎을 쳤다.

(옳지. 이곳을 넘나드는 사람이 날마다 수십수백을 넘으렸다, 여기에 객주집을 하나 차려놓으면 벌이가 괜찮겠군.)

당시 이 길로는 남부녀대하고 살길을 찾아 만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었고 처자를 두고 홀몸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오가는 길손들도 부지기수였다.

황서방의 타산은 들어맞았다.

객주집은 문을 열기바쁘게 길손들로 붐비였다. 반년도 채 못되여 본전을 뽑았다. 하루가 다르게 돈이 불어났다. 확실히 그가 돈벌이곬을 잘 잡았던것이다.

그러나 황서방은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족제비한테 쫓기우는 토끼처럼 숨통을 노리는 걱정거리가 늘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던것이다.

처음 황서방이 객주집허가를 받으려고 주재소 순사부장을 찾아갔을 때였다. 순사부장은 녹두알처럼 작은 눈알을 굴리며 이 피탈, 저 피탈 좀처럼 승낙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간을 끌더니 하루는 새삼스레 문밖에까지 나와서 맞아주었다.

《황서방, 여러번 걸음을 시켜 안됐소. 내가 우에 제기했더니 드디여 희소식이 왔소. 승낙이 되였단말이요.》

그는 황서방을 사무실로 끌고들어가더니 참 좋은 생각을 했다느니, 국민적립장이라느니 하면서 귀간지러운 말을 늘어놓았다.

(이자가 왜 나를 갑자기 추어올릴가?)

그놈의 속심이 께름직해서 황서방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애매한 표정을 짓고있는데 아니나다를가 순사부장이 그의 팔소매를 더 바싹 끄당기면서 말하였다.

《여보, 황서방. 그런데 한가지 부대조건이 있소. 이왕 좋은 생각을 한바엔 우리 〈대일본제국〉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한가지 맡아해야겠소.》

《무슨 일인지…》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요. 객주집에 들려가는 사람들을 늘 눈여겨보면서 **김일성**빨찌산과 연줄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탐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것이요.》

(그러니 나더러 끄나불이 되라는 소리로구나. 더구나 《무적황군》이 쪽을 못쓰게 만든다는 **김일성**장군빨찌산을 찾아내

라구?)

황서방은 가시에 찔리운것처럼 흠칫했다.

그의 눈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던 순사부장은 인차 낯빛이 싸늘해졌다.

《일단 우리와 계약을 한 이상 달면 삼키고 쓰면 밸는식으로 할수 없소. 나는 황서방이 〈공산비적〉을 〈숙청〉하는 길에서 공을 세우리라고 믿소.》

우격다짐으로 제놈들의 말파리에 남의 썰매를 매놓으려는 수작이였다. 일단 매인이상 끄는대로 끌리워가야 할 판이였다.

황서방은 어찌할바를 몰라 망설이며 미처 대답을 못했다. 순사부장은 그의 침묵을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것으로 속단하였다. …

하지만 렴탐군이란 못해먹을 노릇이다. 예로부터 렴탐군치고 제명에 죽은 사람이 별로 없다지 않는가.

사주팔자에 없는 관을 쓰면 이마가 벗어진다더니 내키지 않는 일을 맡고보니 때없이 머리가 아팠다.

그런데다 이틀이 멀다하게 순사부장은 독촉을 했다. 왜 아직도 잡아내지 못하는가, 돈버는 재미에 《국사》를 줴버린게 아닌가, 혹시 그들과 내통하고있지나 않은가?

이러다보니 이젠 돈까지도 순사부장의 상통처럼 보기가 싫었다.

황서방은 밤마다 끙끙 앓음소리를 냈다. 없던 속앓이를 얻은셈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주인 계시우? 지나가던 길손 점심 한끼 얻어먹고 갑시다.》

문밖에서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보니 말잔등에다 짐을 가득 실은 짐군이 토방아래에 우뚝 서있었다.

《어서 그러슈.》

황서방은 손님을 쾌히 맞아들였다.

길손은 짐을 토방우에 내려놓고 말은 뒤뜰안에 매여놓았다.

그의 거동을 유심히 바라보던 황서방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어딘가 모르게 면목이 있어보이는 사람이였다.

(어디서 봤더라?)

곰곰히 생각해보니 자기네 객주집에 몇번 들린적이 있는 사람이였다. 그는 매번 말우에다 짐을 싣고 다녔다. 눈이 억실억실한게 마음 좋아보이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자주 이리로 다닐가, 혹시 이런 사람이 빨찌산과 연줄이 있는게 아닐가?)

어쨌든 모를 일이였다.

황서방은 길손이 점심을 먹고있는사이에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토방우에 놓아둔 짐짝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았다. 한퉁구리는 지하족같은것이고 다른 퉁구리는 천이 분명 했다.

(이런건 왜 많이 가지고 다닐가? 장사군인가?)

점심상을 물리자 황서방은 그 사람이 어느쪽으로 가는가를 알아보려고 뒤따라 나갔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단 다섯발자국을 따르기전에 말도 사람도 홀연 감쪽같이 사라졌다.

(참 별일이군. 내가 귀신한테 홀리운가보다.)

황서방은 서서 한참동안 눈만 껌벅거렸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갔다.

아침부터 순사부장한테 불리워가서 또 닥달질을 받고난 황서방이 방금 집에 들어서는데 또 그 손님이 지나가다가 들렸다.

《안녕하시우? 점심 한끼 또 얻어먹고 갑시다.》

《맘대로 하시구려.》

순사부장한테 욕을 먹고 분이 아직 사그러지지 않은지라 건성으로 대답을 하던 황서방은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 움쭉 일어나 말우에서 내리우는 그의 짐짝까지 거들어주었다.

이번에 손님이 싣고가는 짐은 소금이였다. 황서방은 대뜸 아침에 순사부장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소금이나 신발같은것을 많이 가지고다니는 사람이 있는가를 눈여겨보라. 그건 다 통제품에 속하는거다.》

그러니 이 길손이 수상하다.

황서방은 마누라를 시켜 그 길손에게 점심을 대접하게 하고는 자기는 미리 뒤뜰에 있는 높다란 떡갈나무우에 올라가 숨었다. 길손이 어느쪽으로 가는가를 살펴보려는것이였다.

길손은 점심상을 물리기 바쁘게 집을 나섰다.

그는 사지령쪽으로 얼마동안 가더니 옆길로 발길을 꺾었다. 언제 생겼는지 거기에도 길이 훤히 열려있었다.

황서방은 나무에서 내려 급히 그 갈림길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금전까지 훤히 나있던 옆길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자리엔 찔레덩굴만 무성했다.

황서방은 집으로 돌아서면서 중얼거렸다.

《아무리 봐도 보통사람이 아니야.》

그는 이날 저녁 순사부장한테 찾아가 사실을 이야기했다.

순사부장은 쾌재를 올렸다.

《보시오. 낚시도 하두 지꿎게 드리우고있느라면 물고기가 걸리는 법이요. 황서방이 〈공〉을 세울 때가 머지 않았는가 보오.》

놈은 조롱에서 비둘기 한마리를 꺼내여 황서방에게 내밀었다. 자그마한 재빛비둘기였다.

《이번에 만나거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따라가 이 비둘기를 날려 행처를 알리시오.》

그리고 막다른 경우에 사용하라고 단도와 독약까지 주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는 황씨의 가슴은 공포심으로 후두둑 거렸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제는 범꼬리를 잡은격이였다.

이로부터 며칠이 또 지나갔다.

밤늦도록 엉치를 붙이고앉아 말씨름을 벌리던 주정군들이 다 흩어져간뒤 상을 거두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주인 계시우? 밤이 깊어 그러는데 또 하루밤 류하고 갑시다.》

문을 열고보니 뜻밖에도 그 이상한 길손이였다. 역시 이번에도 말우에다 짐을 싣고왔다.

《어서 그리하슈.》

황서방은 길손을 반가이 맞아주었다.

길손은 짐짝은 정지칸에 들여다놓고 말을 뒤뜰에 매놓았다.

그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잠자리까지 펴준 주인은 곰곰히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이 길손의 행처를 알아낼수 있을가?)

그러다가 그는 마구간에 들어가 자기네 말을 끌어내다 길손의 말과 슬쩍 바꾸어매놓았다.

신통히도 크기도 생김도 똑같았다.

이튿날 아침 길손은 상을 물리기 바쁘게 말에 짐을 싣고 길을 떠났다. 그 말이 바뀐줄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동안이 지나서 황서방은 마구간에 매놓았던 길손의 말을 끌어냈다. 그리고는 말우에 올라앉아 쩌—하고 배허벅을 찼다.

황서방은 말고삐를 느슨하게 늦추어놓고 말을 몰았다. 제가고싶은대로 가라는것이였다.

그의 넓은 옷소매안에는 재빛비둘기가 들어가있었다.

말은 령쪽으로 걸어가더니 곧 옆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엉켜있던 찔레덩굴이 사라지고 그쪽으로 길이 환하게 열리는것이였다.

말은 뚜거덕뚜거덕 거침없이 걸었다.

황서방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어디가 어딘지 통 가늠이 가지 않았다. 골짜기도 낯이 설고 나무숲도 낯이 설었다.

말은 그를 태운채 숲속깊이 걸어갔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주위가 어슬해지기 시작했다.

온종일 정신을 도사리고있느라니 황서방은 어지간히 지쳤다.

피곤이 실린 눈이 감길듯말듯하다가 갑자기 말이 우뚝 서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다.

앞은 높은 벼랑으로 막혀있었다. 좌우엔 나무숲만 무성할뿐 어느쪽에도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젠 어디로 가려는것일가?》

황서방은 은근히 겁이 났다. 당초에 괜한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호미난방이라 이젠 어쩔수가 없었다.

날은 점점 저물어갔다.

그의 눈은 얼음판에 들어선 황소눈처럼 데룩거렸다.

이때 말이 앞발을 두세번 구르며 《푸르르— 푸르르—》하고 투레질을 했다.

그러자 갑자기 앞에 있던 바위벼랑이 《삐—꿍》소리를 내며 량쪽으로 갈라졌다.

안에서 환한 빛이 내비치더니 눈앞에 넓은 마을이 펼쳐졌다. 그곳은 한창 대낮인듯 해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고있었다.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한벌 쫙 깔려 향기를 풍기고 하늘에선 새들이 고운 소리로 지저귀고있었다.

오붓하게 자리잡고있는 동기와집들과 앞뒤뜰의 과일나무들, 마을앞을 흐르는 시내물과 동그스름한 야산들, 그 어데나 무지개가 내려앉은듯 오색찬란한 빛이 서려있었다. 참으로 별세상이였다.

말은 황서방을 태운채 그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저켠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하는 구령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센지 우뢰소리와 같았다.

척! 척! 척! 발구름소리도 들렸다. 그바람에 땅바닥이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거기선 청장년들이 훈련을 하고있었다.

하늘에 닿을듯이 키가 구척장신인 한 젊은 대장수가 멀찌감치 서서 그들의 훈련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날파람있고 용맹스러워보이는 장수였다.

그의 몸에선 류다른 광채가 뿜어나왔다.

황서방은 대장수의 기상에 몸을 움츠러뜨리였다. 더욱 위압을 느끼게 한것은 천상천하를 한꺼번에 꿰뚫어보는듯한 그

장수의 안광이였다.

황서방은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주춤거리였다.

휴식구령이 내리자 대원들이 와—하고 달려가 대장수를 둘러쌌다. 마치 떨어졌던 부모를 만난듯했다.

대원들속에는 객주집에 들렸던 길손도 있었다.

(그러니 혹시 여기가 **김일성**장군빨찌산이 상주하는곳이 아닐가? 여부지간 비둘기를 날려보낼가?)

황서방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어느새 길손이 그를 알아보고 달려왔다.

《아, 객주집주인님, 이렇게 올줄 알았습니다.》

그는 황서방의 손을 잡고 대장수님께로 이끌었다.

《올줄 알다니요?》

황서방이 얼떠름해서 길손과 대장수를 번갈아보았다.

젊은 대장수는 옛친구를 만난것처럼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였다.

《알다뿐이겠소. 당신의 옷소매안에 비둘기 한마리가 들어있다는것도 알고있고요.》

대장수께서 하시는 말에 황서방은 그만 기절할번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있을가? 이분이 혹시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실가?)

황서방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가 순간에 새파랗게 얼어들었다. 어떤 철추가 내려질지 겁이 났다. 정말 그분은 독립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신가. 대장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겁내실게 없습니다. 그 비둘기가 옷소매안에서 숨이 가쁘겠는데 꺼내십시오.》

황서방은 옷소매안에 손을 넣어 비둘기를 끄집어냈다. 그런데 참 난사라구야. 비둘기는 이미 죽어있었다. 너무 긴장된 나머지 팔에 힘을 주다보니 그만 숨이 막혀버렸던것이다.

대장수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옆에 서있던 대원들도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황서방도 얼결에 허허 따라웃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속주머니에 있는 단도와 독약에 신경이 쏠렸다. 그것까지 들킬가봐 겁이 났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그를 안정시키시려는듯 《마음놓으십시오. 품속에 나쁜놈들이 주는 어떤 기물을 넣고다니든 마음만 바로 가지면 일없습니다.》 하시는것이였다.

(아, 그것까지 아시는구나!)

황서방은 등골에 땀이 쫙 흘렀다.

그는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돈벌이에 눈이 어둡던 나머지 렴탐군노릇까지 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단도와 독약을 꺼내여 그이앞에 내놓았다.

대원들은 그것을 보고 흠칫 놀랐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례사로이 여기시고 너그럽게 말씀하시였다.

《당신은 나쁜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무들을 잘 대접해주어 고맙습니다. 당신네 객주집이 아니였다면 먼길을 다니는데 고생이 많았을것입니다. 내가 우리 동무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황서방은 몸둘바를 모르며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젊으신 장군님께서는 그가 본의아니게 놈들의 손에 걸려들게 된 사실과 그리 넉넉치 못한 살림에 장사를 시작한 이야기까지

다 아시는것이였다. 그리고 순사부장의 독촉을 죽기보다 더하게 여기던 말못하는 그의 가슴속고통도 다 헤아리고계시였다.

《대장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다 속속들이 아십니까?》

황서방은 저으기 감동된 얼굴로 장군님을 쳐다보았다. 순간 그는 장군님의 안광이 지금도 자기 가슴속 깊은곳까지 꿰뚫어 보고있다는 감촉을 느꼈다.

《그런것을 볼줄 모르고서야 어떻게 간악한 왜놈들과의 싸움길에 나서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이의 웃음소리에 가슴속에 맺혀있던 옹이가 순간에 다 빠지는듯하였다.

황서방은 자기 집에 들리군하던 젊은이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 대장수님의 존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 대원이 황서방의 귀에 대고 말해주었다.

《저분은 조선독립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김일성**장군님이시라구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려. 과시 장군중의 장군, 위인중의 위인, 불세출의 명장이시구려!》

황서방은 일찌기 로인들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세상엔 신령스러운 《령주》라는것이 있는데 그 《령주》가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엇이나 모르는 일이 없고 못부리는 재주가 없다. …

하지만 동서고금에 아직은 그런 성인이 나타난적이 없다했거늘 오늘 비로소 세상은 그런분을 맞이하게 되였구나.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령주》가 드신분이시다. 《령주》가 드신분!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을 속속

들이 들여다보시고 지나온 일, 다가올 일을 다 헤아리고계실가? 저분은 또한 상상할수도 없는 천변만화의 술법과 인간초월의 힘으로 세상을 놀래우고계시지 않는가.)

황서방은 장군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생각을 계속했다.

(《령주》가 드신분이 다루는 물건이나 짐승은 다 《령물》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길손이 끌고다니는 말도 조화를 부릴줄 아는 령물이 된가부다.)

황서방은 자기가 비록 못된 마음을 먹고 찾아온 길이지만 이렇게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것을 더없는 행운으로 여겼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와 때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사람이 어디 가나 제정신을 잃지 말고 살면 된다, 무슨 일을 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되게 살라고 가르치시였다.

황서방은 그이의 곁을 떠나고싶지 않았다.

영원히 그 별세상에서 살고싶었다.

그러나 집에서 마누라가 기다리고있고 해야 할 일도 생각이 나서 그는 내키지 않는 걸음이지만 돌아섰다.

짐을 싣고다니던 대원이 황서방이 타고왔던 자기의 말을 다시 끌고와서 《 이 말은 장군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이랍니다. 참 령물입니다.》라고 하면서 후에 가서 찾아올테니 다시 그대로 타고가라고 말했다.

황서방은 그러지 않아도 자기의 행실이 부끄러웠던지라 기어이 자기의 말을 타고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할수없이 그 대원은 황서방의 말을 끌고왔다.

《그럼 이 말을 도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가다가 날자가 걸릴것같아 주먹밥을 여러개 쌌습니다.》

그는 말고삐와 함께 주먹밥을 황서방에게 넘겨주었다.

《고맙습니다. 올 때 당일에 왔으니 점심밥 한덩이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중음식이 많이 필요치 않겠는데 괜한 폐를 끼칩니다.》

황서방이 이렇게 사양하였으나 그래도 그 대원은 다 가지고 가라고 했다.

황서방은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 길을 떠났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였다.

그 대원의 말을 타고 올 때엔 길이 척척 열려서 거침없이 왔는데 자기 말을 타고가자니 길을 알수가 없었다. 골짜기도 낯이 설고 나무숲도 낯이 설었다. 작은 오솔길조차 나지지 않았다.

대원의 말을 듣지 않은것이 후회되였다.

황서방은 그 대원이 여러개의 주먹밥을 싸준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느꼈다.

그는 여러날 걸려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자기가 갔던곳이 어느쪽인지 생각을 더듬어보았다. 그러나 꿈속에 갔던것처럼 알수가 없었다.

황서방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있던 순사부장놈이 그의 행로를 가늠해보려고 얼려보기도 하고 데리고다니기도 하며 몹시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황서방은 사지령을 넘나드는 길손들을 잘 대접해보내야 하겠다는 생각, 그것만이 장군님께서 계시는곳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후 올바르게 살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장군님께 빌어라

금야군에서 사는 한 로인은 해방전에 일본놈의 큰 짐배에서 일한적이 있었다.

그는 어느날 저녁 바다가에 있는 술집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면목이 있는 배군 서넛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내용이 하도 범상치 않은것이여서 그는 마을사람들과 자식들에게 말해주었다.

《아사노마루》라고 하는 화물선에서 있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을 몇해 앞둔 어느 여름이였다.

오사까를 떠난 《아사노마루》는 싱가포르를 향해 태평양을 항행하고있었다.

출항을 할 때 미리 《가미가제》, 바람신에게 제를 지낸탓인지 하늘은 맑고 바다엔 미풍이 불었다. 일년 열두달 바다우로 떠다니지만 이런 날씨는 다섯번을 만나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선장은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기 방에 걸어놓은 《가미사마》(《아마데라스 오미까미》라는 일본신화에 나오는 시조신)에게 항행길을 잘 보살펴주십사 아침저녁으로 빌었다.

이런 때엔 기관실이나 조타실을 내놓고는 선원들이 구석구석 모여앉아 한담을 늘어놓을 여가가 생긴다. 늘 이마를 맞대고 살아오다나니 생각나는 이야기는 이미 다 밑창이 나고 요즘엔 시시껄렁한 이야기들뿐이였다. 오래동안 집을 떠나 사는 사내들이라 대체 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되고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반복되니 흥미를 돋구지 못했다.

그런데 이날엔 한 일본인선원이 자기가 보름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모모다로오》(복숭아에서 나온 아이에 대한 일본민화)를 다시 꺼냈다. 아마도 그에겐 이 이야기밖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이야기가 없는 모양이고 게다가 이미 자기 입에서 몇번 나왔댔다는것도 망각한 모양이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열성을 생각해서 그런대로 듣고있는데 심보가 비뚤어진 호리모도라는 일본선원은 절반도 듣지 않고 땅벌처럼 톡 쏘았다.

《또 〈모모다로오〉요? 정 이야기할게 없으면 쉬기나 하구려.》

그것은 일종의 모욕이기도 했다.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 창피를 당하고 얼굴이 벌개있을 때 경상도 대구가 고향인 박정한이 입을 열었다.

《내가 그럼 새 이야기를 하나 하지.》

그는 경상도 대구지방에서 들은 《수박대가리》이야기(《호박대가리》이야기가 거기에선 《수박대가리》로 되였다 한다.)를 하였다.

간삼봉전투때 많은 주검을 남긴 왜놈들은 그 시체를 다 처리할수가 없어 대가리만 떼서 마대에 넣어 날랐는데 뻘건 피가 마대에 내밸 정도였다. 농군들이 이게 뭐냐고 야료조로 물

으니 놈들은 《수박이다. 수박이 터져서 뻘건 물이 들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왜놈대가리를 《수박대가리》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였다.

듣고있던 선원들은 와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들속에는 조선사람들도 있고 일본사람들도 있었는데 조선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사람들도 대개가 가정이 곤난하여 돈을 벌려고 배를 타는 사람들이라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이야기를 신기하게 들었다.

이에 힘을 얻은 박정한은 관부련락선에 **김일성**장군님의 명함이 새겨졌댔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호리모도가 땅벌처럼 내쏘았다.

《후꾸야마!(창씨개명으로 일본놈들이 달아준 박정한의 일본식이름) 그런 소리 말라. 어쨌든 그 항일유격대는 〈창해의 일속〉이야. 바다에 뜬 한알의 좁쌀과 같단말이야.》

일제상층부에서 떠벌이던 악선전과 꼭같은 소리가 그놈의 입에서 튀여나오는것이였다.

박정한은 젖먹은 밸까지 울컥 솟구쳐올랐다. (감히 명성이 높으신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를 헐뜯다니, 이건 조선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호리모도의 멱살을 그러잡았다.

《뭐라구? 이놈아, 다시 지껄여봐.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 장수여서 백두산에 계시면서도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아신다. 네놈이 감히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를 헐뜯고 무사할줄 아느냐?》

불이 펄펄 이는 그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호리모도는 기가 질려 얼굴이 새파래지며 말을 못했다.

곁에 있던 선원들이 말했다.

《정한이, 그놈의 버릇을 좀 떼주라구.》

배에는 기골이 장대한 박정한을 힘으로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다 일도 잘하고 마음이 무던했던지라 조선선원들은 물론 일본선원들도 그의 편을 들었다.

이에 약이 오른 호리모도는 멱을 잡힌채 파들파들 뛰며 일본선원들에게 욕지거리를 해댔다.

《네놈들도 일본사람이냐? 누구편을 드는거야!》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호리모도의 편역은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후꾸야마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했을뿐인데 넌 왜 지랄이야?》라고 누군가가 그를 쏴주었다.

호리모도는 발악적으로 발길로 박정한의 정갱이를 차며 멱을 잡은 손을 깨물었다.

둘은 싸움이 붙었다. 코피가 터지고 선창에 머리가 부딪쳐 뿔이 돋았다. 싸움을 말리려고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엉키여 말이 아니였다.

이때 배가 기우뚱거리였다.

그렇게도 잔잔한 바다였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였는지 파도가 일었던것이다. 삽시에 그 파도는 산같이 높아졌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시작되였는지 마리아나제도쪽으로부터 수천수만마리의 성난 사자들이 밀려오듯 파도는 기승을 부리며 질주해왔다.

급해맞은 선장이 비상종을 울리고 선원들에게 방비를 하라고 일렀다. 하지만 그 무서운 파도를 어떻게 막아내랴. 파도는 오히려 세지며 《아사노마루》를 수구선수들이 공을 다루듯 가지고 놀았다.

선체는 앞뒤가 번갈아 들리며 앉은방아를 찧었다.

선장은 하늘에 대고 무어라고 중얼거리며 《가미가제》에게 빌었다.

그러나 《가미가제》가 심술이 났는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파도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이마를 쳐들고 달려들었다.

선장은 자기 방에 들어가 이번엔 《가미사마》에게 빌었다.

《신이여, 왜 갑자기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이 불쌍한 속세인간들이 무지하여 혹시 망동된짓이라도 저질렀다면 후에라도 깨우쳐주시와 지금은 이 난파선을 구원해주옵소서.》

그러나 《가미사마》도 귀머거리가 되였는지 구원해주지 않았다.

파도는 점점 더 기승을 부렸다. 게다가 엎친데덮친격으로 하늘에 검은 구름이 뒤덮이더니 비까지 쏟아져내렸다.

한 선원이 선장을 찾아들어와 말했다.

《선장님, 여기서 그중 거리가 가까운 오끼나와섬의 나하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하자.》

선장은 조타수에게 나하쪽으로 배머리를 돌리라고 했다.

그런데 배머리가 돌아가는 순간 파도는 방향을 바꾸어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배가 뒤집힌다! 왜 배머리를 돌리는거야?》

누군가가 꽥 고함을 쳤다.

선장은 조타수에게 《안되겠다. 다시 배를 돌려라.》하고 말했다. 배는 다시 방향을 바꾸었다.

《아사노마루》는 파도가 하자는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

리웠다.

선장은 련속 《가미가제》와 《가미사마》에게 손바닥이 닳도록 빌어댔다. 그러나 있지도 않는 귀신이 어떻게 도움을 주랴.

선장이 말했다.

《대만의 가오슈로 들어가자.》

조타수는 라침판을 보며 배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이번에도 파도는 그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안되겠다. 배를 필리핀의 아빠리쪽으로 몰아라.》

선장이 말했다.

조타수는 다시 반대쪽으로 조타를 돌렸다. 파도는 이번에도 역시 기어코 해보려는듯이 선미쪽을 냅다 답새겼다.

《어떤놈의 새끼가 이러는거야? 배를 바로 몰라!》

《우릴 빠뜨려 죽이자는거야? 정신차리라!》

사방에서 욕지거리였다.

이런 땐 선장이고 선원이고 모두가 반말질이다.

배는 아빠리쪽으로도 갈수 없었다.

선장은 싱가포르까지는 가지 못해도 필리핀의 마닐라에 들어가 정박할 생각을 했다.

다른 때같으면 대만과 필리핀사이를 빠져들어가면 세차던 파도도 좀 숙어들군했는데 이번엔 어찌된 일인지 숙어들기는커녕 더 광기를 부렸다.

선체의 허리가 끊어질가봐 걱정이였다.

마닐라쪽으로도 들어갈수가 없었다.

(《아사노마루》는 이것으로 끝장을 보는가?)

선장도 선원들도 절망에 빠졌다. 이젠 파도에 내맡긴채 운

명의 시각만 기다릴뿐이였다.

그런데 그들의 시야에 멀리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 들어왔다. 배는 파도에 밀려 그쪽으로 가고있었다. 남사군도의 어느 한 섬이였다.

《됐다! 살았다! 섬으로 가자.》

선원들은 위험속에서도 환성을 질렀다.

《되긴 뭐가 돼? 그 섬 가까인 암초투성이다. 〈아사노마루〉는 좀 더 그리로 접근하다간 깨지고말것이다.》

선장의 이 말은 사형선고와도 같이 들렸다.

이때 땅벌의 되알진 목소리가 튀여나왔다.

《이래도저래도 죽을바엔 난 섬으로 헤염쳐가겠다.》

어느새 호리모도가 구명대를 세개씩이나 팔다리에 걸고 물에 뛰여들었다.

《호리모도!》

선장이 소리쳤으나 그는 섬쪽으로 헤염을 쳤다.

그런데 참, 괴이한 일이였다. 기승을 부리던 파도가 슬그머니 잦아들기 시작하였다. 쏟아져내리던 비도 멎고 구름을 헤치고 부채살같은 해살이 바다우로 내리비쳤다.

선원들은 사경에서 구원된것이 너무도 기뻐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선장도 소금물에 젖은 손수건을 짜서 눈물을 닦았다. 그는 갑작스러운 바다의 변화가 리해되지 않는다는듯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중얼거렸다.

《이제 보니 호리모도한테 악귀가 붙어있었던 모양이야. 그놈이 뛰여내리자 파도가 잦아들었거든.》

선원들도 그의 말대로 정말 호리모도에게 귀신이 붙어있은

게라고 생각했다.

《아사노마루》는 항로를 잡고 목적했던 싱가포르로 향하였다.

섬쪽으로 헤염을 치던 호리모도가 멀리에서 함께 가자고 손을 저었다.

조타수는 선장의 눈치를 보았다.

《내버려둬. 섬에 홀로 있으라지. 돌아올 때 태워가지고 가자.》

배는 곧장 앞으로 내달렸다.

《아사노마루》가 싱가포르항에 들어섰을 때였다.

부두에는 전에없이 일본군놈들이 누렇게 깔려있었다.

이미부터 《대동아공영권》을 꿈꾸어오던 놈들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북으로는 중국본토와 원동지방을, 남으로는 동남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였다.

방금 배를 타고 상륙한놈들, 또 어디론가 배를 타고 가려는 놈들, 부두는 수라장이였다.

《아사노마루》가 부두에 완전히 정박하자 한패거리의 왜놈군대들이 배우에 뛰여올랐다. 놈들은 무작정 먹을것을 내라, 마실것을 내라고 을러댔다. 말을 안들으면 칼을 뽑아들겠다는 자세였다.

풍랑을 만나 항행길이 지체되였으므로 배에는 식료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장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것이라도 있는대로 다 내주라고 했다.

놈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먹을것을 보자 정신없이 덤벼들었다.

이때 미군비행기가 날아오더니 뚜루룩뚜루룩 기총사격을 해댔다.

하지만 왜놈들은 음식에만 정신이 팔려 기총사격같은건 개의치 않았다.

선원들은 모두 선창에 납죽 엎드렸다. 그들중 박정한이 놈들에게 넌지시 물었다.

《당신들은 저 미군비행기가 무섭지 않소?》

그러자 한 장교놈이 대답했다.

《그까짓게 뭐 무서운가. 너희들은 실지 무서운걸 모르는가? 미국놈따위는 무섭지 않은데 조선의 **김일성**빨찌산이 제일 무섭다.》

선원들은 눈이 둥그래 그를 쳐다보았다.

《그게 정말이요?》

한 일본선원이 물었다.

《내가 관동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거짓말이나 하겠는가.》

장교놈은 한달전까지 자기가 만주에 있었다면서 직접 목격했거나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랑삼아 늘어놓았다. 그것을 요약해보면 **김일성**장군은 땅을 주름잡는 축지법에다 아흔아홉가지의 변신술을 쓰시며 수백가지의 도술을 부리신다, **김일성**장군유격대는 《신출귀몰》하기때문에 아무리 뛰여난 《토벌의 명수》들도 큰소리를 치며 나섰다가는 무리죽음을 당한다, 그런데서 살아돌아왔으니 자기가 얼마나 장하냐 하는 소리였다.

선원들은 웃었다. 패전을 하고서도 자랑을 하는 그 장교놈이 가소로웠던것이다.

그들에겐 박정한이 고향에서 들었다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

이라는 믿음이 갔다. 동시에 호리모도가 지껄였던것과 같은 일본상층부의 악선전에 환멸이 느껴졌다.

민심은 정의의 편에 쏠리기마련이다. 박정한의 언행을 곱지 않게 보아오던 선장까지도 장교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점점 동조되여갔다.

《아사노마루》는 며칠동안 짐을 부리고 다시 새짐을 싣고 싱가포르항을 떠났다.

출항에 앞서 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꿇어앉아 《가미가제》에게 제를 지내는것을 잊지 않았다.

제발 올 때와 같은 역경에 다시는 몰아넣지 말아줍시사하고 빌었다.

날씨는 청명하고 바다엔 미풍이 불었다.

《아사노마루》는 항로를 따라 정상속도로 달렸다. 배가 남사군도를 가까이 하고있을 때였다.

선장이 조타수에게 말했다.

《호리모도를 데리고가자. 배를 그가 있는 섬쪽으로 돌려라.》

조타수는 배머리를 작은 섬쪽으로 돌렸다.

섬기슭에서 옷을 벗어 흔드는것이 보였다. 무인섬에 홀로 있던 호리모도가 《아사노마루》를 알아보고 데려가달라고 보내는 신호였다.

암초때문에 배가 더 들어가지 못한다는걸 눈치챘는지 호리모도는 맞받아 헤염을 쳐왔다.

선원들이 줄사다리를 내려보내여 그를 끌어올려주었다. 며칠간 조개를 뜯어먹으며 혼자 있다보니 그의 주제가 말이 아니였다.

배는 다시 제 항로에 들어섰다.

그런데 방금전까지 알릴듯말듯한 미풍이 불던 바다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이거 또 불길한 징조로구나.)

선원들이 불안해하는데 아니나다를가 푸르던 바다가 시뿌옇게 변색을 하더니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다. 마치도 옛말에 나오는 바다룡왕이 성을 냈을 때를 련상시켰다.

선장은 비상종을 울려 선원들에게 방비를 잘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자기는 방에 들어가 걸어놓은 《가미사마》에게 제발 도와줍시사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아무리 빌어도 파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사노마루》는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이리 밀리웠다 저리 밀리웠다 하며 파도가 하자는대로 움직였다.

선장은 머리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으로 잠시 말이 없었다.

(《가미사마》나 《가미가제》에겐 빌어도 빌어도 소용이 없구나. 틀림없이 저 호리모도에게 악귀가 붙어있는게야. 그가 배에서 뛰여내리자 파도가 잦고 그가 오늘 다시 배에 오르자 파도가 일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할수 없지. 《아사노마루》를 살리려면 하나를 희생시킬수밖에…)

그는 초췌해서 앉아있는 호리모도를 측은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마음을 랭정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이 센 박정한을 자기 방으로 불렀다.

《후꾸야마, 네가 슬쩍 호리모도를 바다에 처넣으라.》

박정한은 놀라와 눈이 휘둥그래졌다.

《호리모도를 바다에 처넣다니요?》

《그가 부정을 탄것 같다. 악귀가 그에게 붙어있단말이야.》

선장의 말을 듣고있던 박정한은 순간 한가지 생각이 떠올라 그에게 말했다.

《선장님, 제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오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싱가포르로 올 때 호리모도는 **김일성**장군님유격대에 대한 불손한 말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잔잔하던 바다에서 갑자기 파도가 일었습니다.

호리모도를 물에 던져넣는 일은 잠시후에라도 할수 있으니 그에게 우선 **김일성**장군님께 용서를 빌도록 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선장은 방안을 거닐며 생각을 해보더니 박정한에게 선원들을 갑판에 정렬시키라고 일렀다.

파도물이 들씌워지는 갑판우에 선원들이 엄숙히 렬을 지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가 최후의 순간을 예감하는듯했다.

갑판으로 내려오는 선장의 무거운 발걸음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선장은 줄지어선 선원들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호리모도, 앞으로 나오라!》

호리모도는 서너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꿇어앉으라!》

호리모도는 의아해서 선장을 쳐다보면서 꿇어앉았다.

《머리를 숙이라. 그리고 **김일성**장군님께 빌어라!》

선장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여나왔지만 누구 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호리모도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듯 얼굴을 들어 선장을 쳐다보았다.

《머리를 숙이고 장군님께 빌어라!》

선장의 어성이 높아지자 그는 머리를 깊숙이 숙이였다. 그리고는 눈을 껌벅거리며 생각을 하더니 그제야 짐작이 가는지 두손을 머리우로 쳐들고 빌었다.

《장군님, 이 죄많은 인간을 용서해주십시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제가 부지불식간에 나쁜놈들의 말을 받아옮겼습니다. 제 인생에 어이 이런 큰죄를 두번다시 저지르겠습니까. 장군님, 용서해주십시오!》

그의 얼굴에 두줄기의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렸다.

이때였다. 산같이 높아졌던 파도가 갑자기 스르르 잦아들기 시작하였다. 하늘을 뒤덮었던 구름도 슬며시 멀리 사라져버렸다.

아무리 《가미사마》에게 빌어도 듣지 않고 《가미가제》에게 빌어도 듣지 않던 파도가 장군님께 빌었더니 수그러진것이였다.

쾌청한 날씨였다. 하늘엔 구름 한점 없고 바다는 잔물결 하나없이 잔잔하였다. 일년열두달 바다우를 떠다니지만 이런 날씨는 정말 두번을 만나보기 힘들다.

《아사노마루》는 자기의 항로를 따라 항행을 계속하였다.

천불교의 《최고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에 조직을 확대하실 목적으로 겨울방학을 리용하여 안도현 내도산마을에 가신적이 있었다. 그때 이곳 천불교의 교주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은후 몹시 감동되여 자기들의 교리에 김성주선생님을 천불교의 최고신으로 높이 숭상할데 대하여 밝혀넣었다고 한다. 이 력사적사실이 당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 하나의 전설을 낳았다.

하늘아래 첫동네라고 불리우는 백두산기슭의 내도산마을은 천고밀림속의 산간벽촌이였다. 중국쪽에서 보면 만주땅의 마지막 부락이요, 조선땅에서 보면 백두산너머 첫 마을이였다. 이 내도산주변 백리안팎은 무인지경이였다.

내도산이란 밀림의 바다에 섬같이 솟아오른 산이란 뜻에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한다. 만주사람들은 그 산모양이 젖꼭지같이 생겼다고 하여 내두산이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이곳 내도산마을사람들은 거의가 다 천불교를 믿었다.

그들은 옛날에 백두산천지의 물이 하두 맑고 신비하여 하늘에서 아흔아홉선녀가 내려와 미역을 감고 올라갔다는 전설에 기초하여 그곳에 아흔아홉칸짜리 《덩덕궁》이라는 절간을 지

어놓았다. 그리고는 한해에 두번씩 거기에 찾아가 기도를 드리였다.

천불교신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날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머리를 틀어올리고 울긋불긋한 옷차림으로 한데 모여들어 꽹과리와 제금을 치고 북과 목탁을 두드렸는데 이때 울리는 덩덕궁덩덕궁 하는 소리가 참으로 들을만했다고 한다. 그래서 절간이름도 《덩덕궁》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천불교의 교주는 장두범이라는 사람이였다. 그는 한때 독립군에서 싸웠댔는데 독립군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총을 내던지고 깊숙이 내도산마을에 들어와 왜놈들에게는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게는 복을 내려달라고 백두산천지에 빌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하는 천불교를 만들었다.

그가 내세운 신앙은 곧 마을의 민심을 끌어당겨 내도산사람들은 너도나도 천불교신자가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몇해째 손이 닳도록 빌어왔지만 왜놈들은 계속 살판치고 겨레의 슬픔과 민족의 한은 더해만 갔다.

더구나 천불교의 신앙에 반일감정이 짙게 배여있는것으로 하여 일제는 거기에 독을 쓰기 시작했다. 1920년대말에는 왜놈들이 내도산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위험이 엄습해옴을 느낀 내도산사람들은 《덩덕궁》에 모여 기도를 드렸다.

《슬프도다. 이 나라 충의지사들의 피는 산천을 적시고 겨레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쳤건만 삼천리강토는 아직도 원쑤들의 로략질마당이 되여 살아서 숨쉴곳 없고 죽어서 누울곳 없도다. 아, 기울어진 나라의 명맥을 잇고저 창의의 기치를 높

이 들었던 의병의 창은 두만, 압록, 량강의 기슭에서 부러지고 독립군의 총은 이국의 들판에서 녹쓸었다. 최익현이 대마도에 충혼을 묻고 류린석이 또한 만주땅에 숨졌으니 무수한 충의지사들이 민족의 한만 보태고 쓰러졌구나.

아, 정녕 하느님이 계신다면 강도 왜적에게 천벌을 내려주옵소서!》

기도회에서 장두범교주는 정의지심으로 몸부림치며 이렇게 빌었다. 한편 조종의 산 백두산쪽에 대고는 다음과 같이 빌었다.

《이 나라에 속히 백두장검 비껴든 장수 용출하여 한칼에 왜놈들을 몰살시키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주시옵길 천불교신자들은 두손모아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그랬건만 지나가는 바람소리만 솨솨—들려올뿐 그 어떤 신의 계시도 내려지는것이 없었다.

(아마도 우리 천불교가 신앙은 있으되 받들어모실 최고신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가부다.)

장두범교주는 이런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허비였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이해 겨울에 접어들어 내도산일대에는 마을이 생겨 처음 보는 맵짠 추위와 사나운 날씨가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사람들은 여러날째 문밖에 얼씬도 못하였다.

모진 광풍은 눈사태를 몰고와 땅우의 모든것을 눈속에 묻어버리는가 하면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하늘로 휘말아올렸다.

하늘이 보이지 않고 산이 보이지 않고 옆집이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건 온통 뽀얀 눈가루천지였다.

집안에 갇힌 사람들은 근심에 잠겨 말했다.

《며칠만 더 계속된다면 무슨 일을 치겠는걸.》

《우리 내도산마을이 영영 눈속에 묻혀 없어지거나 하늘로 날아나든가 변이 나겠군.》

《바람도 왜놈들을 닮았는지 원…》

그러던 어느날 새벽이였다. 이젠 다 죽는가부다 하고 생각하고있던 교주는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는바람에 눈을 껌벅이였다. 사납게 울부짖던 바람소리에 밤새껏 잠을 못들고있다가 순간에 찾아든 정적에 그만 자기의 귀를 의심했던것이다.

이집저집에서 문이 열리더니 《별이 떴다!》하고 환성을 올리며 사람들이 쏟아져나왔다.

교주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갔다. 하늘땅을 가려볼수 없게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맑게 개인 밤하늘에선 별들이 령롱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생전 처음 별을 보기라도 하는것처럼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것은 날이 밝음에 따라 반짝이던 뭇별들이 깜빡깜빡 조는듯하다가 하나둘 사라지는데 백두산에 높이 솟은 별만은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며 오래도록 남아있다가 동녘으로 솟아오르는 해님에게 그 빛을 넘기는것이였다.

너무도 신기한 조화에 홀려 사람들은 해가 뒤뽐이나 올라올때까지도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필경 백두산의 장수별이 우리 내도산사람들을 구원해주었구려!》

수염을 가슴노리에까지 드리운 좌상로인의 말이였다.

천불교의 장두범교주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이 깊어졌다.

그저 스쳐보낼 범상한 일이 아니였다. 마치 메말라터진 대지에 스며드는 생명수와 같이 답답하던 그의 가슴에 환하게 밝은 채광이 비쳐드는것이였다. 그것은 백두산의 장수별에서 뿜는 빛이였다.

한식경이나 생각을 굴리던 교주는 마침내 천불교의 교리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덧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오늘은 백두산장수별이 떠서 내도산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준 날이다. 이날부터 천불교신자들은 백두산장수별을 최고신으로 믿는다.

해마다 이날에 백두산장수별을 우러러 특별기도를 올리도록 한다.》

교주가 이것을 신자들에게 알리려고 방금 문밖을 나서려는 때였다.

언제 왔는지 한 젊은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마당안에 들어서는것이였다.

교주는 저도모르게 두손을 들어 반기며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신자들을 대하던 틀지고 점잖은 걸음새는 어디로 갔는지 어푸러질듯 달려가는 그 모습은 마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인을 맞이하는 애어린 소년을 방불케 하였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던 교주는 그만 한자리에 우뚝 멈춰서고말았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여 그토록 반기며 마중했는지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일이였기때문이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면은 아니였다. 하지만 자기의 행동이 조금도 불미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왜 그럴가?

교주의 머리속에는 퍼뜩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자기가 항시 기원하고 마음속에 그려보던분이라는 강렬한 느낌이였다.

그러면서 새벽에 본 백두산의 장수별이 자기의 눈앞에서 빛을 뿌리는감을 느꼈다.

착각도 아니요, 환각도 아닌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아! 하늘에서 내려온 별님이신가, 해님이신가! 이분을 모시고저 바람도 자고 구름도 사라졌구나!)

교주는 꿈인가싶어 몸을 움직여보았다.

꿈은 아니였다.

그렇다면 하늘에 정말 하느님이 있단말인가!

《덩덕궁》이나 《천불사》를 세우고 하늘에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느님이 실재한다고는 생각지 않는 교주였다.

번거로운 생각에 묻혔던 교주는 젊으신분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성주라고 불러주십시오.》

《김성주!》마음속으로 다시한번 외워본 교주는 자기 믿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명함 역시 깊은 뜻이 담기지 않았는가!)

알고보니 그분은 바로 독립운동의 명성높으신 선배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자제분이시라는것이였다.

(대끝에서 대가 나고 싸리끝에서 싸리가 난다더니…)

교주의 짐작은 방에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확고해졌다.

그이께서는 먼저 천불교를 내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시더니 천불교가 왜놈에게 천벌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은공을

베풀어줄것을 바라는것은 애국의 넋이 깃든 장한 뜻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목적을 이룩할 방책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는데 듣자마자 해방의 날이 눈앞에 환히 내다보이는듯했다.

그이의 인품에 깊이 매혹되였던 교주는 말씀까지 듣고보니 날씨가 개인뒤처럼 가슴이 확 트이였다. 마디마디에 애국의 넋이 맥박치는 말씀,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이 명철하게 분석되고 래일의 길이 환히 밝혀진 그 말씀에 교주는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환성을 금할수 없었다.

(아, 내가 백두산의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올린 보람이 있구나!

인걸은 하늘이 낸다는 말을 누가 빈말이라 하겠는고.)

그날밤 교주는 아침에 생각했던 교리의 문구들을 하나하나 매듭지어나갔다.

《백두산의 장수별은 김성주선생님이시다!

왜놈에게 천벌을 내리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안겨줄것을 기원하는 우리 천불교의 신앙은 오직 김성주선생님께서만이 이루어줄수 있다. 그러므로 김성주선생님은 천불교의 최고신이시다!

해마다 김성주선생님이 내도산을 찾아주신 날이 오면 크게 기도회를 열고 그분의 뜻을 더 잘 받들어갈 굳은 맹세를 다지도록 한다. …》

그후 교주는 이날 다진 천불교의 새로운 교리를 어김없이 지켜나갔다고 한다.

유명해진 국수집

함흥사람들은 자기 지방의 자랑을 손꼽을 때엔 의례히 농마국수를 빼놓지 않는다. 그만큼 함흥농마국수는 예로부터 소문이 났다.

지금도 이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은 동흥산기슭의 신흥관을 즐겨 찾는다. 그리고 평양사람들도 농마국수생각이 나면 함경남도특산물을 전문하는 식당을 즐겨 찾아가군한다.

이렇듯 인기를 끄는 함흥농마국수는 거기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전설로 하여 더욱 유명해지고있다.

해방전 한고향 친구인 박서방과 김서방이 한날한시에 함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박서방은 국수집을 내오고 김서방은 리발소를 내왔다.

그런데 기업활동이 서툴어서 그런지 처음 몇해동안은 둘다 본전도 뽑지 못했다.

생존경쟁이 우심한 도시바닥에서 영업을 하자면 솜씨도 뛰여나야 하는데다 머리가 팽이처럼 돌고 처세술에도 능해야 했다. 그들에겐 그런 재간이 없었다. 마음이 모질지 못한데다 얼굴에 간살웃음을 띄울줄도 몰랐고 말주변도 없었다.

다른 음식점들로는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박서방네 국수집엔 손님들이 가물에 콩 나오듯 드문드문 찾아오군했다.

《오늘도 눌러놓은 국수가 또 쉬겠군.》

박서방의 머리에선 이런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역시 다른 리발소들에선 리발사들이 쉴 겨를이 없는데 김서방네 리발소에서는 깎는 시간보다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

《엥이, 까까쟁이도 못해먹을 노릇이군.》

김서방의 입에서도 매일같이 이런 소리가 튀여나왔다.

그러나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들이라고 언제까지나 고모양, 고꼴로 있으란 법은 없는 모양이였다. 몇해가 지나자 그들의 솜씨도 어지간히 늘었다.

박서방네 농마국수가 점차 소문이 퍼져 전에는 값눅은 국수를 사먹으려고 돈이 적은 사람들이나 찾아들던것이 이젠 돈많은 부자놈들과 왜놈들까지 발길질하였다.

김서방네 리발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두 친구의 벌이가 서로 비등했다.

그런데 복지경에 접어든 온도계의 수은주처럼 점점 올라가던 박서방의 수입이 다시 미끄럼대를 탄것처럼 하강선을 긋기 시작했다.

까닭인즉 왜놈순사들과 감독놈들의 발길이 잦아지자 그걸 질시해서 일반 백성들의 발길이 떠진데 있었다.

그건 또 그렇다치고 어찌된 일인지 국수맛까지 싹 달라졌다. 질기던 국수가 석달열흘을 물에 담그어놓은것처럼 물찍하고 써지기가 일쑤였다.

주방에서 일하는 마누라에게 음식을 똑똑히 하라고 지청구를 하면 전과 다름없이 애를 쓰는데도 그렇다는것이였다.

(내 일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누.)

박서방은 한탄을 하다가 김서방네는 어떤가 해서 하루는 자기 딸을 그 리발소에 가보고오도록 하였다.

딸이 돌아와 하는 말이 김서방네 리발소엔 손님이 어찌나 많은지 줄을 지어 기다리더라는것이였다.

《그럴수가 있나. 아마 리발사가 적어진게지.》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예요. 리발사들은 다 있어요. 오히려 좀 늘어난것 같아요.》

《그래?》

박서방의 눈이 커졌다.

경쟁자들중에서 앞선 사람이 생기면 뒤떨어진 사람은 등이 달기 마련이다.

박서방은 비결을 알아볼 생각으로 그날 저녁 김서방을 찾아갔다.

《김서방, 임자 나도 모르는 무슨 신통한 수를 쓰는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야 남은 곤경에 처해있는 때에 그리도 흥성거릴수 있나.》

그 말에 김서방은 허허 웃었다.

《박서방, 임잔 문밖에도 나와보지 않고 두문불출하고있는 모양일세. 그렇지 않다면야 온 함흥시내에 짜한 소문을 못들을수가 있나.》

《짜한 소문이라니?》

박서방은 금시초문이라 의아해하였다.

《그럼 내가 이야길 해주어야겠군.》

김서방은 사실을 자상히 말해주었다.

얼마전 홍남에서 만사람을 놀래우는 굉장한 소문이 돌았다. 백두산에서 싸우시는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장군님께서 홍남병원에 입원하시였다가 가셨다는것이였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흥분을 누르지 못하며 말했다.

《그분께서 여기 홍남에까지 오셨댔단말이요?》 하며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분께서 어디가 편찮으시여 입원을 하셨을가?》 하며 그이의 신상에 대하여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걸 미리 알았다면 병원에 가서 그분을 만나뵙는건데.》 하며 절호의 기회를 놓친것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아는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은 김서방은 며칠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도 그분을 모셔보았으면.)

하지만 그게 어찌 될법한 일인가. 나라의 운명을 두어깨에 짊어지신 그분께서 백두광야를 넘나드시며 강도 왜적들과 싸우시느라 여념이 없으실텐데 무엄하게도 그걸 소원하다니…

김서방은 마음을 눅잦히고 변함없이 리발소의 문을 여닫군하였다. 그사이 리발사들의 머리깎는 솜씨도 늘고 간판도 큼직하게 써붙였지만 수입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묵묵히 리발을 하던 나이 먹은 리발사가 사기가 올라 김서방에게로 다가왔다.

갑자기 웬일인가 하여 마주보니 그가 종이 한장을 내놓는것이였다.

《주인님, 이 까까쟁이한테 행운이 차례졌수다.

방금 점잖은 손님이 리발을 하고 나갔는데 그 걸상에 이런 종이가 놓여있질 않겠수.》

그것은 **《김일성》** 이라고 쓴 장군님의 명함장이였다.

얼씨구나, 우리 리발소에 이런 행운이 차례지다니!

김서방은 막 춤이라도 추고싶었다. 리발사들도 기분이 모두 하늘로 둥둥 떠올랐다.

이런 일이 있은뒤 삽시에 함흥리발소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시여 리발을 하고 가시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게 어느 리발소라우?》

사람들은 그걸 탐문해보고는 저마다 김서방네 리발소로 쓸어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리발을 하시고 가신 자리에 앉아 자기들도 머리를 깎아보자는것이였다. 지어 다른 리발소에서 머리를 깎은지 닷새도 되지 않은 사람까지도 이곳에 와서 머리를 깎겠다고 줄을 섰다.

리발소는 련일 흥성거리게 되였다.

《아, 그래서였구만.》

박서방은 김서방을 몹시 부러워하였다.

그러고보니 김서방네 리발소가 흥하게 된것은 그에게 어떤 뾰족한 재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김일성**장군님의 덕이였다.

박서방은 집으로 돌아왔다. 김서방이 하던 이야기가 눈에 삼삼히 떠올라 그 역시 흥분되여있었다. 자기가 당한 일처럼 여겨져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나왔다.

그러나 자기네 국수집은 여전히 손님들의 발길이 드물어 한적하였다. 국수는 풀어지기가 일쑤고 육수물은 제 맛이 나지 않았다.

물론 박서방의 가슴속에도 《장군님을 한번 모셔보았으면!》하는 소망이 간절했지만 국수까지 그꼴인데 어떻게 바란단말인가. 그런 행운은 아무 사람한테나 차례지는게 아닌가부다 하고 자기를 위안했다.

박서방은 국수분틀도 고쳐보고 좋은 양념감도 구해들였다. 하지만 영업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하루는 갓마흔에 첫버선이라고 오래간만에 국수가 질기게 잘 나왔다. 육수도 별맛이였다.

《이게 우리 집 국수가 옳긴옳은가?》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였다. 국수맛을 본 사람들도 《미꾸라지가 룡이 된게 아니요?》하고 의아해하였다.

이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져갈무렵이였다.

키가 훤칠한 젊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함흥농마국수가 유명하다는데 나도 한그릇 먹어봅시다.》

젊은 손님은 빈 식탁에 가앉았다.

접대를 하고있던 박서방의 딸이 얼른 손님에게 국수 한그릇을 가져다올렸다.

손님은 국수를 다 들고나서 식탁우에 국수값을 내놓았다. 박서방의 딸이 보니 큰돈이길래 거스름을 가져다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가 거스름돈을 드리려고 다시 식탁에 와보니 손님이 없었다.

《별 손님이구나. 왜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가셨을가?》

박서방의 딸은 이상해하다가 물차관밑에 웬 종이장이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뜻밖에도 **김일성**장군님의 명함장이였다.

《아니, 그럼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는 명함장을 가슴에 댄채 어찌할줄 몰라하다가 얼른 문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러나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장군님은 보이지 않았다.

때를 같이하여 여러 사람들이 얼굴에 의문을 담고 우르르 그리로 몰려왔다.

《체네, 이 국수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우리 집에 장군님께서 오셨댔어요!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댔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가시였어요. 혹시 어느쪽으로 가시였는지 손님들은 못보셨나요?》

처녀는 발을 동동 굴렀다.

《아, 그래서였구만!》

길손들은 저으기 놀라와하며 그제야 자기들도 의문이 풀린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서라니요?》

처녀가 의아해서 반문하였다.

그러자 길손들은 자기들이 본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사이 밖에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국수집을 찾아오던 길손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었다. 신비스럽게도 박서방네 국수집에 난생처음 보는 오색채운이 서리서리 어려있었기때문이였다. 구름속에 자태를 감추었다 드러내보이군하는 그 집은 마치 신선들이 사는 집같기도 했다.

아울러 온 거리에 향기가 가득차고 때아닌 아지랑이가 눈섭을 간지럽히며 춤을 추었다.

무수한 별꽃들이 반짝거리며 눈앞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군하였다.

쌓였던 만시름이 순간에 다 녹아버린듯 길손들의 가슴은 까닭모를 즐거움으로 부풀어올랐다.

그들은 넋을 잃고 오색채운이 드리운 국수집을 멍하니 바라

보기만하였다.

이윽고 그 집에 드리웠던 구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떼구름을 이루며 하늘로 올라가는것이였다.

그 구름속에서 하늘이 좁다하게 《오호홍!》 룡마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뒤이어 뚜거덕뚜거덕 말발굽소리가 나더니 구름과 함께 멀리 백두산쪽으로 멀어져가더라는것이였다.

《그러니 장군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가시였군요!》

박서방의 딸은 장군님을 그리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이께서 구름을 타고 오르시니 룡마가 하늘에서 기다리고있다가 모시고 갔나부웨다.》

길손들도 흥분에 싸여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생각을 하며 못박힌듯 오래동안 그자리에 서있었다.

박서방의 딸은 눈을 껌벅이더니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 장군님의 명함장을 가슴에 꼭 쥔채 아버지를 찾아들어갔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우리 국수집에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댔어요. 그분께선 우리가 만든 국수를 잡수시고 구름을 타고 가시였어요!》

《뭐?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박서방은 의혹이 담긴 눈길로 딸을 마주보았다.

딸이 그에게 장군님의 존함이 씌여있는 종이를 내보이며 전말을 이야기하였다.

《아, 정녕 그분께서 오셨댔구나! 나라님께서 이 초췌한 국수집을 다 찾아주시다니.》

박서방은 너무 기뻐 《아가야, 술 가져와라. 국수도 서너그릇 말아오거라. 오늘은 나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해보자!》

하였다.

음지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행운은 박서방네 국수집에도 찾아왔던것이다.

마음이 한껏 떠있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박서방이 딸을 질책했다.

《그런데 얘야, 네가 큰 실책을 했구나. 그이께 보탬은 드리지 못할망정 거스름을 올리지 못하다니. 바쁘신 장군님한테 네가 어지간히 꾸물거린 모양이구나.》

《아니예요, 아버지. 그건 잠시잠간사이였어요.》

응석기어린 딸의 대답이였다. 그에게 죄의식이 있긴 했으나 어쨌든 그보다도 기쁨이 더 컸던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박서방네 국수집에서 농마국수를 잡수시고 가셨다는 소식은 곧 날개를 달고 퍼졌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함흥국수집에 오시여 국수를 잡수시고 가시였다!》

《거스름돈을 드리려고 보니 차판밑에 명함장을 남기고 가시였다!》

그러자 박서방네 국수집은 흥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잡수어보신 국수를 자기들도 먹어보자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왔다. 왜놈순사나 감독따위들은 겁이 나서 못들어오고 그대신 일반백성들은 먼곳에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와서 두그릇, 세그릇씩 청했다.

《장군님을 모시였던 집이여서 박서방네 국수맛이 특별히 좋아진가부웨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함을 금치 못하며 국수를 먹었다.

장군님의 명함장

무릇 이름이란 여럿 가운데서 그것만을 구별해 부르려고 생긴것이리라. 하지만 사람의 이름만은 단순히 그렇지도 않은것 같다. 마음속진정으로 자식의 앞날을 축복해주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새겨보면 이름자에는 부모와 이웃들의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념원과 의지가 슴배여있는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 속담에 《이름 좋은 하늘타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름은 좋아도 보잘것 없는 존재로 여겨져 물건이름과 별다름없이 그만을 가려보는데 씌여있는 사람이름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이름자에 담긴 뜻과는 달리 저주와 증오의 대상, 악의 상징, 화근의 상징으로 불리워지는 이름도 한둘이 아니다.

숭고한 이름자에 어찌 티검불을 뒤섞으랴. 여기서는 그런것은 불문에 붙이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조선의 밝은 태양이 되여달라는 의미에서 지어부르게 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 백두산으로 가는 렬차

1930년대말 동만에서 있은 일이다.

일본군부가 운영하는 어느 큰 정미소에서 아침부터 다툼질이 벌어졌다. 여러 《토벌》대가 한꺼번에 쌀을 실어가겠다고 들이닥친바람에 어느쪽에 먼저 주는가가 문제로 되였다.

관동군사령부의 지령장을 가지고온 놈들이 떵떵 으르는통에 정미소서기는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었고 몸집좋은 주인도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여보, 우리 〈도시우미부대〉가 먼저 가져가야겠소. 당장 식량이 떨어졌소.》

한 텁석부리가 들이댔다.

《그렇구말구요.》

정미소주인이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옆에 서있던 안경쟁이가 권총을 뽑아들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조요부대〉에 먼저 보내시오!》

《그것도 옳구요.》

주인은 권총구멍을 내려다보며 질겁을 해서 대답했다.

《정신 나갔소? 우리 〈네기시토벌〉대가 먼저 왔단말이요.》

이번엔 또 다른놈이 권총을 들이댔다.

《그럼 거기부터 보내야 하겠구만.》

주인은 맥빠진 소리로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러자 앞뒤에서 또다시 여러개의 권총이 위협을 했다.

《〈시라미즈부대〉가 먼저요.》

《〈후지이부대〉가 먼저요.》

거기에다가 또 무슨 부대, 무슨 부대 하는것들이 지령장을 코앞에 들이댔다.

모두 눈에 살기가 올라있으므로 이쪽에 주면 저쪽의 총에 맞을것 같고 저쪽에 주면 이쪽의 총알에 구멍이 뚫릴것 같았다.

진퇴량난에 빠져 땀만 흘리고 서있던 정미소주인은 그 죽을 고비에서 벗어날 틈사귀를 찾아보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판인데 도대체 낸들 어쩌면 좋을고? 옛다, 모르겠다. 어쨌든 목숨부터 건사하고 봐야겠다. 아예 저것들한테 내맡기자.

《그러지 말고 당신네들이 결정하시오. 나는 그에 따라 쌀을 내도록 하겠소.》

정미소주인의 말이 떨어지자 이번엔 제놈들끼리 아귀다툼이 시작되였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우미부대〉가 먼저 싣고가겠소.》

《아니요. 우리 〈조요부대〉가 더 급하오.》

《〈조요〉? 〈조요〉가 뭐 말라빠진거야. 우리 〈도시우미부대〉가 먼저 가져가야 해!》

《도시우미부대》에서 왔다는 놈이 언성을 높이자 《조요부대》놈이 그의 멱을 틀어잡았다.

《너 우리 조요대장님을 모욕했어. 군법에 넘길테다!》

그 틈에 다른 《토벌》대에서 온 놈들은 저들끼리 결정을 지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놈들도 인차 멱씨름으로 넘어갔다.

《이놈아, 네놈들은 밤낮 산판을 싸다닌다는게 빨찌산그림자도 잡지 못하구선 밥을 먹겠다는거야?》

《네놈들은 뭐 붙잡았느냐? **김일성**빨찌산이라는 이름만 듣고서 도망을 쳤다면서?》

이번엔 서로 헐뜯기내기였다.

정미소마당은 또 거기대로 복새판이였다. 쌀을 실러온 여러 《토벌》대의 자동차들이 먼저 꽁무니를 들이대겠다고 야단이였다.

점심때가 넘었는데도 안팎에서 다툼질은 계속되였다. 언제가도 끝장날것 같지 않았다.

당시 도처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한테 얻어맞은 일제는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동변도토벌작전》에 내몰았다. 놈들은 대부대《집중토벌전술》, 《장거리추격전술》로 끝장을 보겠다는 심산이였다.

그러자면 놈들에게도 식량이 문제였다. 각 《토벌》대장놈들은 자기네 량식참모에게 울러댔다.

《식량을 급히 실어오라. 장거리행군을 하려면 먹을것이 많아야 한다.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겠으면 목을 내놓으라.》

그런것만큼 이놈들은 먼저 쌀을 가져가겠다고 필사적일수밖에 없었다. 정미소에 찧어놓은 쌀이 많지 못하므로 여기에서 밀려나면 끝장이다. 내목이 달아날바에는 남의 목도 떼자는 심산으로 놈들은 여차직하면 《실력》을 행사할 잡도리였다.

이때였다. 밖에 나가있던 서기가 급히 들어와 주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또 한 부대에서 왔습니다. 어쩌랍니까?》

주인이 짜증을 냈다.

《저 꼴을 보면서도 묻는거야?》

서기가 목을 움츠리고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면서 중국다부산자를 입은 한 젊은이가 들어섰다. 그는 정신없이 고아대는 놈들을 힐끔 쳐다보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태연하게 정미소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쌀을 가져가려고 왔습니다.》

주인은 딱 잡아뗐다.

《쌀을요? 저것 보오. 〈토벌〉대들에서 특별지령장을 가지고 와서도 다투는판이요.》

그러나 젊은이는 꺼리낌없이 《〈토벌〉대의 특별지령이라. 나는 〈토벌〉대를 이리저리 끌고다니는 제일 높은곳에서 왔소. 좀 보겠소?》하더니 가슴에서 종이장 한장을 꺼냈다.

그것을 펼쳐보던 주인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변했다. 거기엔 《이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식량을 보내주시오. **김일성**》이라는 글이 씌여있었다.

《어서… 가져가십시오. …》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간 다투던놈들이 한꺼번에 홱 돌아섰다.

《뭐야?》

《여기… 여기…》

주인이 떠듬거리며 책상우에 놓인 **김일성**장군님의 명함장을 가리켰다.

놈들도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한꺼번에 눈이 뒤집혀 뒤로 물러섰다. 감히 이런곳에까지 빨찌산이 나타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던것이다.

한놈이 슬그머니 손을 권총집에 가져갔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놈이 재빨리 그놈의 손을 나꾸어채며 눈총을 쏘았다.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뜻이였다.

지난 경험을 보아서 **김일성**장군님한테 덧나게 굴었다간 놈들에게 금시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 장군님의 명함장을 흘끔흘끔 들여다보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쑥덕공론을 하던 놈들은 정미소주인에게 제놈들도 다른 의견이 없다는듯이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정미소주인은 젊은이에게 물었다.

《마차들을 끌고오셨나요? 자동차들을 몰고오셨나요?》

젊은이는 밖을 가리켰다.

《저 마당에 서있는 차도 많은데 뭣때문에 또 끌고오겠소? 저 차들에 실어 역전까지만 나릅시다.》

곧 정미소주인의 지령에 따라 몇대의 자동차에 쌀이 가득가득 실렸다.

놈들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눈들만 퀭해서 내다보았다.

젊은이는 그 쌀을 가까운 역에 날라다 부리우게 하고는 차를 돌려보냈다.

역전에도 실어야 할 화물이 군데군데 높이 쌓여있었다. 멀리 봉천으로, 길림으로, 안동으로… 실어보낼 역들도 여러곳이였다.

역에서 운송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매우 바삐 돌아쳤다. 사사로운 일로 부치는 물건따위는 아예 받지조차 않았다.

젊은이가 소리쳐 불렀다.

《마루보시!(운송을 맡아보는 사람을 일본말로 이렇게 불렀다.)》

그러자 마루보시가 둥글표식의 모자를 쓰고 달려왔다.

젊은이는 그에게 장군님의 명함장을 내보이며 말했다.

《이 쌀가마니를 〈백두산행렬차〉에 실어보내시오.》

마루보시는 갑자기 상냥해지면서 굽신거렸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역〉이 있던가요?》

《어쨌든 꼬리표를 그렇게 달면 목적지에 가닿게 된다.》

젊은이의 말대로 《백두산역》으로 보내는 수백개의 꼬리표가 가마니들에 달리고 곧 백두산으로 가는 특별렬차가 편성되였다.

모든 화물을 뒤로 미루고 쌀을 가득 실은 렬차가 기적을 울리며 떠났다.

잠시후였다.

정미소에 식량을 실어가려고 왔던 여러 《토벌》대놈들이 헐레벌떡 권총을 빼들고 역전으로 달려왔다. 놈들은 식량을 실어보낸후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모양이였다.

《마루보시! 이자 그 쌀을 어데로 보냈는가?》

《〈백두산역〉으로 보냈습니다.》

마루보시가 태연스레 대답했다.

《이놈아, 〈백두산역〉이 어데 있기나 하다구 그런 소릴 하는거야?》

《그분들이 있다면 있는거요.》

놈들은 더 묻지 못했다.

어데다 전화를 걸어볼수도 없었다.

그래 이번엔 밭에서 일하는 농군들에게 물어보았다.

《방금 기차가 어느쪽으로 사라졌는가?》

《백두산쪽으로 날아오릅디다.》

《기차가 뭐 비행기라고 날아오르는가?》

《레루가 공중으로 뻗으니 그우로 달려올라갑디다.》

들으니 꿈같은 소리였다.

그들의 대답을 증명이라도 해주듯 멀리 구름속에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소리가 들렸다.

멍하니 서서 눈만 껌벅이던 《도시우미부대》 놈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탄을 했다.

《어이구. 이번 〈동기토벌〉도 당초부터 글렀군.》

《조요부대》 놈도 한숨을 쉬였다.

《〈토벌〉은커녕 오히려 〈토벌〉을 당하게 됐다.》

이때 그놈들을 야유하는듯 들길에서 노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기차는 빨라
빠른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것은 백두산

2. 성문도 자리를 비킨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인솔하신 항일유격대가 동만의 어느 큰 성지에 대한 습격전투를 벌리기전에 있은 일이라고 한다.

당시 성안에서는 미나미총독의 특사를 비롯하여 관동군, 위

만군의 거두들이 한데 모여 항일유격대를 《토벌》할 모의를 하고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놈들은 성시에 대한 일체 출입을 엄금시키는 한편 경비를 물샐틈없이 강화하도록 하였다.

《새도 날아넘지 못하게 하라!》

《쥐도 기여들지 못하게 하라!》

찌릉찌릉 전화종은 그칠새 없고 보초병들은 막대기처럼 꿋꿋하게 서서 눈 한번 깜박일수 없었다. 포대경이 올빼미눈처럼 주위를 살피고 성문엔 망짝만한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명함만 들어도 벌벌 떨고있던 왜놈들이라 항일유격대의 이목이 그리로 돌려질가봐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있었다.

성시를 공격하자면 미리 정찰을 해야겠는데 이런 조건에서 그리로 들어간다는건 엄두도 내기 힘든 일이였다.

먼저 말주변이 좋고 변장술이 능하다는 한 대원이 들어가보겠노라 자진해서 임무를 받고 떠났다. 그러나 그는 첫째 검문소도 통과하지 못하고 경계령이 해제될 때까지 그곳에 갇혀있게 되였다.

다음엔 여러번이나 경찰놈들을 감쪽같이 속여넘기고 련락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서 부대에 소문을 냈다는 한 녀대원이 자진해서 떠났다.

그러나 그는 성문 가까이도 가보지 못하고 두번째 검문소에서 걸리고말았다.

참으로 놈들의 경계는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이런 사실을 헤아리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남철이라는 한 대원을 부르시였다.

《내가 통행증을 한장 써줄테니 이번엔 동무가 가보오.》

《알겠습니다, 장군님!》

남철은 대답을 올리고나서 어떤 통행증을 써주시려나 호기심을 가지고 서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벼루에 먹을 가시더니 흰종이에 붓으로 《통행증》이라는 세 글자를 쓰시고 그밑에 자신의 존함을 써주시였다.

(장군님의 명함장이로구나!)

남철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장군님께서는 조만해 자신의 존함을 써주지 않으시였다. 언제나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하시는 그이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시였다.

그런데 이렇게 손수 존함까지 써주시니 남철은 신비스럽게 여겨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함장을 받아드는 순간 그는 가슴뿌듯하게 차오르는 자부심과 함께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꼈다. 아무리 어려운 임무라도 기어이 해낼수 있다는 자신심이 생겼다.

《장군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 사령부를 떠났다.

어느덧 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새파란 하늘도 퍼그나 높아보였다. 만주땅에선 가을이 빨리도 찾아들었다.

(고향에선 지금도 해수욕을 할텐데.)

그의 고향은 강원도 양양의 락산사였다. 관동팔경의 하나로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곳이였다.

장군님을 모시고 그 고향땅에 가보고싶었다.

동해의 이름난 방어국도 푸짐히 대접해드리고싶었다.

남철은 고향길을 걷는 기분이 들어 날개라도 돋힌듯 발걸음

이 가벼웠다. 더우기 가슴속에 장군님의 명함장을 품고있으니 마치 그이께서 자기와 함께 걸고계시는듯 마음이 든든했다.

멀리 큰 강이 흐르고있었다.

다리목에 사람들이 하얗게 몰켜있었다. 놈들의 검문차단소가 그들을 잡아두고있었던것이다.

남철은 주저없이 그곳을 내처 지나갈 기세로 곁눈 한번 팔지 않고 곧바로 걸었다.

다리목엔 경찰 다섯놈이 총을 메고 서있었다.

또한 지붕이 삐죽한 간이초소막이 시커먼 피물처럼 옆에 서있었다.

남철이 꺼리낌없이 그곳을 그냥 지나가려 하자 다섯놈의 입에서 동시에 째지듯 고함소리가 튀여나왔다.

《서라!》

그러더니 총부리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도 성시쪽으로는 가지 못한다는걸 모르는가?》

그중 한놈이 가시돋힌 눈으로 남철을 쏘아보며 목고대를 높였다.

《내한텐 그런게 해당되지 않소. 나에겐 어데나 갈수 있는 특별통행증이 있소.》

《특별통행증?》

놈들은 금시초문이라는듯 서로 마주보았다.

《우린 상급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못받았다.》

《못받을수도 있지. 미리 알리고 다니는것도 아니니까.》

남철은 태연스레 웃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럼 특별통행증이나 어떤것인지 어디 보자.》

놈들은 눈을 도사리고 바싹 다가들었다.

《함부로 보여줄순 없지만 오늘은 너희들 특별단속날이니 보여주겠다.》

남철은 가슴속에서 장군님의 명함장을 꺼내여 펼쳐보이였다.

놈들은 처음엔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거동을 살피더니 장군님의 명함장을 보자 갑자기 나무막대기처럼 꿋꿋해졌다. 숨도 쉬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했다.

놈들은 이미 항일유격대한테 맞다들려 되게 혼쌀이 난적이 있었다. 그래 자칫 잘못 처신하다간 후환이 미칠가봐 두려웠다.

길을 가로막았던 총부리들이 어서 지나가라는듯이 스스로 《영접들어총》하듯 우로 처들리웠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남철은 그곳에 잡혀있던 첫번째 대원을 데리고 유유히 검문소를 통과하였다.

성문이 점점 가까와졌다. 그들의 앞에선 둘째 차단소가 기다리고있었다.

거기서도 그들이 꺼리낌없이 내처 지나가려고 하자 일곱놈이나 되는 경찰이 총끝을 들이대며 막아섰다.

《어디로 가는가?》

《성시로 가오.》

《그리로는 통행을 엄금하라는 지시다.》

《우리에게는 특별통행증이 있소.》

남철이 당당히 맞섰다.

《이봐, 미나미총독이나 관동군사령관이 써준 통행증도 여긴 통과하지 못하게 돼있어.》

놈들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따윈 대비할수도 없는 하늘에서 받아온 특별통행증이요.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보겠소?》

남철이 떵떵 울러대며 이번에도 가슴속에서 장군님의 명함장을 꺼내여 펼쳐보이였다.

순간 놈들의 눈이 화등잔처럼 커졌다. 이미부터 **김일성**장군님의 명함만 들어도 겁에 질려하던차에 너무도 뜻밖에 당한 일이여서 이놈들도 몸이 굳어졌다. 그러더니 잠시후 앞의 차단소에서도 후환이 있을가 두려워 통과시켰으니 제놈들도 모르쇠를 하는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던지 서로 눈짓을 하며 옆으로 비켜섰다.

《진작 그럴노릇이지.》

두 대원은 거기에 잡혀있던 녀대원까지 데리고 유유히 지나 성시로 향했다.

성문밖엔 보초가 없었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지키는 모양이였다.

《어떻게 들어간다?》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높다란 성벽우엔 가시철조망이 둘러있고 네귀에 솟아있는 포대에서는 감시경이 빙글빙글 사위를 살피고있었다. 아무리 날고뛴다 하더라도 시퍼런 대낮에 성벽을 뛰여넘을 엄두는 낼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성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끄떡도 안한다.

첫번째 대원이 성문을 주먹으로 탕탕 두드렸다. 어찌나 두꺼운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셋이 함께 어깨로 밀어도 보았다. 쇠빗장을 지른 성문은 반응이 없었다.

(예까지 왔다가 성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선단말

인가?)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발길을 돌릴수가 없었다.

남철은 생각을 하다가 가슴속에서 통행증을 꺼내여 두 대원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행여나 해서 그 통행증을 닫긴 성문에 대보았다. 그러자 순간 이상하게도 안에서 절커덕소리가 나더니 지금껏 끄떡없던 성문이 스르르 하고 좌우로 열리는것이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다. 안에 있는 놈들이 감촉을 느꼈을가? 아니면 포대우에 있는 놈들이 장군님의 명함장을 보고 겁에 질려 열게 했을가? 그런것 같지는 않았다. 어쨌든 **김일성**장군님의 명함장앞에선 성문도 자리를 비키였다.

안에 서있던 보초놈들은 벌써 까무라쳤는지 량쪽에 너부러져있었다.

세 유격대원은 함께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성문은 다시 닫기고 까무라쳤던 보초들도 한참만에 다시 일어서서 《내가 왜 까무라쳤댔나.》 영문을 몰라 눈만 껌벅거렸다.

이렇게 되여 세 유격대원은 성안으로 들어가 정찰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김일성**장군님께로 돌아가게 되였으며 왜놈들은 저들의 기도를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하고 벼락을 맞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후 인민들속에서는 《장군님의 명함장앞에선 성문도 자리를 비킨다》는 이야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늘에 뜬 붉은 구름

예로부터 사람들은 선한자에게는 복이 차례지고 악한자에게는 벌이 차례진다고들 말해왔다.

만약 모든 운명이 이대로 된다면 착하고 결백하고 선량한 우리 조선인민은 옛날부터 만복을 누리며 살아왔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한갖 마음의 위로뿐이였지 선한 사람에게 저절로 복이 차례지는것도 아니요, 악한것이 스스로 징계를 당한것도 아니였다.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우리 인민은 얼마나 많은 운명의 곡절을 겪었으며 고달픈 인생에 시달리다가 한을 품고 숨진이들은 또 얼마이던가.

착한 사람들에게 찾아들 그 어떤 귀인이나 뜻밖의 횡재, 초자연적인 힘이란 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현세기에 와서 아닌게아니라 파란곡절을 겪던 사람들이 자기도 미처 모르게 구원의 해빛을 받아안은 일들이 자주 생겨났으니 그것은 귀인중의 귀인이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비쳐주시는 빛발이였다.

이로부터 해방전에 항간에서 돌아간 전설들가운데는 기구한 운명길에서 허덕이던끝에 **김일성**장군님의 덕분에 행복을 찾고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가 많다.

경상도 의성지방에서 돌았다는 다음의 전설도 바로 그러하다.

처녀들의 가슴을 싱숭생숭하게 하는 따뜻한 봄날이였다.

락동강지류의 하나인 봉황천가에서 토닥토닥 빨래방치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조잘거리는 물소리를 짓누르고 멀리까지 퍼졌다.

빨래감이 몇가지나 되는지 방치질소리는 잠간씩 도간을 두었다가는 울리고 멈췄다가는 또 울리고 하여 퍼그나 오래동안 들렸다.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그것이 단순한 빨래방치소리가 아니라 그 누구인가 들으라 하는 신호같기도 하였다.

아닐세라 그 소리에 화답하듯 저쪽 오솔길에서 건드러진 총각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

울던 개구리가 인기척에 입을 다물듯 빨래질소리는 노래소리가 울리자 뚝 멎어버렸다.

총각도 제 목소리만 울리는게 멋적은지 노래를 채 끝맺지 못했다.

잠시후 총각은 주위를 힐끔힐끔 둘러보더니 빨래터로 가까이 갔다.

《미영이, 날 기다리고있지?》

《기다리긴, 보면 모르우, 빨래하는걸.》

가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보면 그가 본의아닌 대답을 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순길이라는 총각과 미영이는 약혼한 사이였다.

그렇지만 농사일도 바쁜데다 봉건이 심한 때여서 그들은 이웃에 살면서도 자주 만날수가 없었다.

이따금 울타리뒤에서 잠간 만나 한두마디 말을 건네보고는 남이 볼세라 헤여지군했고 봉황천가에서 하나는 빨래질을 하러, 다른 하나는 일을 끝내고 몸을 씻으러 나왔다가 만나보군했다.

그런데 요며칠째 순길이가 통 보이지 않았었다.

(혹시 징용에라도 끌려간게 아닐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은근히 미영이의 속을 조였다.

그때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느라고 조선의 청장년들을 모조리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어갔다. 순길이라고 어찌 례외로

될수 있으랴.

그러나 끌려갔으면 소문이라도 나겠는데 잠잠하였다.

미영이는 빨래터에 나가면 만날수 있을가 해서 련 사흘째 저녁이면 강가로 나와보군했다.

《애야, 빨래감이 뭐 그리 많다구 어두운데 나가느냐?》하고 어머니가 물을라치면 《오늘 논김을 매다가 옷에 흙물이 좀 튀여서 그래요.》하고 나가서는 애꿎은 헌옷만 날마다 빨래방치로 두들겨댔다.

애간장이 타는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순길이는 종무소식이였다. 건넌산에서 두견새울음소리만 간간이 구슬프게 들려올뿐이였다.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가? 중낮에 불쑥 나타나다니…

바라던 일이지만 정작 만나게 되니 가슴이 널뛰듯하였다. 어쩐지 물에 비낀 제 얼굴까지도 마주보기가 부끄러웠다.

《미영이, 난 징용에 끌려갈가봐 며칠동안 웃마을 삼촌네 집에 숨어있었어. 삼촌넨 논밭이 얼마간 있어 괜찮게 사는데 면장과 잘 아는 사이야. 그래 면장을 찾아가 이야기했더니 날 징용에서 뽑아주겠다는거야.》

순길이의 말에 미영이는 기쁜 나머지 부끄러움도 잊고 달걀이 하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요? 난 괜한 걱정을 했네.》

순길이는 그의 고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오히려 제편에서 당황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대신 나를 <경방단>에 들어가라는거야. 군경찰서와 다 련계를 지어놓았으니 나가서 수속을 하라더군. 까짓거 <경방단>이 경찰의 앞잡이라지만 거기 들어가서 악한짓만 하지 않

으면 되지. 그래 난 군경찰서를 찾아갔댔어. 거기에 뽑혀온 사람들을 보니 가난뱅이자식은 나 하나뿐이고 다 잘사는 집 자식들이야. 이를테면 나에게 행운이 차례진셈이지.》

정말 이름처럼 순진한 순길이였다.

미영이는 《경방단》이라는 말이 썩은 고기를 삼킨것처럼 께름직했지만 징용에 끌려가지 않게 된것이 다행스러웠으므로 그에 대해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그들은 처음으로 긴 시간을 마주하고 서있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미영이는 어머니의 분부로 의성읍 장거리에 거울을 사러 갔다. 가난뱅이살림이라 집집마다 거울이 있는건 아니였지만 외동딸을 시집보내게 된 지금에 와서 어머니는 그게 꼭 하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던것이다.

봉황천을 건너 면소재지를 거쳐 읍에까지 간 미영이는 거울을 사가지고 해가 좀 기울어서야 돌아서게 되였다. 집에까지 가려면 날이 퍼그나 저물것이였으나 그는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읍거리 어디에 순길이가 있겠는지 예까지 왔다가 그냥 갈수가 없었다.

미영이가 발소리를 죽여가며 경찰서앞을 지날 때였다. 마침 새로 들어온 《경방단》원들이 경찰서마당에서 교련을 받고있었다.

날카롭게 생긴 왜놈순사가 교관노릇을 하고있었는데 제식동작이 굼뜨다고 목청을 돋구어 닦아세우는것이였다.

《이 민충이들아,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빨랑빨랑 움직이라. 축지법을 쓰는 **김일성**장군유격대는 하루밤새에 백두산

에서 제주도까지 열두번을 왔다갔다한다더라. 너희들처럼 그렇게 비척거려서야 유격대가 새끼손가락으로 슬쩍 다쳐도 넘어지겠다.》

《경방단》원들은 욕을 탈대신 오히려 키득키득 웃었다. 아마도 새비같은 자기들을 유격대와 대비해서 말하는것자체가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였다.

미영이는 거기에 순길이가 있나 해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울타리옆에 숨어서 찬찬히 살펴보았다.

대렬중간쯤에 순길이가 서있었다. 제 랑군이 될 사람이여서 그런지 그중 훤칠하고 잘나보였다.

미영이의 얼굴이 저도모르게 새빨개졌다. 그는 가슴속에 품은 거울만 만지작거렸다.

(이쪽으로 좀 돌아볼게지.)

그러나 순길이는 교관이 한 **김일성**장군유격대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머리 한번 돌리지 않았다.

그옆에 서있는 작달막한 사나이가 교련을 받기가 싫증이 났는지 흥뚱흥뚱하다가 우연히 이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순간 뜻밖에도 미영이의 눈이 그와 마주쳤다.

웃마을 지주집 아들이였다. 언젠가 미영이네 집에 중매군을 보내왔다가 퇴를 맞은 그는 미영이가 자기 마을의 순길이와 약혼을 했다는걸 알고있었다.

지주아들은 순길이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그리고는 미영이쪽으로 턱짓을 했다. 색시가 왔으니 보라는것이였다.

순길이가 이쪽으로 머리를 돌리자 옆의것들이 놀려대는듯 키득거렸다.

《뭐야?》

가뜩이나 신경이 칼끝처럼 곤두섰던 왜놈교관이 귀청이 찢어질지경으로 소래기를 쳤다. 그러더니 사람을 물려는 개처럼 이를 사려물고 울타리밖으로 달려나왔다.

《너때문인가?》

놈은 미영이를 발견하고는 그를 《경방단》원들이 잘 보이는곳으로 끌어내여 채찍으로 치고 구두발로 찼다.

미영이의 품속에서 거울이 떨어져 산산쪼각이 났다.

비명을 지를수도 울수도 없었다. 아픔도 도가 지나면 소리를 낼수 없는 법이다. 게다가 제가 저지른 《잘못》이 느껴져서 반발을 할수도 없었다.

미영이의 입에서는 간신히 신음소리만 나올뿐이였다.

대렬에 서있던 순길이 참지 못하고 두주먹을 부르쥐고 달려나갔다. 그는 교관놈에게서 채찍을 빼앗아가지고 그놈을 후려쳤다.

그러자 안에서 순사들까지 달려나왔다. 싸움은 커졌다. 치고 받고 걷어차고 하다가 순길이는 종시 모두매를 맞고 녹초가 되여 끌려들어갔다.

미영이는 다음날 새벽에야 겨우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후 순길이한테선 소식이 없었다. 두 사돈집에선 날마다 끙끙 걱정들을 했다.

그러다 순길이의 생일날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더는 누를길 없어 군경찰서를 찾아갔다.

서장놈은 메밀눈을 해가지고 잡아삼킬듯이 그를 노려보더니 《네 아들놈은 불온분자다. 또다시 교관을 때리고는 물에 빠져죽었다.》하고 내쏘는것이였다.

정말 청천벽력이였다.

당초에 《경방단》에 들여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걸 하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이 사실을 안 미영이는 정신을 잃고 며칠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두 집 부모들의 위로와 정성으로 눈을 뜨긴 했으나 이 모든것이 자기때문이라는 죄책감으로 하여 그는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날 아침, 미영이는 몸단장을 곱게 하고 머리를 틀어올렸다.

어머니가 의아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너 웬일이냐?》

미영이는 어머니앞에 꿇어앉아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말했다.

《어머니, 의논없이 머리를 올린걸 용서하세요.

생각같애선 나도 그이를 따라 강에 몸을 던지고싶지만 일점혈육 남은것 없는 부모님들이 더 슬퍼하실것 같아 이 길을 택했어요. 성례를 치르진 않았지만 나는 오늘부터 그이의 안해예요.》

그리고 흐느껴우니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부모들도 그의 뜻을 물리칠수가 없었다. 물론 사돈집에서는 한사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기어이 순길이를 따르겠다는 말에 감심을 하고 미영이를 아들 없는 며느리로 맞아들이였다.

미영이는 시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순길을 대신하여 시부모

님들을 잘 모시였다.

어느덧 한해가 지나 순길이의 생일날이 되였다.

미영이는 이른아침 소복단장을 하고 제상에 마주앉았다. 제상이라야 자그마한 밥상에 밥 한그릇과 물 한그릇, 가재미 세마리가 놓여있을뿐이였다.

미영이는 아직 애티가 벗어지지 않은 얼굴을 다소곳이 숙이고 나지막한 소리로 제상에 대고 말했다.

《여보, 무성의한 이녀를 용서하세요. 오늘이 당신의 생일날이예요. 그리고 제사날이예요. 혼이라도 찾아와서 내 귀에 속삭여주세요. 부드럽던 그 목소리 듣고싶어요. …》

그러다가는 흐느끼며 향불을 피워올렸다.

몰몰 외가닥연기가 피여오르고 이상야릇한 향내가 방안에 자욱하게 차니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저 세상 사람을 만나려고 면회실에 앉아있는감이 들었다. 그는 몸가짐을 정히 하고 상앞에 꿇어앉아 얼마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창호지를 바른 문에 해가 비쳤다.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미영은 제상을 치우고 주섬주섬 보자기에 음식을 쌌다. 막걸리 한병을 넣는것도 잊지 않았다.

그가 이웃마을 면소재지를 지날 때였다.

뒤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거나말거나 미영은 상념에 사로잡힌채 짓수굿하고 걸었다.

《저년 순길이 색시다.》

《상복을 입고 어디로 갈가?》

떠드는 소리는 등뒤 가까이에서 들렸다.

《경방단》놈들이 못된짓을 하며 싸다니다가 미영을 알아봤

던것이다.

미영은 역시 못들은척하고 걸었다.

그런데 무슨 물같은것이 목덜미에 와서 묻었다. 손으로 씻어보니 새까만 먹물이였다.

그는 자기 옷을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새하얀 치마저고리가 온통 먹물투성이였다. 《경방단》놈들이 뒤에서 먹물총을 쏘아댔던것이다.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설교하던 일제는 조선의 백의동포들을 《황국신민화》한다는 미명하에 당시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만하면 물감을 뿌리거나 붓으로 먹물을 발라놓군하였다. 그런 일은 주로 《경방단》놈들이 도맡아하였다.

미영이가 먹물이 튄 자기 옷을 돌아보며 놀라자 놈들은 《와하하…》웃어댔다.

《참 보기좋은걸.》

그들속에 끼여있는 지주아들놈이 빈정거렸다. 그리고는 또다시 먹물총을 쏘아댔다. 교관을 하던 안경쟁이가 멀찌감치 서서 그들이 하는양을 바라보고있었다.

미영이는 울분이 터져올라 참을수가 없었다.

그는 놈들을 마주보며 악을 썼다.

《이놈들아, 내 남편을 죽이고도 무엇이 모자라 행패질이냐? 어서 나까지 잡아가거라! 상복을 입은데다 먹물을 뿌리다니.》

미영이는 가슴을 치고 땅을 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의분이 솟구쳐올라 《경방단》놈들에게 주먹질을 했다.

《죽일놈들! 저놈들을 잡아가는 귀신은 없는가?》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가 나와서 저놈들을 다 없애치웠으면 좋겠다!》

그바람에 목이 움츠러든 《경방단》놈들은 안경쟁이와 함께 비실비실 피해서 지주집으로 들어갔다.

미영이는 일이 이렇게 되자 산으로 가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섰다.

이 원통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할가? 하소연할데도 없고 들어줄이도 없었다. 오로지 절치부심하며 하늘에 대고 원쑤를 갚아달라 빌뿐이였다.

그런데 새파랗게 맑은 하늘에 이상하게도 한쪼각의 빨간 구름이 떠있었다. 아니 구름이라기보다 빨간 천쪼박과 흡사했다.

사람들도 그것을 쳐다보며 저으기 신기해하였다.

《무슨 구름이 저리도 붉을가요?》

《구름은 무슨 구름, 천쪼박이겠지.》

《천쪼박이 어떻게 하늘에 떠있을가요?》

《하긴 글쎄…》

모두들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러는 사이에 갑자기 사방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었다. 아직 대낮인데도 옆사람도 가려보지 못할 지경으로 캄캄해졌다. 그러더니 동이로 물을 쏟아붓듯이 짝짝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져내렸다.

번쩍번쩍 번개가 일고 《우지끈 딱—》벼락을 쳤다.

《훼—》

《쉬—》

로인들은 습관대로 화가 없게 해달라고 빌었다.

어떤 집에서는 마당에 양푼을 내던지기도 했다.

그러면 집안에 벼락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일을 하고있는것이였다.

사방에서 물소리가 쏴— 콰륵콰륵 진동을 했다.

이러기를 둬시간, 쏟아지던 비는 홀연 뚝 멎고 하늘을 덮고 있던 검은 구름은 사방으로 물러났다.

마치 그 누구의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것 같았다.

언제 그랬더냐싶게 하늘은 다시 씻은듯이 맑아졌다.

《참 조화로다.》

백발로인들도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런데 미구하여 마을에는 통쾌한 소문이 들려왔다. 지주집에서 술에 만취되여나온 《경방단》놈들이 봉황천을 건느려고 물에 들어서자 갑자기 사위가 어두워지고 무더기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날이 개였을 때 보니 성난 물결은 달리는 사자와도 같이 흰 거품을 물고 흐르는데 그놈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라는것이였다. 다 물에 빠져 저승으로 간게 틀림없다고 했다.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간들 이것만큼이야 시원할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앉아 그 신비함과 통쾌감을 이야기하느라 밤이 깊어가는줄도 몰랐다.

집집에서 불이 다 꺼지고 귀뚜라미소리만이 방구석에서 들려올 때 독수공방에 누워있는 미영이는 흐르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입속으로 말했다.

《여보, 기뻐하세요. 하늘도 무심하지는 않은것 같아요. 당신의 원쑤를 갚아주었어요.》

낮에 받은 수모도 내리는 비에 다 씻겨간듯 속이 씨원했다. 애오라지 순길이에 대한 추억만이 그의 머리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때였다. 문밖에서 조용히 부르는 소리에 미영이는 호돌짝 놀랐다.

《미영이! 미영이!》

듣던 목소리였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

《누구세요?》

《나요, 순길이요.》

그 소리에 미영이는 심장이 멎은듯 딱 굳어졌다.

(순길이라니? 저승에 간 그이가 어떻게 온담. 혹시 령혼이 찾아온게 아닐가?)

심장이 다시 방망이질을 했다.

《아니예요. 그이는 없어요.》

미영이는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말했다.

《나 순길이요. 나는 죽지 않았소.》

밖의 목소리는 사정을 하는듯했다.

듣고보니 정말 순길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영문을 알수 없어 미영이는 벽에 의지하고 서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귀신이면 소리를 칠판이였다.

그런데 방에 성큼 들어서는걸 보니 틀림없이 오매불망 그리던 순길이였다.

죽었다는 사람이 이 어인 일인가? 미영이 어찌할줄 몰라하는데 순길이 조용하라고 입에 손을 가져다댔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순길이는 경찰서에서 그날저녁 다시한번 된매를 맞았다고

한다. 억울하기 그지없어 가슴을 치던 그는 야삼경 어둠을 타서 도망을 쳤다.

놈들은 이곳저곳 그의 행처를 수소문해보다가 알수 없게 되자 물에 빠져죽었다는 소문을 냈던것이다.

순길이는 살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따라 만주로 들어갔다가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얼혼이 빠지게 해놓는다는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에 들어갔다. 그는 장군님한테서 축지법도 배우고 변신술도 배웠다. 며칠전에는 직접 그이한테서 경상도지방에 나가서 여차여차하라는 공작임무도 받았다는것이였다.

미영이는 꼭 옛말을 듣는것 같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낮에 하늘에 이상스레 붉은 구름이 뜨더니 비가 내려 《경방단》놈들이 모두 물에 빠져죽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느님이 놈들에게 벌을 내렸는가봐요.》

미영이는 순길이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하느님이 그랬을게 뭐요. 그건 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하신 일일거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한테서 들은 이야긴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따금 구름을 타고 하늘높이 오르시여 세상을 한바퀴 휘—둘러보군하신다오. 그럴 때에 장군님께서 타고오르시는 구름은 보통구름이 아니라 장미빛을 띠는 붉은 구름이라더군.

그래서 백두산마을사람들은 하늘에 붉은 구름이 뜬걸 보기만하면 <또 어느곳에 있는 왜놈들이 오늘 벌을 받게 되였다.>고 하며 통쾌해한다는거요.》

순길이의 말에는 자랑이 어려있었다.

《그러면 장군님께서 붉은 구름을 타고오르시여 내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던것도 보셨겠구만요.》

미영이는 좀 부끄러워하는투로 말했다.

《보셨겠지. 아마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경방단>놈들이 미영이에게 행패질을 하는것도 보시고 미영이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것도 다 보셨을거요. 그리고는 천지조화를 일으켜 놈들에게 그런 벌을 내리셨을거요.》

미영이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늘 세상을 굽어보시며 자기들과 같은 천대받는 백성들을 살펴주신다고 생각하니 이름할수 없는 기쁨이 가슴뿌듯이 차오르는것이였다.

그는 일어나앉아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곱게 빗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백두산쪽을 바라보며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장군님, 이 소녀의 인사를 받아주세요! 장군님께서는 저의 남편을 찾아주시고 가슴속에 엉켜있던 원한을 풀어주시였습니다. 이 은혜를 언제면 다 갚으오리까.》

미영이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그리며 오래도록 그자리에 서있었다.

며칠후 의성지방에서는 멀리 백두산에 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천지조화를 일으켜 《경방단》놈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한 녀인의 원을 풀어주시였다는 소문이 마을마다 쫘— 하게 퍼지였다.

좁쌀 한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있은 일이라고 한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갓 창건된 유격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지하혁명조직들을 강화하고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이룩하시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으로 실로 분망하시였다. 어디서나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싶어했고 어디서나 장군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다.

그이께서 친솔하신 대원들은 몇명밖에 되지 않는데 도와주어야 할곳, 가보실곳은 너무나도 많았다.

실정이 그러하다보니 이 시기 장군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시고 홀로 활동하신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인민들속에서는 별의별 신비한 이야기가 다 생겨났다. 그중에는 좁쌀 한줌에 대한 전설도 있다.

바람도 이마를 짓쪼으며 겨우 새여들어오는 태고연한 밀림속, 때는 초복이 지난 뒤여서 만주땅에도 숲이 무성했다.

대오를 이끌고가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들과 함께 진대나무에 걸터앉으시여 앞일을 의논하시였다.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갈래로 나뉘여 가야겠소.》

그이의 말씀에 대원들은 놀란 눈길로 서로들 마주보았다.

(몇 안되는 대오가 갈라지다니?…)

더구나 모두 그이의 곁을 떨어지기 싫어했으므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동만의 여러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남만과 북만, 동무들을 파견해야 할곳은 많은데 우리 대오는 스물도 못되니 어찌겠소. 당장은 우리가 네개조로 갈라져갑시다.》

그러시더니 장군님께서는 대원들을 여섯명, 다섯명씩 세개조를 갈라주시였다. 이러다보니 장군님곁에는 한명의 대원도 남지 않았다.

《사령관동지, 그러면 네번째 조는 없지 않습니까?》

한 대원이 안타깝게 물었다.

《네번째 조는 나요.》

장군님께서는 대원들을 둘러보시며 웃으시였다.

《그럼 사령관동지 혼자란 말씀이십니까?》

그중 나어린 꼬마대원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그렇소, 조장도 나고 조원도 나요.》

대원들은 그이의 대답을 듣고서 저마다 그이께 말씀올렸다.

《안됩니다. 그 위험한곳엘 장군님 혼자서 가시다니, 안됩니다!》

《그건 우리 대원들이 허락할수 없습니다, 사령관동지!》

하지만 이미 장군님의 결심은 확고하시였다.

《동무들은 나를 걱정하는데 나는 오히려 동무들이 걱정되오. 이것은 명령이니 집행해야 하오.》

장군님께서는 조마다 무기와 탄알도 고루 차례지게 조절해

주시고 식량도 나누어주시였다.

그리고 무기가 없어 차례지지 못한 한 대원에게는 자신께서 차고다니시던 싸창을 주시였다.

식량도 자신의 몫으로는 한알도 남겨놓지 않으셨다.

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자기의 총을 그이께 드리려고 했고 자기에게 차례진 식량을 그이께 올리려고 했다.

《무기도 없이 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몇백리길을 걸으시겠는데 끼니는 무엇으로 에우시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그때에도 《내 걱정은 말라는데두.》라고 하시며 주겠으면 좁쌀이나 한줌 호주머니에 넣어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꼬마대원이 얼른 그이의 호주머니에 좁쌀을 넣어드렸다.

(이 한줌의 좁쌀로 무엇을 하시려나. 한끼도 에우지 못하시겠는데.)

꼬마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새여나왔다.

그는 그 좁쌀 한줌에서 앞으로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질는지 아직은 알지 못하였다.

각조들은 지정된곳으로 떠났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윽토록 바래주시고나서 단신으로 밀림속을 걸으시였다.

이때 한개 조에서 조장이 행군을 시작하다말고 꼬마대원을 불렀다.

《꼬마, 동무는 곧 장군님의 뒤를 따라가시오. 그이의 신변이 걱정되오. 이건 우리모두의 뜻이니 동무가 그이께 띄우지 말고 멀찌감치에서 따르면서 그이를 호위해드리시오.》

《알겠습니다.》

꼬마는 조장에게 거수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그는 걸음도 빠르고 사격술도 좋았다. 위장술도 능했다.

그래서 조장은 그를 지명했던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재빠른 꼬마도 한참동안 달음박질쳐서야 멀찌감치 장군님의 뒤모습을 찾을수 있었다.

그는 장군님께서 기미를 알아차리실세라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나무숲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미구하여 천리수해도 끝이 나고 둥글둥글한 야산들이 나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군님과의 거리를 가늠하며 반달음을 치던 꼬마는 갑자기 흠칫 놀라 멈추어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숲속에서 웬 사나이가 불쑥 나오더니 장군님의 뒤를 따르고있었기때문이였다.

소리를 지를수도 없었다. 총을 쏠수도 없었다.

(어떤 사람일가? 어쨌든 장군님의 뒤를 놓치지 않고 따르는 것을 보니 렴탐군인가부다.)

꼬마는 이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다그쳤다.

그러나 그놈의 걸음도 어지간히 빨라 좀처럼 사이가 줄어들지 않았다.

(사령관동지께서 놀라시지 않게 저놈을 슬쩍 해치워야겠는데.)

꼬마의 이마엔 도토리알같은 땀방울이 바질바질 돋아났다.

그놈은 점점 장군님을 가까이 따랐다. 꼬마도 그놈을 놓칠세라 걸음을 재우쳤다.

그런데 갑자기 도적고양이처럼 꼬마의 앞에서 살금살금 걸

어가던 렴탐군이 나무에 붙어서서 버둥거리며 모지름을 쓰는 것이였다.

(저놈이 왜 저럴가?)

가까이 가보니 칡넝쿨과 다래넝쿨이 그놈을 발목에서 머리끝까지 칭칭 나무에 휘감아놓았던것이다.

그놈은 목까지 조여드는바람에 말을 못하고 제발 그것을 끊어달라는 식으로 꼬마에게 눈짓을 했다.

《더러운놈, 잘코사니야! 총알이 아깝다. 그렇게 버둥거리다가 콱 죽어라!》

정말 깨고소한 일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넝쿨이 이놈을 휘감았을가?

장군님께서 여러가지 술법을 쓰신다더니 그중 한가지 술법을 쓰시였을가? 꼬마는 그제야 숨이 좀 나갔다.

그는 렴탐군놈이 칡넝쿨에 목이 조여들어 마지막숨을 거두는것을 보면서 급히 앞으로 내달았다.

장군님께서는 꼬마가 뒤쫓아가는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쉬임없이 앞으로만 걸으시는것이였다.

봇나무숲을 헤치시고 분비나무숲을 헤치시였다.

이따금 숲속에서 노루나 산토끼같은것이 뛰면 그것을 바라보고 웃으며 걸으시였다.

작은 오솔길이 나졌다. 장군님께서는 그 오솔길로 들어서시였다.

그러나 꼬마는 조장의 명령대로 자기가 드러날가봐 숲속에서 달려야 했다.

장군님께서 어느 한 등성이길을 걸으실 때였다. 갑자기 량쪽 산기슭에서 왜놈들이 누렇게 나타났다. 열댓놈은 잘될것

같았다.

꼬마는 놀라서 나무뒤에 멈춰섰다.

(큰일이구나! 사령관동지께서 아무런 무기도 몸에 지니신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가?)

소리를 지를수도 없고 총을 쏠수도 없었다.

이럴 때 그렇게 하는것은 오히려 장군님께 해를 끼칠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꼬마에겐 별다른 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기회를 봐서 소리를 지르며 놈들에게 총을 쏠판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때에도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태연자약하게 앞으로만 걸으시였다.

그런데 꼬마가 당장 숲에서 뛰여나오며 놈들에게로 달려가려는 순간 왜놈들의 목이 먼저 뎅겅뎅겅 떨어져나가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천자길이도 넘는 장검을 한바퀴 휘익— 휘두르시였던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저렇게 긴 칼을 차신적이 없는데 어데서 생겼을가?)

꼬마는 어리둥절해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긴 칼이 장군님의 손에 타래를 지으며 감겨지는것이였다. 그것은 보통 크기의 또아리만하였다.

(참, 장군님의 또아리칼은 신비스럽기도 하구나.)

꼬마는 자기만이 큰 비밀을 알게 된것으로 하여 어깨가 으쓱해졌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숨도 돌리지 않으시고 행군을 계속하시였다. 그러므로 꼬마도 잠간 주저앉아 쉴 겨를이 없었다.

어느덧 한낮이 기울어 꼬마는 배가 출출해났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점심쯤은 건느시고 저녁전에 마을까지 내처 가실 의향인것 같았다.

하긴 호주머니에 넣어드린 한줌밖에 안되는 좁쌀로 어떻게 끼니를 에우시랴.

긴 골짜기를 내려가니 넓은 벌이 나졌다. 방금 자동차들이 지나갔는지 큰길에는 바퀴자리들이 또렷했다.

장군님께서는 활개를 치며 길복판으로 척척 걸으시였다.

그런데 갑자기 온 벌판에 불개미떼마냥 왜놈들이 새까맣게 나타났다. 그 수 수천을 헤아렸다.

꼬마는 억이 막히여 몸이 떨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 혼자몸으로 저 숱한 놈들을 어떻게 당하실가?)

또아리칼을 지니시긴 했지만 너무나도 숱한 놈들이 산지사방에서 쓸어오기때문에 단꺼번에 다 치시기는 어려울것이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최후의 결심을 품고 꼬마가 장군님곁으로 달려가려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앞에선 상상할수도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때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시던 좁쌀 한줌을 놈들을 향해 뿌리시는것이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와—》하고 함성이 울렸다.

왜놈들이 놀라서 우를 쳐다보았다.

장군님께서 좁쌀로 도술을 부리시였는지 옛장수들같이 철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새까맣게 하늘에서 내리더니 놈들을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기 시작했다.

삽시에 벌판이 놈들의 주검으로 너저분해졌다.

《히야! 만세! 만세!》

꼬마는 너무도 기뻐 목이 터져라 만세를 웨치며 겅중겅중 뛰였다.

왜놈들을 한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철갑옷군사들은 눈깜박할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니 사령관동지께서 뿌리신 좁쌀이 모두 군사로 되여 놈들을 친 모양이로구나!)

꼬마는 생각할수록 희한해서 눈만 껌벅거렸다.

장군님께서는 이윽고 이런 일은 대수롭지 않으신듯 여전히 길복판으로 척척 활개치며 걸으시는것이였다.

이날 저녁해가 아직 넘어가기전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목적지에 이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꼬마가 뒤를 따른다는걸 이미 알고계신듯 마을어귀에 이르자 숲속에 대고 그를 부르시였다.

《꼬마, 숨박곡질은 그만하고 이리 나오라구.》

꼬마는 얼굴이 구운 가재처럼 되여가지고 그이앞에 나타났다.

《사실은 조장동지가 준 과업이길래…》

그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듯 말끝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잖아.》

장군님께서는 이러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꽃으로 피여난 글자

만주국 금주성 반산현이 자리잡고있던 료하강류역은 무연한 벌방지대이다. 원래부터 부침땅이 많은데다 지주들이 품팔이군들을 그러모아 개간한 간석지도 있고 바다와 잇닿은곳엔 소금밭도 있으며 온화한 구릉지대엔 아편꽃을 재배하는 약초원도 있었다.

살길을 찾아 만주로 들어간 조선사람들가운데는 멀리 그곳에까지 가서 보짐을 풀어놓은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장에 항일혁명투쟁시기 부임되여온지 한두해만에 달아난 어느 한 경찰서장의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풀빛승용차우에 몸을 싣고 끝없이 뻗어간 황토길로 뽀얀 먼지를 일구며 경찰서장으로 부임되여오던 날 시야에서 흘러가는 마을들과 벌판을 바라보며 미야모도는 속다짐을 하였었다.

(내 관할구역엔 《영원한 안전》을 유지하겠다, 《공산주의 붉은 물》은 한방울도 스며들지 못하리라, 이곳에선 《**김일성**장군》이라는 이름을 누구도 듣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곳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본거지인 백두산으로부터 수천리

나 떨어져있으니 거기서 불어오는 《적색바람》이 미칠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놈에게 그런 배심을 키워주었던것이다.

미야모도는 자리에 앉자마자 득의만면해서 《치안유지》의 《전략》을 펴나갔다. 각 주재소들에 민심을 통고하는 체계를 세우고 제놈이 직접 요소요소에 밀정을 박아넣어 백성들의 동향을 살피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는데야 《불온사상》이 어디서 어떻게 움이 트랴.)

미야모도는 자기를 《치안》에 유리한곳으로 보내준 상급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감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안되여 밀정들과 순사들로부터 통보가 련달아 들어왔는데 듣는것마다 가슴을 서늘케 하는 소리였다.

농사군들이 밭에서 씨를 뿌리며 했다는 《독립대장 **김일성**장군님은 걸음을 걸을 때 발고랑 아홉개씩 건는답니다.》라는 보고, 료하강을 건느는 나루배에서 《**김일성**장군님은 배가 없이도 가랑잎을 타고 건느신답니다.》하더라는 보고, 그밖에도 이와 비슷한 통고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미 길림성의 어느 경찰서에서 복무하던 미야모도는 **김일성**장군유격대의 습격을 받아 혼쌀이 난적이 있었다. 그래 그후부터는 꿈결에 《**김일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푸들쩍 놀라 일어나는판인데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이곳에서 또 그 존함을 듣게 되였으니 망연자실하지 않을수 없었다. 놈은 겁에 질린 속에서도 소리쳤다.

《출처를 캐라!》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을 다 조사하라!》

모두 잡아들여 그런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미리 대책

을 세우려는것이였다.

그런데 졸개들은 출처를 캐려면 몇천명을 문초를 해야 하고 들은 사람을 잡으려면 몇만을 헤아릴거라고들 하며 막연해하였다.

경찰서장의 지령은 결국 유야무야되고말았다.

미야모도를 놀래운것은 떠도는 이야기만이 아니였다.

하루는 학교교장이 찾아들어와 책상우에 종이 두장을 내놓았다.

《그게 뭔가?》

미야모도가 눈이 둥그래 물었다.

《학생들이 지은 작문속에 있었습니다.》

교장은 어서 들여다보라는듯 종이에 눈길을 주었다.

미야모도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용수철에서 튀여오르듯 벌떡 일어섰다.

종이 한장엔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글이 씌여있고 다른 한장엔 《백두산장수 우리 나라 찾아준다.》라는 글이 씌여있었던것이다.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는가?》

미야모도는 교장을 잡아먹을듯이 노려보았다.

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이야기했다.

작문은 조선인교원 송선생이 담당했다. 그에게 반일감정이 많았으므로 교장은 늘 그를 주시해왔다. 어느때건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내쫓을판이였다.

그런데 바로 전날 작문시간이였다고 한다. 교장이 문밖에서 송선생의 수업을 훔쳐보았더니 칠판에 《조선》이라는 작문제목이 씌여있지 않는가.

그게 큰 단서로 될수 있다고 생각한 교장은 벌컥 교실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때엔 학생들이 자기가 쓴 작문지를 교탁에 바치고있는중이였다.

《송선생, 수업을 중지하고 나오시오!》

교장의 목소리엔 찬서리가 돋아있었다.

《작문지를 마저 걷고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앞이라 송선생은 침착하게 대답을 했다.

《무슨 잔말이요? 당신은 오늘부터 자격중지요.》

교장은 자격중지라는 말에 특별히 힘을 주어 그루를 박았다.

(그러니 선생님을 내쫓겠다는 뜻이구나.)

학생들이 웅성웅성하였다.

송선생은 군말없이 교장의 뒤를 따랐다. 그러자 교실에서 어느 학생이 밸풀이를 하는지 창문 뒤장을 깨뜨렸다.

《어느 새끼야?》

교장은 유리깨지는 소리에 흠칫 놀라 뒤로 돌아섰다.

그가 깨진 문쪽으로 다가갔을 때였다. 교탁우의 작문종이들이 바람에 날리더니 그중 두장이 깨진 창문으로 날아나왔다.

얼결에 그것을 잡아본 교장은 눈이 뒤집혀졌다. 그는 학생들을 다 교실에 들여앉혀놓고는 종이장을 내보이며 물었다.

《누가 이 글을 썼는가?》

학생들은 자기들도 처음 본다는듯 눈을 껌벅거리며 두장에 씌여있는 글을 한자한자 소리내여 읽어보았다.

《조선독립대장 **김일성**》

《백두산장수 우리 나라 찾아준다.》

성이 꼭두까지 오른 교장의 기분과는 대조되게 아이들은 눈

을 반짝거리며 신기해하였다.

아무리 하나하나 물어보고 따져봐도 썼다는 아이가 없었다.

그래 장본인을 찾지 못한채 경찰서를 찾아왔던것이다. …

《그걸 잡아내지 못하다니…》

미야모도는 교장에게 말했다.

《당장 가서 송가의 책과 아이들의 책을 걷어오라. 필적조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순사 서넛을 보낼테니 지문을 다 찍어보내라. 지문조사를 해야겠다.》

교장은 순사들과 함께 가서 책도 걷어오고 지문도 빠짐없이 찍어왔다.

경찰서에서는 《전문가》들이 앉아 옹근 닷새품을 들여 필적조사도 하고 지문조사도 했다.

그런데 같은 필적은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고 지문도 교장이 쥐였던 지문밖에 나타나는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귀신이라도 와서 써놓고 갔단말인가?)

이 사실은 그후에도 밝혀낼수가 없었다.

(민심은 **김일성**장군한테로 쏠리고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아낼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현민들의 머리에서 지워버릴것인가?)

미야모도는 골머리를 앓았다. 그게 병이 되여 며칠동안 헛소리를 치며 앓기까지 하였다.

그러다 그는 《봉천부대》를 찾아가 군부와 짜고 한가지 연극을 연출해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느날 밤 각 주재소들에서 갑자기 싸이렌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순사들이 마을마다 뛰여다니며 소래기를 쳤다.

《<공산비적>이 습격해온다!》

《**김일성**부대가 습격해온다!》

어둠속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인민들은 밖으로들 달려나가 어리둥절해 서있다가 군데군데 모여앉아 말장단을 펴놓았다.

《**김일성**장군님은 가난한 백성들의 편이라는데 우리야 겁낼게 있소?》

《글쎄말이우다. 어서 빨리 장군님의 부대가 여기까지 와서 왜놈들을 몽땅 없애버렸으면 좋겠수다.》

그러기를 몇시간…

아침에 보니 료하강가운데 있는 섬에 지금껏 안보이던 시커먼 건물이 하나 서있었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집이냐고 물으니 순사들의 대답이 《**김일성**장군유격대가 천막을 치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해뜰무렵이였다. 일본군용기 서너대가 부르릉거리며 하늘로 떠오르더니 그 섬에다 폭격을 들이댔다.

건물은 인차 불에 타버렸다.

그러자 순사들이 마을들에 돌아다니며 《유격대는 다 〈소멸〉되였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놈들이 총알과 폭탄만 허비했을뿐 그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말을 돌리는 사람은 이제부턴 엄단하겠노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으름장을 놓아선지 얼마동안 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뿐이였다.

그런데 하루는 염전마을에 나가있던 순사가 달려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서장님, 소금밭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여기선 딱히 말못하겠습니다. 서장님이 직접 가보십시오.》

미야모도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놈이 그럴가 하는 위구심을 가지고 차에 올라 그리로 갔다.

눈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하얀 소금밭에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있었다.

《무슨 일인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며 미야모도가 물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못들은척 덤덤히 소금밭만 내려다보고있었다.

순사가 바닥에 깔려있는 소금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장님, 이걸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글자가 새겨진것 같지 않습니까?》

미야모도는 안경을 끼고 소금밭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하얀 소금꽃이 류별나게 도드라져올라와 글자를 새긴것을 알아보고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듯 말을 못하고 눈만 데룩거렸다.

거기에는 한문자로 《金日成》이라는 세 글자가 소금꽃으로 새겨있었던것이다.

묘하게도 누가 일부러 새겨놓았다는 흔적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아무리 이름난 쟁인바치들을 데려다놓아도 그리도 무수한 작디작은 꽃들을 다 새겨놓을수는 없을것이다.

백옥으로 피웠다고 할가, 수정으로 피웠다고 할가. 글자를 새기고있는 소금꽃들은 보면볼수록 하나같이 아름다왔다. 그

래 사람들은 더우기 거기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미야모도는 약이 올라 일을 하고있는 한 사람에게서 소금곰배를 빼앗아가지고 와서 그 글자를 벅벅 밀어놓았다.

그런데 잠시후 또다시 소금꽃이 우로 도드라져오르더니 똑같은 글자를 새기는것이였다.

미야모도는 곰배를 들고 그 글자도 밀어놓았다. 그러나 인차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모를 일이다. 아마도 바다신이 이렇게 새겨놓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미야모도는 그 소금밭에 물을 대라는 지령을 주고는 차우에 올랐다.

일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후 며칠이 지나 약초원에 나가있던 순사가 숨이 턱에 닿을 지경으로 달려왔다.

《서장님, 약초원에 나가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여기서는 말 못하겠습니다. 직접 가보십시다.》

서장은 이런 급작보고에 이젠 만성이 되여선지 크게 놀라지도 겁나하지도 않고 반정신이 나간것처럼 벙벙해서 듣다가 《가자!》하고 차우에 올랐다.

약초원엔 아편꽃이 한창 피여있었다. 몇정보나 되는 넓은 밭이 꽃으로 덮이니 그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이루 표현키 어려웠다.

방금까지 속을 바재이며 오던 미야모도도 그 꽃밭을 보는 순간엔 《아, 아편꽃이나 좋구나!》하고 감탄을 하였다.

그러다가 순사가 이끄는대로 둔덕진곳으로 올라서 아편꽃밭

을 둘러보던 미야모도는 갑자기 돌미륵처럼 눈자위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멎은듯하였다.

서장이 말이 없자 순사가 한복판에 있는 꽃밭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걸 보십시오. 하얀 아편꽃밭에 빨간 꽃이 섞여있는것이 무슨 조선글자같지 않습니까? 전 유감이지만 조선글을 못배워놔서…》

(모르긴 왜 몰라. 네 녀석도 입밖에 내기가 두려워서 그러는게지.)

미야모도는 순사를 한번 흘겨보고는 다시 약초원에 눈길을 돌렸다.

한정보가 실히 되게 넓은 아편꽃밭에 흰눈같이 하얀 꽃을 배경으로 하여 한가운데 붉은 장미보다도 더 빨간 꽃들이 글자로 피여있었다.

《독립대장 **김일성**》

미야모도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난 일곱자의 글자를 눈으로, 입속으로, 가슴속으로 읽었다. 그리고는 그 황홀경에 저도모르게 취해있었다.

얼마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는 (아니, 내 가슴에도 붉은 물이 드는게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 눈을 껌벅거리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순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약초원주인을 불러와!》

순사가 달려가 곧 약초원주인을 데려왔다.

수염이 더부룩한 중국사람이였다.

《저 밭에 아편꽃씨를 누가 뿌렸는가?》

미야모도가 그를 건숭 돌아보고 물었다.

《제가 하인들을 데리고 뿌렸는데요.》

《그럼 네놈이 일부러 저런 글자를 새기게 했단말인가?》

《웬걸요. 우린 하얀 꽃이 피는 아편꽃만 뿌렸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렇게 빨간 꽃이 섞여서 피여나지 않았겠나요. 어쨌든 참 곱습니다.》

그의 대답은 어린애같이 천진스러웠다.

《곱긴 뭐가 고와!》

미야모도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하얀 꽃씨에서 빨간 꽃이 피여난단말이냐?》

《글쎄올시다. 그 씨앗은 백두산이 가까운 장백현에서 얻어온것이온데 혹시 그 조상대에 빨간 꽃이 핀적이 있었는지…》

약초원주인은 말끝을 얼버무리였다.

(백두산쪽에서 얻어왔다? 까닭은 거기에 있나부다.)

미야모도는 더 말을 할수가 없었다. 자연의 조화앞에서 자기가 악을 썼대야 무기력하다는걸 깨달았기때문이였다.

(아, 자연도 민심을 쫓아가는구나! 그러니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마음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가 없다!)

이날 미야모도는 실성한것처럼 향방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며칠후 상급에 사직서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 선 꿀

강원도 정선지방에는 예로부터 피나무꿀이 유명했다. 달기가 보통이 아니고 향기가 특이한데다 약효 또한 비길데 없어 정선꿀이라면 지난 시기 궁성의 대감들도 사족을 쓰지 못했다 한다.

그런즉 이곳 농사군들치고 집에 벌통을 놓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떤 집에서는 벌치는 일을 전업으로 삼기도 했다.

그중에는 마음씨 무던한 박기춘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비록 식자는 없어도 양봉기술만은 남보다 못하지 않아 벌통 서른개를 가지고 그리 궁색하지 않게 살아갔다.

그런데 여직껏 괜찮게 되여오던 벌농사가 왜놈들이 들어오자부터 파란곡절을 겪게 되였다.

조선을 강점한놈들은 금은보화와 더불어 정선꿀도 략탈의 대상으로 점지했다. 처음 몇해동안은 야금야금 빼앗아가더니 인차 《공출》이라는 딱지를 붙여 밑바닥까지 긁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어느해 봄엔 전에 없던 기막힌 일이 생겼다.

하루는 울안에서 벌소리가 요란스레 들리길래 박기춘이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벌들이 큰일이나 난것처럼 모두 날아나와 웅웅거리며 하늘에서 빙빙 돌아가는것이였다.

박기춘이 벌통뚜껑에 꿀을 좀 묻혀가지고 얼려보려고 별 수단을 다 해보았건만 한마리의 벌도 날아와붙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날아갈가봐 이쪽저쪽 모래를 뿌려보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하루종일 그러더니 날이 어슬해지자 꿀벌들은 어디론가 날아가버리는것이였다.

박기춘은 그 행처를 알아보려고 하늘을 쳐다보며 허둥지둥 뒤를 따랐다. 하지만 삽시에 땅거미가 지는바람에 그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탄을 했다.

《나라가 망하더니 꿀벌도 제 집을 떠나는구나!》

그러고서도 행여나 해서 며칠간을 기다려봤으나 꿀벌은 한마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정은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다.

약속이나 한듯이 집집마다 벌들이 모두 날아나와 그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것이였다.

나이많은 로인들이 혀를 차며 말했다.

《부정을 탔어. 왜놈들이란 원래가 부정기를 많이 가진놈들이니 그놈들때문에 부정을 탔어. 이젠 꿀벌을 칠 생각일랑 싹 그만두게.》

그런데다가 이해따라 날씨까지 사나왔다. 여름내 해빛 한번 볼새없이 흐려서 비가 오는가 하면 솜옷을 꺼내입을 지경으로 추웠다. 그래 간혹 한두개의 벌통을 부지해나가던 집들의 경우에도 꿀 한숟갈 떠볼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여 이 마을에선 벌농사가 아예 망하고말았다.

군청이며 면에서는 왜 벌을 치지 않는가고 따지고들었다. 왜놈들은 농민들이 꿀을 《공출》로 바치기 싫어서 일부러 그

린다고 트집을 걸어 붙잡아다 주리를 틀고 매질을 했다. 그러다가 놈들도 사연을 알고는 별수가 없는지 점차 포기하고말았다.

벌을 잃어버린지도 여러해가 지난 어느날이였다.

박기춘은 나무를 해오려고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다.

우수경칩엔 개구리입이 떨어진다는데 3월에 접어들었는데도 이해엔 산과 들에 눈이 하얗게 깔려있었다.

그가 산으로 오를 때였다.

갑자기 쏴—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가루가 뽀얗게 날리며 앞을 가리웠다.

(날씨가 조용하길래 떠났는데 웬 바람인가?)

빈 지게를 지고 돌아서기도 딱한 일이여서 그는 잠시 제 자리에 서있었다.

그런데 인차 희귀한 일이 생겼다. 멀리 하늘에서 하얀 서리꽃들이 한데 엉키여 타래를 지으며 이쪽으로 날아오고있었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거리는 그 서리꽃뭉치는 가까운 산중턱에 와서 떨어졌다.

그러자 바람소리는 멎고 날리던 눈가루도 차분히 땅에 내려앉았다. 날씨는 다시 조용해졌다.

(참, 이상한 일이다.)

박기춘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서리꽃이 타래져 떨어진 산중턱으로 올라갔다.

그랬더니 거기엔 신비할 지경으로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나더니 노루 한마리가 무슨 연고가 있는지 머리를 주억거리며 오락가락하는것이다.

박기춘이 그리로 가보았다. 그러다 그는 눈우에 한 사람이 쓰러져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아니?)

박기춘은 놀란 나머지 잠시 굳어졌다가 지게를 벗어던지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겁이 나긴 했으나 그의 나이 예순다섯이라 풍상고초를 겪을대로 겪어봤으므로 그런것엔 개의치 않았다.

《여보시오다! 여보시오다!》

그는 쓰러져있는 사나이를 흔들었다.

사나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얼굴을 보니 이고장 사람 같지 않았다.

(어데서 온 사람일가?)

주위에는 발자국 하나 나있지 않았다. 그러니 혹시 서리꽃에 싸여 떨어진게 아닐가?

《여보, 정신을 차리오다.》

박기춘이 마구 흔들며 그를 아래우로 만져보았다. 손발은 싸늘한데 가슴에서 알릴듯말듯 맥이 뛰고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의논해볼 사람도 함께 거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든간에 살려놓고 봐야겠다.)

사세부득이니 박기춘이 혼자서 그를 둘쳐업고 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곧 동네로인들을 데려왔다.

그에게서 전후사연을 들은 한 로인이 말했다.

《이건 례사로이 대할 일이 아닐세. 저 사람은 비록 옷차림은 류다른데가 없지만 우리와 같은 속세인간이 아닐걸세. 〈신

선〉일수도 있네. 우리 합심을 해서 정성껏 구완을 하자구.》

박기춘과 로인들은 그를 따뜻한 아래목에 눕히고 미음을 쑤어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손발을 주물러주기도 하였다.

《신선》은 얼마후에 정신이 드는지 가늘게 눈을 떴다.

낯선 얼굴들을 본 그는 벌떡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뿐 그에겐 머리조차 쳐들 힘이 없었다.

《가만 계시우.》

로인들이 그를 말렸다.

《신선》은 또다시 눈을 감았다.

《귀인을 기어이 살려내야겠는데 어쩌면 좋수!》

《이런 때 따뜻한 꿀물을 대접해보았으면!》

박기춘이 한숨을 쉬였다.

하지만 꿀이 어디 있으랴. 그자신도 꿀을 먹어본지가 까마득히 오랬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였다.

이때였다.

난데없이 방안에서 웅웅—하고 벌소리가 났다.

박기춘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꿀벌 세마리가 자기네 머리우에서 날고있는것을 보고는 저으기 놀랐다.

《눈이 허연데 웬 꿀벌일가?》

속담에 범이 제 소리 하면 온다더니 꿀이야길 했더니 나타났는가?

그런것 같지도 않았다. 꿀타령을 한결로 보면 한해에도 열두번은 넘는데 아직까진 한번도 벌이 나타나지 않았다.

(저 사람이 정말 신선은 신선인게다.)

모두들 누워있는 사람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꿀벌들은 얼마동안 방안에서 날더니 찢어진 창호지사이로

날아나가는것이였다.

(참 이상도 하다. 이런 날씨에 얼어죽겠는데.)

박기춘이 얼른 일어나 따라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것뿐이 아니였다.

밖에 나가보니 그리도 춥던 날씨가 오뉴월날씨처럼 따뜻해진게 아닌가. 양지쪽엔 어느새 눈이 다 녹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났다.

(별일 다 있다. 날씨가 이리도 급히 변하다니.)

머리우에선 해빛이 재글재글 내리비치고있었다.

꿀벌 세마리는 멀리도 날지 않고 기춘의 앞에서 천천히 날아갔다. 길잡이를 하려는것 같았다.

그는 줄곧 꿀벌을 따라갔다.

아침에 나선것이 점심때가 넘었다. 꿀벌은 깊은 고양산골짜기로 접어들었다. 아마 백리길은 더 걸은것 같았다.

박기춘이 원래 젊어서부터 하두 기골이 장대하고 혈기가 왕성했기망정이지 웬간해서는 그 먼길을 따를념도 못할것이였다.

꿀벌들은 그를 이끌고 고양산막바지에 이르더니 구새먹은 떡갈나무속으로 날아들어가는것이였다.

(옳지, 이 안에 벌둥지가 있으렸다.)

대뜸 이런 짐작이 가서 박기춘이 구새통안에 깊숙이 손을 넣어보았다.

껍진껍진한게 닿길래 꺼내보니 손에 꿀이 묻어나왔다. 산꿀이였다. 얼마나 오래된것인지 엿덩이처럼 굳었다.

(벌들아, 고맙다.)

박기춘은 산꿀덩이를 큼직하게 떼여가지고 쉴겨를없이 이내 집으로 돌아섰다.

밤중에 집에 이르니 로인들이 떠나지 않고 《신선》의 머리말에 지켜앉아있었다.

그들은 산꿀을 보더니 못내 기뻐하였다.

박기춘은 따끈한 물에 꿀을 타서 조금씩조금씩 《신선》의 입에 넣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산꿀이 그리도 약효가 있었던지 《신선》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는 머리를 깊숙이 숙여 로인들에게 절을 하였다.

《살려주어서 고맙소이다. 이 은혜 언제 다 갚겠습니까.》

그러자 로인들은 합장을 하고 그의 앞에 꿇어앉아 머리를 숙였다.

《그대는 신선이신지 천사이신지 우리 속세인간들이 모르는 바가 많고 성의가 부족했사오니 거슬리는 일이라도 있었다면 널리 용서해주옵소서.》

《신선》은 마다하고 그들을 일으켜앉혔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저는 신선도 아니요, 천사도 아니올시다. 조선독립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입니다.》

그 말에 로인들은 몹시 놀라와했다.

《그대가 정말 독립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란말이웨까?》

《그렇소이다. 저를 살려주신 로인들앞에서 제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의 말은 부드럽고 진실이 느껴졌다.

《얼씨구, 이런 경사가 어데 또 있을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대는 신선중의 신선이요, 천사중의 천사웨다.》

로인들은 그의 손을 잡고 기뻐서 어찌할줄 몰라했다.

장군님의 부하는 로인들에게 지금까지 있은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고 멀리 남해가에까지 나갔던 그는 일을 마치고 귀로에 올랐었다고 한다.

해방의 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있는 인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안고 그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런데 경상도를 지나 북으로 올라오다가 뜻밖에도 어느 산기슭에서 경찰놈들과 맞다들렸다.

한두놈이면 얼려넘기거나 해제끼고 갈수 있겠는데 사방에서 새까맣게 포위를 하고 접어드니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되였다.

사실 그는 장군님한테서 아주 급한 고비때 쓰는 몇가지 술법을 배워둔것이 있었다. 구름을 잡아타고 빠져나갈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하늘엔 구름 한점 떠있지 않았다. 가랑잎을 타고갈수도 있었다. 그러나 땅에 눈이 두텁게 깔려 한개의 가랑잎도 볼수가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하다가 서리꽃이 하얗게 피여있는 옆에 서있는 나무를 흔들었다.

그러자 안개처럼 서리꽃이 뽀얗게 날아떨어지며 그를 가리웠다.

장군님의 부하는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그 서리꽃속에 싸인채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런데 몇끼째 끼니를 걷는데다 차디찬 서리꽃속에 묻혀 날아가다보니 몸이 꽝꽝 얼어들었다. 그래 도중에서 의식을 잃고 산속에 떨어졌던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로인들은 그의 뛰여난 술법에 못내 탄복을 했다.

《과시 **김일성**장군님의 부하가 다르긴 다르웨다. 왜놈들이 닭쫓던 개 울타리 쳐다보는격이 되였겠소다. 부하의 술법이 그러니 장군님의 술법이야 이루 상상키 어렵겠구만.》

로인들은 숭엄한 마음으로 광복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그려보았다.

《그렇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위대한 장군님의 술법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따르지 못합니다. 과연 그이의 술법에 어떤것들이 있는가를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적〉을 뽐내던 왜놈들이 **김일성**장군님의 명함만 들어도 벌벌 떠는게 아닙니까?》

장군님의 부하는 로인들에게 그이께서 뛰여난 술법으로 왜놈들을 몰살시키던 몇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해주었다.

로인들은 그토록 출중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독립의 령수로 모신 자부심으로 하여 저으기 흥분되여있었다. 그러면서 그분을 직접 모시고 싸우는 부하장수를 부러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윽고 박기춘이 입을 열었다.

《아, 사라졌던 꿀벌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가를 이젠 알겠수다. 말못하는 꿀벌들도 장군님의 부하를 귀히 여기여 어서 의식을 회복하라고 불사약을 드리러 왔댔수다.》

모두들 그렇다는듯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들의 지성으로 장군님의 부하는 하루이틀사이에 몸을 말끔히 추세우고 원기를 되찾았다.

그는 로인들이 만류했으나 갈 길이 바쁘다며 인차 박기춘의 집을 떠났다.

그로부터 며칠후 유난히도 따뜻한 날이였다.

밖에서 웅웅—소리가 나길래 박기춘이 나가보니 언제 날아왔는지 앞뒤뜰의 나무가지마다에 벌들이 새까맣게 매달려있었다.

그는 급히 꿀벌통을 울안에 주런이 내놓았다.

벌들은 주인이 손쓸사이없이 제스스로 벌통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였다. 그러더니 분주히 꽃들을 찾아다니며 꿀을 물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이웃집들에도 꿀벌이 찾아들었다. 그래 모두 헤여졌던 친척이나 만난듯 기뻐들 했다.

어느덧 산에는 피나무꽃이 피여났다. 그러자 하루가 다르게 꿀통이 쑥쑥 차올랐다.

박기춘이 동네사람들에게 말했다.

《어찌된 일일가요? 올해엔 마을이 생겨 처음 보는 꿀풍년이 들겠나보웨다. 옛날부터 풍년이 들면 나라가 홍할 징조라고 했는데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되려는게 아닐가요?》

《옳거니, 옛날 어른들의 말이 집을 나갔던 즘생이나 물건이 다시 찾아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들 하던데 꿀벌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나라에 큰 행운이 트일 조짐일세!》

나이많은 백발로인이 긴 수염을 내리쓸며 하는 대답이였다.

그들의 예감은 맞았다. 바로 이해 8월 15일에 나라가 해방되였다.

이 마을사람들은 기쁨을 금치 못해하면서 《피나무꿀이 특별히 잘되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독립령수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주시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알섬이야기

강원도 통천앞바다에 알섬이라는 그리 크지 않은 섬이 있다. 이름그대로 갈매기알이나 호군이알과 같은 바다새들의 알을 많이 볼수 있는곳이다. 거리로 보면 통천읍에서 30리가량 떨어져있는 섬이다.

여름철이면 이 알섬이 신기루현상으로 이따금 여러가지 모양을 지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방전부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이 전해내려오고있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가 있은지 한두달후였다.

멀리 혜산쪽에서 국경경비를 서고있던 구마모도라는 왜놈이 이곳 주재소순사로 새로 부임되여왔다.

당시 일제는 국경경비를 서고있던놈들이 보천보전투때 되게 혼쌀이 난 후로는 모두 제정신이 아니였으므로 일부 바꾸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래 이곳 주재소에서도 순사 한놈이 그리로 가고 대신 구마모도가 왔던것이다.

구마모도는 후유증으로 이곳에 와서도 며칠동안은 저녁마다 헛소리를 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바다기슭의 황홀한 경치에 마음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동해의 맑은 물과 아름다운 총석정, 나란히 보이는 삼형제

섬을 비롯한 크고작은 섬들… 환경이 바뀌니 마치 꿈세계에 온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픈 머리를 안정시킬겸 하루에 한두번씩 바다기슭을 걷는것을 일과로 정하고 꼭꼭 그대로 해나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무리 상급에서 령장을 떨구어도 다시는 항일유격대가 종횡무진하며 백만관동군에게 된타격을 안기는 만주땅 가까이에는 가지 않으리라 마음다졌다.

(이렇게 경치좋고 안전한곳을 두고 어디로 가랴.)

그야말로 이번에 배치되여온곳이 지금껏 다녀보던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구마모도는 바다기슭을 걸으며 수평선쪽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였다. 바다 한가운데 난데없이 하얀 탑이 우뚝 솟아있었던것이다.

(아니, 여직 없던 탑이 언제 솟았을가?)

전날만해도 그런 탑을 본 일이 없었다.

재간있는 석수쟁이가 깎아세운 돌탑같기도 하고 배길을 밝혀주는 등대같기도 했다. 그러나 등대는 다른 장소에 이미 세워져있었다.

하다면 밤사이에 어떻게 솟아난 탑이란말인가.

그는 한참이나 그것을 바라보다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자리를 떴다.

다음날이였다.

구마모도는 이날도 그 시간에 바다기슭을 걸으며 수평선쪽을 내다보았다.

어제 있던 탑이 그대로 있나 해서였다.

그런데 탑은 보이지 않고 그자리엔 난데없이 큰 려객선 한

척이 떠있는것이였다.

(아니, 어찌된 일이야?)

구마모도는 제 눈이 잘못되였나 해서 비벼대고 다시 바라보았다.

틀림없는 려객선이였다. 그가 타본 판부련락선따위는 대비도 안될 큰 배였다.

대서양을 떠다닌다는 영국배나 프랑스배보다도 더 호화롭고 훌륭해보였다.

구마모도는 그 배가 이리로 들어올것인가 아니면 지나가는것인가 해서 오래동안 거기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봐도 려객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박해있는 모양이군. 하다면 무엇때문에 거기에 서있는가?)

그는 이날도 의문을 품은채 자리를 떴다.

그 다음날에 있은 일이다.

정해놓은 일과대로 또 그 시간에 바다기슭을 걷던 구마모도는 전날 려객선이 있던곳을 바라보다가 눈이 휘둥그래졌다.

려객선은 밤사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그자리엔 합각지붕을 한 훌륭한 기와집이 한채 솟아있었다.

(아니, 바다우에 기와집이 솟아나다니?)

구마모도는 꿈이 아닌가 해서 자기 한쪽 볼따귀를 꼬집어보았다. 아픈걸 보니 꿈은 아니였다.

옛말이야기에 나오는 거인같은것이 밤사이 어데서 궁전을 옮겨다놓았을가? 아니면 바다속의 룡궁이 물우에 솟아올랐을가?

아름다운 그 기와집엔 칠색무지개까지 비껴 볼수록 황홀하였다.

이때 바다가에서 미역을 감던 벌거숭이아이들도 그것을 바라보며 《기와집이다!》, 《궁전이다!》하고 소리치는것이였다.

구마모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 본게 아니라는걸 다시금 확인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된 일일가? 바다우에 기와집이 솟아오른다는건 아이들의 동화책에서나 볼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는 이윽토록 눈을 껌벅거리며 서있다가 늦게야 자리를 떴다.

그런데 이날저녁이였다. 마을엔 새로운 소문이 떠돌았다.

보천보에서 왜놈들을 족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여기 통천앞바다에 오셨다는것이였다. 낮에 보이던 바다우에 솟아난 기와집이 바로 장군님께서 드실 집이였다고 했다. 그리고 전날에 솟아올랐던 탑은 장군님을 맞이하는 등대였고 그다음에 나타났던 큰 려객선은 그이께서 타고오신 배였다고 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천상천하가 다 우러러받드는 창생이래 처음으로 맞이한 가장 걸출한분이여서 그분께서 어데로 가실 의향만 가지시면 천지야해가 곧 알아차리고 허공중에 다리를 놓아드리기도 하고 바다에 배를 띄워드리기도 하며 훌륭한 기와집을 마련해드리기도 한다는것이였다.

구마모도는 소식을 듣자 그만 놀라서 기절을 했다.

(그런줄도 모르고 버젓이 순사복차림으로 바다가를 걸어다녔으니 이 목숨이 붙어있는것도 얼마나 다행인가. 아, 여기

조선땅에선 그 어디서도 마음놓을수가 없구나!)

구마모도는 방안에 들어박혀 풍을 만난것처럼 사지를 부들부들 떨었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늦도록 구마모도가 나타나지 않자 주재소소장놈이 그의 방으로 가보았다.

방에는 구마모도도 그의 짐짝도 없었다.

《칙쇼! 도망이나 갔구나!》

소장놈이 즉시 그를 찾으라고 순사들을 사방에 파했으나 어디서도 찾지 못했다. 아마도 행색을 바꾸고 본국으로 도망을 친 모양이였다.

소장놈은 약이 올라 펄펄 뛰였다. 그놈의 꼴을 지켜보던 한 순사놈이 중얼거렸다.

《하긴 죽을놈들이나 여기 남아있지.》

천출위인이신 **김일성**장군님과 맞서보겠다는것이 어리석다는것을 그놈도 깨달았던것이였다.

남대문려관에서 있은 일

함경남도 북청태생인 박윤택이라는 사람이 해방전에 서울에 가서 신문배달을 한적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전에없이 사기가 나서 신문을 팔았다.

《신문 사시오! 신문 사시오! 흥미있는 백두산소식이 났소!》

행인들은 백두산소식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틔여 저마다 손을 내밀었다. 글자나 뜯어볼줄 아는 사람이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너도나도 한장씩 사들었다. 그리고는 선자리에서 쭉 내리읽었다.

《신출귀몰하는 **김일성**!》

《어제는 연길, 오늘은 림강!》

신문에 이런 큼직한 제목으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만주광야를 주름잡으시며 일제를 곤경에 몰아넣은 이야기가 목격자인 한 관동군장교와 어느 경찰서장의 말을 인용하여 실려있었다.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통쾌해했다. 그러면서 그 신문을 팔아준 윤택이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윤택이도 즐거웠다.

그런데 갑자기 우악스러운 손이 그의 목덜미를 그러잡더니 철썩 하고 뺨을 쳤다. 경찰 요시다였다.

《이놈아! 누가 이런 신문을 팔라고 했는가?》

요시다는 윤택에게서 남은 몇장의 신문을 나꿔채더니 북북 찢어버렸다. 그리고서는 신문을 읽고있던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이건 모두 꾸며낸 이야기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이걸 믿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분격했다.

《뭐라구? 저놈이 우릴 모욕하는군.》

그들중에는 재산가들도 있고 식자깨나 배운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경찰에게 침을 뱉고 돌아섰다.

윤택은 분했다. 생각같아선 그놈의 상통을 맞받아 후려치고 싶었다.

그 분통이 채 사그러지지 않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어찌된 일인지 이날은 또다시 이른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빨리 거리를 돌고오라는 주인의 독촉도 싫지 않았다.

윤택은 자전거에 신문을 가득 싣고 대문밖을 나섰다.

청소부들의 비자루끝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거리를 뽀얗게 만들었다. 집모퉁이에서 밤을 새운 거지들이 눈을 비비며 새털같이 너불거리는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났다. 거리는 어제아침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내 기분이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둥실둥실 뜨는것일가?)

어느덧 불덩이같은 아침해가 솟아올랐다.

까닭모를 상쾌한 기분에 사로잡힌 윤택은 자전거를 굴리며 장충단공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귀청을 째는 호각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앞에 일본경찰놈들이 줄을 지어 길을 막아서고있었다.

《서라!》

《왜 서라는거요? 난 해 퍼지기전에 신문을 다 돌려주고 와야 하오.》

윤택은 앞의 놈을 마주보았다.

《엉?》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다 주춤거렸다.

먼저번에 만났던 요시다가 이날 또 그의 앞을 막아섰던것이다.

장충단공원을 지나가려던 사람들이 다 멋어섰다. 원래 행인이 번잡한 길목이여서 삽시에 군중대회장처럼 사람들이 몰켜섰다.

《왜 길을 막는거요? 우린 급하오.》

경찰들은 대답이 없었다.

《왜 말을 못하오? 벙어리가 됐소?》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사이를 비집고 나가려고 했다.

《무슨 일인지 보기라도 합시다.》

그러자 요시다가 꽥 소리를 질렀다.

《보아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럼 무슨 일인지 듣기라도 합시다.》

《들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보지도 못한대, 듣지도 못한대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서있으라우?》

《묻지도 말라! 이건 극비에 속하는 일이다.》

놈은 역증을 냈다.

그러나 비밀이란 좀처럼 감추어두기 어려운 법이다. 어느름

에 그것이 새여나와 사람들의 입으로 옮겨졌다.

윤택의 옆에 서있던 중년늙은이가 낮은 소리로 옆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남대문려관에 **김일성**장군님이 드셨다오.》

《예? 신출귀몰하신다는 그 **김일성**장군님이 왜놈들이 씨글거리는 여기 서울에까지 오셨단말이예요?》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돌아가는 소문이 그렇습디다. 그래 왜놈들이 그이를 붙잡겠다고 저런다우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했다. 둘씩 셋씩 이마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방금전까지 갈 길이 급하다고 안달아하던 사람들답지 않게 이야기판을 펼쳐놓았다. 신문을 본 이야기, 남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 그 출처는 어떻든간에 모두 백두산에서 축지법을 쓰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른 때같으면 귀속말로 주고받던 이야기가 여기선 소리를 내여 공개적으로 오고갔다.

경찰놈들은 그 말소리를 막아볼 생각을 못했다. 놈들은 서리맞은 풀잎처럼 초절임이 되여있었다.

행인들은 더 승기를 돋구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제밤 꿈에 온 서울바닥이 꽃으로 덮여있더니만 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였구려.》

지팡이를 짚고선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난 아침에 깨고보니 다친 허리가 말끔히 나아 웬일인가 했더니 그것도 장군님께서 오시여 나은가보웨다.》

중년의 지게군이 허리를 움직여보이며 말했다.

그들의 말을 듣고보니 윤택은 아침에 자기도 왜 기분이 좋았댔는지 짐작이 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 남대문려관에서 류숙하시여 내 마음도 즐거웠던 모양이구나.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사이엔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져있다더니 장군님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였구나!)

모여선 다른 사람들도 이날아침 한가지씩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였다. 어떤 집에선 돈벌이 갔다가 죽었다던 아들한테서 소식이 왔다고 했고 어떤 집에선 아침끼니감이 없어서 걱정이였는데 쌀독에 하얀 쌀이 한독 챙겨있더라고 했고 또 어떤 집에선 딸만 주련이 여섯을 낳았는데 오늘아침엔 일곱번째만에 떡돌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 좋은 일들이 장군님께서 오시여 생긴것일게라고 말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시는 귀인중의 귀인이시오.》

행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발뒤축을 쳐들고 남대문려관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어느새 해가 하늘복판으로 자리를 옮기고있었다. 드디여 차단되였던 길이 열렸다.

사람들은 우르르 남대문려관쪽으로 달려갔다.

길목을 막아서있던 경찰들도 궁금한지 그리로 뛰였다.

윤택은 자전거를 끌고 뭇사람들의 틈에 끼워 남대문려관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모여왔는지 마당에조차 립추의 여지가 없었다.

윤택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서 경비원로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난 볼수가 없었지만 백두산의 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려관에 드셨댔다우. 3층 5호실이라구 합디다.

왜놈들이 기미를 알고 총을 들고 쓸어왔어요.

그 수가 아마 천을 넘을것 같습디다. 놈들은 겁에 질려 허리를 잔뜩 구부린채 고양이걸음을 합디다.

놈들은 우리 려관을 열겹으로 둘러싸고 수색을 시작했수다. 아래서 올리훑고 우에서 내리훑으며 그이께서 계시는 방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놈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쪽손으로 감싸쥐고 큰숨을 들이쉰 다음 잘난 천황을 위해 죽기를 맹세하고 문을 벌컥 열었다우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겠수? 방은 텅 비여있었다질 않수.

어디로 사라졌나? **김일성**장군님은 별의별 술법을 다 폐신분이여서 옆에 서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더니 혹시 자기 옆에 서계시다가 〈이놈!〉 하고 목을 뎅강 쳐갈기시지나 않을가?

놈들은 모두 풍을 만난것처럼 부들부들 떨드랍니다.

그놈들이 우리 려관을 발칵 뒤지기 시작해서 30분이 지나서 〈찌르릉〉 하고 전화가 왔다우다.

왜놈대장이 수화기를 드니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이런 말이 들렸다질 않겠소.

〈나 **김일성**이요. 여기 함흥에서 전화를 거오.

당신들이 나를 찾느라고 공연히 수고할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요.〉

놈들은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오. 모두 넋을 잃고 려관계단

이며 마당이며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아 일어날념을 못합디다.

그런데 잠시후에 함경남도경찰국에서 소식이 오길 거기서도 경찰들이 그이를 붙잡으려고 려관을 수색했다우다. 그러나 30분만에 〈찌르릉—〉 하고 또 장군님께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번엔 〈나 여기 신의주에 와있소〉 하시더랍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와—》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랐다.

이때 려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관들도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정말 신출귀몰이로구만!》

요시다가 옆의 놈에게 하는 말이였다.

뒤에서 그의 말을 엿들은 윤택이 한마디 했다.

《나으리, 언제는 신문에 난 그런 소식을 다 꾸며낸 이야기이고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수?》

그러자 요시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낯빛이 벌개서 황황히 꼬리를 사렸다.

특수부대에 나타난 《검열관》

어느날 유격대《토벌》에 동원될 준비를 갖추고 대기중에 있는 명월구의 특수부대에 전화가 걸려왔다.

《대장 있는가?》

《예예, 제가 대장 리도치입니다.》

《오늘 그리로 검열관님이 출두하신다. 알았는가?》

《옛,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리도치는 급해났다.

(아니, 우리 특수부대를 검열하다니? 도대체 무얼 검열한단말인가? 우리한테 무슨 결점이라도 있단말인가? 어쨌든 검열관이 온다니 좋은 징조가 못된다.)

리도치는 다른 부대들에 비해서 자기네 특수부대가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하다고 자부하고있었다. 그럴만도 한것은 원래 특수부대는 1930년대초부터 혁명군 《토벌》과 혁명가들을 학살하는데 이골이 난 관동군의 《토벌》전문장교들을 골간으로 하고 혁명의 변절자들, 지주, 자본가놈들의 자식들 그리고 일제에게 붙어먹는 건달뱅이, 부랑자들로 꾸려져있었다.

이놈들은 훈련도 혁명군의 유격전법대로 하고 부대의 일체 활동도 혁명군부대와 비슷하게 했다.

이놈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박히고 《토벌》경험도 있었으며 어느 일본군《토벌》대나 위만군보다도 훨씬 악독하였다.

그런것만큼 지금껏 이 특수부대엔 그 누구도 범접을 하지 않았으며 검열이란것도 몰랐다.

하지만 막상 검열관이 온다니 마음이 꺼려졌다. 리도치는 병실안팎을 들락날락하며 복닥소동을 일으켰다.

《무기청소를 잘해놓으라!》

《병실을 잘 거두라!》

《복장을 잘 갖추라!》

《길바닥을 깨끗이 쓸어놓으라!》

《특수부대의 위신을 떨구지 말라.》

검열관이 오면 행동을 절도있게 하라, 묻는 말에 대답은 어떻게 하며 표정이나 행동에서 기분거슬리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등 시시콜콜이 잔소리를 했다.

《주의! 주의! 주의!》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보는놈마다 주의를 주었다.

《언제 온다는거야?》

《저녁때쯤 오겠지.》

졸병놈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길바닥을 쓸기 시작하는데 일본제군용자동차 한대가 특수부대 정문으로 들어섰다.

운전칸에서 내보이는 장교의 증명서를 보던 보초놈의 눈이 희뜩 뒤집혔다. 벌써 검열관이 도착했던것이다.

보초놈은 대장에게 검열관이 왔다는것을 전화로 알리고 자동차를 통과시켰다.

(이렇게도 급작스레 도착하다니.)

리도치가 당황해하며 제 방에서 달려나가는데 어느새 자동차는 병실앞에 멎어서고 일본군 장교복차림의 《검열관》이 운전사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네가 대장 리도치인가?》

《핫!》

리도치는 《검열관》을 마주하는 순간 막대기처럼 꼿꼿해졌다.

《검열관》은 키가 구척인데다 매우 젊고 날파람있어 보였다. 영채가 도는 두눈은 상대방의 속까지 꿰뚫어보는듯하였다. 조금만 기분을 거슬리면 그 눈길에서 번개가 일것 같았다.

(범상치 않은걸.)

리도치는 원래 코대가 높은놈이여서 검열관이 오면 좀 저울질을 해보려는 심산이였다.

그런데 웬걸 첫 대면에 주눅이 들었다.

리도치가 자라목을 해가지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검열관》이 이르기를 《부대를 비상소집시키라! 하나도 빠짐없이 무기를 가지고 1분내에 이앞에 정렬시키라!》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러자 병실안팎에서 비상소집구령이 내렸다.

《비상소집!》

《비상소집이다!》

《1분내에 무기를 가지고 마당에 모이란다.》

이곳저곳에 널려 검열관을 맞을 준비를 하고있던차라 졸병놈들은 바빠맞았다. 그래 모자를 비뚜로 쓴놈,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놈, 신발끈을 매지 못한놈, 그꼴들이 가관이였다.

게다가 마지막놈까지 모였을 때는 1분이 아니라 5분도 넘

었다.

그들을 둘러보는 《검열관》의 표정은 엄엄하였다.

《특수부대란게 이 꼴이야? 그렇게 꾸물거려서야 어떻게 **김일성** 〈공산군〉을 〈토벌〉하겠는가?》

그 목소리 또한 추상같아 모두가 꿋꿋이 얼어버렸다. 눈섭 하나 움직이는놈이 없었다.

《먼저 무기검열을 하겠다.》

《검열관》은 대렬 맨 앞줄에서부터 무기검열을 시작하였다.

특수부대놈들이 가지고있는 총들은 받은지 한달도 못되는 새것들이였다. 아직 한번도 써본 일이 없는데다 방금 말끔히 닦아놓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첫번째놈에게서 총을 받아들고 격발기안을 들여다보던 《검열관》은 《무기를 잘 닦지 않았다. 불합격!》하더니 함께 온 운전사에게 주었다.

《이 총은 회수다. 자동차에 실어라!》

운전사가 그것을 받아 자동차적재함에 올려놓았다.

다음 둘째놈의 총을 받아들고 총구안을 들여다보던 《검열관》은 《이 총은 기름을 너무 적게 발랐다. 불합격!》하더니 운전사에게 주었다.

운전사는 그 총도 적재함에 실었다.

다음 세번째놈의 총을 받아든 《검열관》은 《이 총은 기름을 너무 많이 발랐다. 불합격!》하더니 또 운전사에게 넘겼다.

그 총도 회수되여 적재함에 올랐다.

바빠맞은 리도치가 안깐힘을 쓰며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입을 실룩거렸다.

그 눈치를 알고 《검열관》이 놈에게 시선을 주자 리도치는

또다시 꿋꿋해지면서 혀까지 굳어지는바람에 말을 못했다.

《검열관》은 다른놈들에게서도 련이어 총을 받아보고는 《이것도 불합격!》, 《이것도 불합격!》하며 모두 적재함에 싣게 하였다.

그러다보니 무기가 자동차적재함에 하나 가득 찼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아무리 잘 닦아도 흠집을 잡는데 걸리지 않을수가 없다. 그런데다 《검열관》의 일거일동이 다 위압을 주는것이여서 특수부대놈들은 찍짹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다.

《검열관》은 마지막으로 리도치의 권총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격발기를 당겨보더니 《대장이란게 무기를 이렇게 다루니까 부하들도 다 그 꼴이지. 이것도 회수다!》하며 허리춤에 찔러넣고는 자동차운전칸에 올랐다.

《가자!》

운전사가 재빨리 발동을 걸고 차를 몰았다.

넋을 잃고 서있던 리도치가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다.

《그 무기를 어디로 싣고가십니까?》

《내가 가지고가서 때 쓸수 있나 보려구 그런다.》

《검열관님, 성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리도치가 정문밖에까지 달려나오며 다시 물었다.

《아무때건 오너라. 난 **김일성**이다!》

운전칸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일성**? 그럼 검열관은 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이란말인가?》

리도치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졸지에 기절을 하고말았다.

《무적황군》을 벌벌 떨게 만드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독으로 제놈들의 소굴에까지 나타나실줄은 상상도 못했던것이다.

얼마동안 넋을 잃고있던 졸병놈들은 간신히 정신이 들자 찰싹찰싹 제 얼굴들을 때려보았다.

자기가 꿈을 꾸지 않나 해서였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또한 기절초풍할것들이였다.

《어이 살았군, 목숨이 붙어있는게 다행일세.

듣자니 **김일성**장군은 관동군사령부의 비밀작전회의장소에도 척 나타나 지시봉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이리이리하라 하며 초학동이 배워주듯하고 사라졌다더니 그게 사실같구만!》

《**김일성**장군은 일본천황의 방에도 나타나 호령을 하고 사라졌대.

그러니 우리가 이런 봉변을 당한것쯤은 약과에 약괄세.》

이날저녁이였다.

명월구 특수부대에 《지구토벌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부대를 출동시키라. 유격대 〈토벌〉을 가야겠다.》

리도치는 떠듬거리며 대답했다.

《말 마시오. 우린 이미 〈토벌〉을 당했습니다.》

두그루의 소나무

예로부터 위인의 출현은 하늘이 먼저 알고 땅이 먼저 안다더니 그게 사실인가부다.

1920년대말 평안도의 어느 한 야학방에서 난데없이 칠판에 두그루의 소나무가 저절로 새겨졌댔다는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그렇다.

당시 사람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신비스럽게만 생각하고있다가 후에야 그 뜻을 알게 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지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어느날 저녁, 꺼불거리는 등잔불밑에서 야학생들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슬프도다 조선민족아
4천여년 력사국으로
자자손손 복락하더니
오늘의 이 지경 웬말이냐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즐겨부르시던 《정신가》였다.

이곳은 몇해전까지만하여도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조직이 활동하던 지역이였다. 그러던것이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조직은 파괴되고 독립운동자들은 잡혀가거나 자취를 감추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생존해계실 땐 밝아올 려명을 내다보며 힘을 얻던 사람들이 이젠 모두 절망에 빠졌다. 그래서인지 이날 야학생들의 노래소리도 처량하게 울렸다.

이윽고 야학선생 김훈이 들어왔다. 그는 김형직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계몽운동에 나선 사람이였다.

노래소리가 멎었다.

김훈은 야학생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더니 새삼스레 칠판에다 소나무 한그루를 그려놓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야학생들을 둘러보았다.

방안에 침묵이 흘렀다.

야학생들은 칠판에 그려진 소나무와 선생의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말없는 속에 수많은 말이 오갔다.

소나무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좋아하신 나무로서 그분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사철푸른 그 기상은 기어이 독립을 이룩하고야말 우리 민족의 의지이기도 하다.

락심하지 말라. 절망에 빠지지 말라. 김형직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지원》의 뜻을 그대들은 잊었는가? 야학선생은 지금 자기들의 기분상태를 짐작하고 질책을 하는것이였다.

야학생들의 얼굴에 죄스러워하는 빛이 떠돌았다. 김훈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나는 여러분이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을 새기고 양춘을 맞이하려 꿋꿋이 걸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덤덤히 듣고있더니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선생님, 다 망한판에 어떻게 양춘을 바란단말입니까?》

그리고는 무엇인가 더 물어볼가말가 하다가 그냥 앉아버렸다.

김훈은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틀림없이 그 젊은이는 《무슨 힘으로!》, 《누가?》 하고 더 들이대고싶었을것이다. 그러나 야학선생의 표정을 보고 그를 더 난처하게 만들고싶지 않았을것이다.

김훈은 자기도 양춘을 마중하러 가고싶었다.

그러나 어느 길로 가야 하며 그 길잡이를 누가 해준단말인가? 그는 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이때 밖에서 구두발소리가 났다.

(순사가 오누나.)

야학생들도 김훈도 대뜸 눈치를 챘다.

이마적에 와서 놈들은 눈에 쌍심지를 달고 야학에 대한 감시를 했다. 트집을 잡아 해산시킬판이였다. 게다가 야학선생 김훈은 놈들의 요시찰대상의 한 사람이였다.

김훈은 재빨리 소나무밑에 일본말로 《마쯔(소나무)》라고 써놓았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왜놈순사가 들어왔다.

《뭣들이나 배우는가?》

놈의 시선이 먼저 칠판에 쏠렸다.

《보다십이 일본말을 배우오.》

김훈이 대답했다.

놈은 한참이나 칠판의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했다.

《일본말을 배우는건 좋다. 그러나 저런 소나무는 왜 그려놓는가?》

김훈도 야학생들도 어이가 없어 소리내여 웃었다.

《아니, 나무에까지 불온사상이 붙어있나요?》

김훈이 이렇게 묻자 왜놈순사는 꽥 소래기를 쳤다.

《어쨌든 소나무만은 그리지도 말고 배워주지도 말라.》

그러더니 칠판의 그림을 지우개로 벅벅 지워버렸다.

《이런것이나 배워주면 야학을 페기시켜버리겠다.》

모두들 입이 쓰거워 더 대꾸를 안했다.

왜놈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퍼진 후로는 소나무라는 말만 들어도 신경을 돋구었던것이다.

김훈이 야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은 그만 배우겠소. 돌아들 가십시오.》

야학생들이 방바닥에서 무겁게 엉치를 떼며 일어서더니 왜놈순사를 흘겨보며 하나둘 흩어져갔다.

왜놈순사는 독기서린 눈으로 흘끔 김훈을 돌아보고는 방에서 나갔다.

김훈은 텅 빈 방에 잠시 홀로 서있다가 한숨을 길게 쉬고는 밖에 나가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갔다.

다음날 저녁이였다.

그날도 야학생들은 제 시간에 야학방으로 모여들었다.

문이 걸려있어 밖에들 서있는데 인차 김훈이 왔다.

《늦어서 미안하오.》

그는 문을 열었다.

야학생들도 선생도 함께 야학방으로 들어갔다.

한 야학생이 얼른 등잔불을 켰다.

방안이 환해지자 모두들 칠판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칠판엔 난데없이 소나무 두그루가 그려져있었던것이다.

야학생들은 김훈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선생도 역시 놀란 표정이였다. 오히려 그가 물었다.

《누가 이 소나무를 그렸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하긴 쇠를 잠갔는데 누구도 들어올수가 없었을것이다. 야학생들은 자기들도 처음 본다고 했다.

《그럼 선생님이 그리시지 않았습니까? 두그루의 소나무중 이쪽의것은 어제 선생님이 그리셨던것과 똑같은데요.》

그러고보니 그 소나무는 어제 그렸던것과 신통히도 같았다. 그러나 김훈은 그사이 야학방에 들어온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참 이상한데요?》

야학생들도 김훈도 눈이 휘둥그래 칠판에 그려진 두그루의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한쪽의 나무는 큰 로송이라면 다른 한 나무는 한창 푸르싱싱 자라는 청송이였다.

까만 칠판에 하얀 백묵으로 그려진 두그루의 소나무는 희미한 불빛에서도 보면볼수록 점점 더 또렷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 저 두그루의 소나무는 저절로 칠판에 새겨졌단말

인가.)

모두들 의아해하는 눈으로 칠판과 선생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이때였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도적고양이처럼 몰래 문밖에 와서 무슨 글을 배우나 엿듣고있던 왜놈 순사가 들어섰다.

손쓸사이없이 벌어진 일이여서 야학생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다. 왜놈의 검은 손이 칠판의 소나무에 미칠것이 두려웠다.

그런데 서슬이 퍼래서 들어선 순사놈은 웬일인지 문턱에 서서 눈만 껌벅거리였다.

그놈도 소나무그림이 신기해서 그럴가? 아니였다. 그놈의 눈엔 칠판에 그려진 소나무가 아예 보이질 않았던것이다. 그저 흑판 그대로일뿐이였다.

(아무리 번개손이라 하더라도 지울사이가 없겠는데 이상하다.)

그놈은 전날저녁과 같이 소나무가 그려져있거나 글자라도 씌여있으면 단서를 잡으려고 했는데 일이 참 싱겁게 되였다고 생각했다.

그냥 돌아가긴 멋적었던지 한마디 던졌다.

《뭣들이나 배우는가?》

김훈이 태연스레 대답했다.

《아직 모여앉아 한담을 하고있던참이요.》

놈은 그 말이 믿어졌던지 《나쁜것을 배워주면 안된다.》고 한마디 더 내뱉고는 꼬리를 사렸다.

순사놈의 거동이 너무나도 뜻밖이여서 야학생들은 그놈이 나간 후에도 얼마동안 벙벙해 앉아있었다.

《순사놈이 소나무그림을 보고 왜 가만 있었을가?》

《글쎄, 칠판을 보는 그놈의 눈이 어쩐지 청맹과니같더라.》

《그러니 그놈의 눈엔 저 그림이 보이질 않았나부다.》

야학생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생각할수록 소나무그림은 신비스럽기만했다.

이날 야학방에서 있은 일은 온 마을에 퍼져 며칠동안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였다.

그렇지만 두그루의 소나무가 거기에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이 마을 사람들은 귀가 번쩍 트이는 소식을 들었다.

왜놈들을 내쫓고 조국을 해방할 10대의 젊은 장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였다. 그분은 김형직선생님의 자제분이신 김성주선생님이신데 벌써 학창시절에 청년들을 불러일으켜 왜놈들을 벌벌 떨게 만드신다고 했다.

야학생들은 그 소식을 듣자 흥분을 누르지 못해 부둥켜안고 돌아갔다. 그들의 눈엔 기쁨의 눈물이 맺혀있었다.

김훈도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칠판앞에서 오락가락하였다.

얼마동안 그러더니 마음을 다잡고 그는 야학생들에게 말했다.

《그러니 칠판에 왜 두그루의 소나무가 새겨졌댔는지 이제야 짐작이 갑니다.

한그루의 소나무는 우리가 이미 알고있듯이 김형직선생님을

가리키는것이요, 그곁에서 푸르싱싱 자라는 청송은 아버님의 대를 이어 우리 나라에 양춘을 가져다주실 김성주선생님의 출현을 알려주는것입니다. 정녕 우리 나라에 대통운이 텄습니다!》

야학생들은 짝자그르르 박수를 쳤다. 그들은 《알고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하며 김훈의 말에 공감했다.

바로 그 시기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는 소식이 전광석화마냥 삽시에 온 나라에 알려져 어둡기만하던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밝은 빛을 비쳐주었다.

창끝처럼 예리한 일제의 감시속에서도 신문 《동아일보》 1928년 11월 2일부에 그 소식이 대서특필되였고 이어 11월 13일부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투쟁소식이 실려 사람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었다.

그러니 야학방에 두그루의 소나무가 저절로 새겨진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두 류 산 전 설

강원도 문천시 두류산(지금은 천내군 동흥리에 속함)에는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짤막한 전설이 있었다. 그런데 해방을 몇해 앞두고 이 전설에 이어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새로운 전설이 또 생겨났는데 그 두가지가 합쳐져 지금은 하나의 전설로 이야기되고있다.

먼 옛날, 석달열흘이나 비 한방울 내리지 않는 왕가물이 들었다.

밭에선 풀풀 먼지만 날리고 논이 거북등같이 갈라져 농민들은 아우성을 쳤다. 강바닥이 드러나고 늪이란 늪은 다 말라버려 물 한모금 마실수가 없으니 사람도 짐승도 갈증에 시달리다못해 하나둘 마른 나무 쓰러지듯 넘어지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운림이라는 총각이 앓는 어머니를 구원하려고 약초를 캐려 두류산으로 올라갔다. 두류산은 그 아근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서 골짜기도 많고 나무도 무성했다. 그런것만큼 산나물이나 약초 또한 많았다.

운림은 좋다는 풀은 이것저것 맞다드는대로 다 캐며 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쏴쏴

하는 폭포소리에 귀가 솔깃해졌다.

가물철에 물소리를 들으니 기쁘기도 하고 한편 신비스럽기도 했다.

목이 말랐던차라 그는 숲을 헤치고 폭포소리가 나는곳으로 찾아들어갔다.

깊은 골안에 은실을 드리운것 같이 하얗게 쏟아져내리는 아름다운 폭포가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시원한 바람까지 일어 마음이 한결 상쾌해졌다.

《에라, 오래간만에 맑은 물을 만났는데 여기서 점심이나 먹자.》

운림은 폭포옆 너럭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점심보따리를 풀었다.

그리고는 물부터 마시려고 머리를 숙이다가 폭포수가 쏟아지는곳에서 물고기 한마리가 빙글빙글 헤염쳐도는것을 보았다.

《아니, 저 물고기는 뭘 먹고 살가?》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밥 한덩이를 던져넣어주었다. 물고기는 기다렸다는듯이 그것을 덥석 받아먹었다. 그러더니 물에 꼬리를 툭툭 치면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삽시에 물이 부글부글 끓으며 하얀 빛으로 변했다. 운림이 이상해서 물속을 들여다보는데 이상스러운 일은 그다음에 생겼다.

갑자기 물속에서 커다란 룡 한마리가 머리를 내밀더니 하늘로 솟아오르는것이였다.

운림은 너무도 놀라와 뒤로 벌렁 자빠졌다.

그가 한참만에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부랴부랴 점심을 먹

고난 뒤였다.

사방에서 구름이 밀려오더니 석달열흘을 가물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래간만에 맞는 비여서 운림은 기뻤다.

《얼씨구나, 약비로세. 우리 목숨 살려주는 생명수로세.》

운림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사람들은 밖에 나와 일부러 비를 맞으며 좋아들 하였다.

그들은 운림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물고기가 보통물고기가 아니라 룡이였을게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폭포아래의 소이름을 룡소라고 부르고 폭포는 운림의 이름을 따서 운림폭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후부터 몇백년을 내려오면서 해마다 가물철에는 이곳에 와서 기우제를 지내군했는데 이마적에 와서는 기우제뿐아니라 백리안팎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행운을 바래서 제를 지내게 되였다. 그럴 때면 떡을 치고 돼지를 잡아 이고지고 늘어선 행렬이 십리길이는 잘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마전부터 폭포앞에 부정기가 있는 사람이 서기만하면 뽀얀 안개를 일으키며 물이 요동을 치기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까이 다가갈수가 없다는 소문이 돌았다.

면장이 찾아갔다가 물벼락을 맞은적이 있고 군수가 제를 지내다 물세례를 받은 일도 있었다.

몇해전부터는 왜놈들까지 행운을 빌려 두류산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유격대오를 이끄시고 함

홍, 양덕 할것없이 국내깊이까지 오시여 왜놈들을 혼쌀내주시였으니 언제 그곳에도 오실지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았기때문이다.

형세가 뒤숭숭하고 망조가 내다보일 때라 놈들에겐 귀신밖에 믿을것이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왜놈들이 찾아오는 날에는 영낙없이 운림폭포가 요동을 치며 놈들에게 물을 들씌웠기때문에 가까이 접근해보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놈들은 거기서는 제를 지낼수가 없어 두루두루 살피다가 옆의 골짜기에 있는 다섯아름도 넘는 큰 박달나무밑에다 따로 《진쟈》를 지어놓고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신이여! 이 굳고굳은 박달나무처럼 우리 일본이 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곳에 《진쟈》를 지어놓고 첫 제를 지낼 때 경찰서장이 이렇게 빌었다고 한다.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일본의 시조신이라는 《아마데라스 오미까미》에게 제를 지내는 날이여서 경찰서장과 여러 순사들, 문평제련소와 북선제강소 등을 경영하는 일본인기업주들 그리고 《신선대》놈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그 《진쟈》에 찾아들어갔다.

그런데 늘 멀찌감치에서도 눈에 뜨이군하던 《진쟈》가 보이지 않았다.

(길을 헛갈렸나?)

놈들은 두릿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여러번 찾아들어오던 그 길이 틀림없었다.

놈들은 좀 더 가까이 올라가보았다. 그러다가 그만 눈이 뒤

집힌채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진쟈》는 간곳이 없이 빈터만 남았고 그뒤에 서있던 아름드리 박달나무는 나무매끼가 탈리듯 다섯아름이 넘는 나무통이 배배 틀려 옆으로 넘어져있었다.

놈들은 질겁해서 코가 땅에 닿도록 열백번씩 굽석거리며 빌었다.

《하느님이시여! 제발 비옵건대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옵소서!》

그러다가는 혹시 제놈들이 잘못 보지 않았나 해서 눈을 비비며 보고는 그게 사실임을 알고 또다시 굽신거리군하였다.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저렇게 굵은 나무밑둥을 비틀어놓을수는 없을텐데 무슨 조활가?)

놈들은 날이 어슥해서야 산에서 내려오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런데 며칠후 이 지방에는 다음과 같은 소문이 돌았다.

왜놈들이 아무리 신에게 빌어도 망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깨우쳐주시려고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시여 그곳 두류산에까지 오셨댔다고 한다.

장군님께서는 놈들이 지어놓은 《진쟈》를 보시더니 입김을 불어 멀리 훌 날려보내시고는 아름드리박달나무를 한손으로 잡고 나무매끼 틀듯 비틀어놓고 가시였다는것이다.

소문이 퍼지자 왜놈들속에서는 미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본국으로 도망을 치는놈들이 생겨나게 되였고 우리 인민들은 사기가 올라 해방의 날까지 꿋꿋이 싸워갈 다짐을 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문천시 두류산에 오시여 아름드리 박달나무를 한손으로 비틀어놓고 가시였다는 이야기는 함경남도 금야군, 정평군일대에도 돌았다고 한다.

금야군 새동리에 사는 한 할머니는 해방전 어느날 어린 아이가 앓아서 함흥병원으로 가려고 역전에 차를 타러 나갔었다. 그런데 왜놈들이 강요하는 《고오꾸 신민노 세이시》(《황국신민의 맹세》라는 뜻)를 외우지 못했다고 차표를 주지 않아 역전마당에서 땅을 치며 《아가야, 이런놈의 세상에서 살아 무엇하겠니, 너 죽고 나도 죽자.》하고 푸념을 하며 울고있었다고 한다.

그때 한 중년의 사나이가 뒤에 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왜 죽는다고 그러오? 소문을 들으니 문천 두류산에 백두산의 장수가 나와서 왜놈들이 〈진쟈〉를 지어놓은 아름드리 박달나무를 나무매끼 틀듯 한손으로 비틀어놓고 갔답디다. 그 장수가 다시 나오는 날엔 나라가 해방된대요. 그날까지 죽지 말고 목숨만 이어가슈.》 하더라는것이였다.

정말 그로부터 한두해만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해방시켜주시였다.

고 추 폭 탄

알고있는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에서는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말씀대로 자체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수리해쓰기도 하였다. 유명한 《연길폭탄》도 처음에는 소리폭탄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추폭탄, 돌폭탄을 거쳐 쇠붙이를 쓰는 폭탄으로 발전되게 되였는데 이 이야기는 고추폭탄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전설중의 하나이다.

왕청현에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어느날 경찰대장 하라다에게 상급으로부터 특별지령이 떨어졌다. 내용인즉 항일유격대에서 5대감각기관을 자극하는 특수폭탄을 쓰고있는데 그것이 새로 발명된 그 어떤 화학무기일수 있으니 시급히 알아내여 보고하라는것이였다.

(그게 무슨 폭탄일가? 일찌기 고려시기에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어 진포해전에서 왜군을 전멸시켰다더니 이번엔 조선의 빨찌산이 또 무슨 신기한 무기를 만들어낸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든 하라다는 먼저 목격자를 찾아내여 정황을 알아보았다.

구사일생으로 혼자 살아났다는 한 졸병놈이 그의 앞에 불리워와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재채기만하였다.

《이놈아, 빨리 말이나 해라. 무얼 보구 특수폭탄이라는거야?》

《예, 처음엔 칙—하고 바람소리가 났습니다요. 에취!》

《그다음엔?》

《그다음엔 꽝! 고막을 찢는 폭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죽었구나〉하고 너부러져있다가 정신을 차리자고 보니 도무지 눈코를 뜰수가 없었습니다. 바늘로 찌르듯이 눈이 때끔거리고 코가 못견디게 쓰리고 목구멍이 아팠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살가죽이 얼얼해났습니다. 에취! 에취!》

졸병놈은 말을 하다말고 연거퍼 재채기를 했다.

(맞구나. 5대감각기관을 동시에 자극시키는 화학무기가 옳긴옳구나.)

《그래 손실이 큰가?》

《한마디로 전멸했습니다. 난 머리를 모포밑에 처박고있어서 살아났습니다만 다른 녀석들은 모두 목없는 귀신이 되고말았습니다. 몇시간후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을 때 간신히 눈을 뜨고보니 그 꼴이였는데 총을 찾아보니 한자루도 없었습니다. 공산군이 다 가져간것 같습니다.》

《빠가야로! (머저리)》

하라다는 책상을 탕 치며 졸병을 나무랬다.

그러나 졸병에게 을러메긴 했지만 제놈의 팔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있었다.

졸병의 말을 듣고보니 하라다는 상급의 명령이 불만스러

웠다.

(나더러 그런 헤여날수 없는 미궁의 세계에 들어가라는거지.)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있다간 언제 벼락이 떨어질지 몰랐다. 그래 울며 겨자먹기로 현지시찰을 나가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라다는 경찰 대여섯을 달고 어느 한 마을길을 걷고있었다.

때는 구시월 가을철이라 산과 들에 빨갛고 누런 단풍이 한창이였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숲이 와스스 설레였다. 겨드랑이 밑으로 바람이 기여들어와 오슬오슬 추워났다. 하루이틀사이에 서리가 올것 같았다.

《야! 어느 집에 들어가 불이나 쪼이고 가자.》

하라다가 말했다.

놈들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여오르고있는 마을 맨끝의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집주변에는 넓은 고추밭이 있었는데 포기마다 새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주인이나 있는가?》

한 경찰놈이 마당에서 깩 소리를 쳤다.

부엌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칠순에 가까운 한 로인이 머리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요?》

《추워서 그러는데 방에 들어가 몸이나 좀 덥히자고 그런다.》

로인이 놈들을 못마땅하게 보더니 대답했다.

《마음대로 하구려. 지금 불을 때고있는중이웨다.》

《마침 잘됐다. 불이나 뜨끈뜨끈 때라.》

놈들은 방으로 우르르 들어갔다.

잠시후 로인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추우면 불을 쪼이시우.》

놈들은 등불을 본 부나비들처럼 화로곁으로 모여들었다.

《오—령감이나 마음씨 매우 곱다.》

하라다가 로인을 칭찬했다.

로인은 부엌으로 나갔다.

놈들은 손바닥이 빨갛게 달도록 불가까이에 들이댔다.

《어—그 불에 감자나 구워먹었으면 좋겠군.》

한 경찰놈이 따가와진 손바닥을 마주 비비며 말했다.

이때 그에 대답이나 하듯 불속에서 《칙—》하는 소리가 났다.

《정말 감자를 묻어둔게 아니야?》

놈들이 행여나 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불찌가 날리며 귀청을 찢는 폭음이 울렸다.

《꽝!》

순간 놈들은 기절해자빠졌다.

바늘로 찌르듯 눈이 때끔거리고 코가 쓰리고 목구멍이 찢어지는듯했다. 귀가 멍멍하고 살가죽이 따가왔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하라다는 그것이 《화학폭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쏟아져나오고 심한 재채기가 시작되였다.

《에취! 에취!》

하라다는 연거퍼 재채기를 하며 소리쳤다.

《이건 화학폭탄이다. 총들을 찾아쥐고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는 눈도 뜨지 못한채 소경처럼 손으로 방 구석구석을

더듬거렸다. 그러나 총은 한자루도 없었다. 로인이 어느새 다 걷어가지고 나갔던것이다.

《칙쇼! 령감이나 빨찌산과 내통하고있었구나.》

하지만 그걸 생각할사이가 없었다. 빨리 목숨이라도 건져야 했다.

하라다는 문지방에 걸채여 넘어지며 사생결단하고 밖으로 기여나갔다. 그리고는 네발걸음으로 마당을 지나 발고랑속으로 들어갔다.

다른놈들은 한참 재채기를 해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간이 콩알만해서 땅에 엎드려있던 하라다는 눈물을 몇바가지 잘 흘리고나서야 겨우 눈을 뜰수가 있었다.

사위는 어슬어슬했다.

(여기가 어디야?)

놈은 엎드린채 좌우를 살펴보았다.

그곳은 고추밭이였다. 댕댕하게 익은 고추들이 머리우에 잔뜩 드리워져있었다.

혼쌀이 난 하라다에겐 그것들이 모두 자기를 겨눈 총알처럼 보였다.

놈은 향방을 가늠해보려고 몸을 반쯤 일으켰다.

순간 주위에서 《픽—》 《픽—》하는 소리가 나더니 또다시 눈이 때끔거리고 쓰리며 재채기가 났다. 가지에 달려있는 빨간 고추들이 작은 폭탄과도 같이 톡톡 터지는것이였다.

《앗! 고추폭탄이다!》

하라다는 질겁을 해서 고추밭고랑을 기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픽— 픽—》 뒤에서도 《픽— 픽—》 연

거퍼 콩튀듯하는바람에 눈을 뜰수가 없고 숨을 쉴수가 없었다.

방안에서 고추폭탄이 터지자 그 울림에 같은 족속인 고추밭의 고추들도 덩달아 터지면서 왜놈을 골탕먹이는것이였다.

《제발 살려주시오!》

하라다는 고추포기밑에 엎드려 싹싹 비벼댔다.

그놈이 눈을 약간 뜰만하면 고추들은 또 터지고 그놈이 숨을 좀 돌릴만하면 다시 터지군하였다.

한밤중이 퍽 지나서야 고추터지는 소리가 뜸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매운 냄새는 코를 찔렀다.

하라다는 그제야 그 냄새가 방안에서 폭탄이 터질 때 풍기던 냄새와 비슷하다는걸 알았다.

(그러니 그 폭탄에도 혹시 고추가 들어있는게 아닐가?)

하라다는 그런 졸경을 치르면서도 상급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있는지라 눈물을 짜고 코를 벌름거리며 생각했다.

《틀림없다. 그건 고추폭탄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른 그놈에겐 조선사람들이 일상 먹고사는 고추에도 쩔쩔 매고있는 제놈들이 허재비처럼 느껴졌다.

이날 밤새껏 고추밭에서 헤매다가 새벽닭이 울무렵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온 하라다는 어찌나 혼쭐이 났는지 닷새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놈은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멀리에서 고추밭만 보아도 재채기를 하며 뺑소니를 쳤다고 한다.

신기한 쬐기밥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것은 1930년 겨울부터였다.

오가자에서 얼마 떨어져있는 어느 한 마을에 아들딸 6남매를 낳아키우는 집이 있었다.

험악한 그 세월에 부모들은 등이 휘고 손톱이 닳도록 일을 하여도 그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먹여살릴수가 없었다.

해빛도 들지 못하는 어둑침침한 방안에 손바닥만한 누데기를 펴놓고 그속에다 여섯아이가 발을 밀어넣고는 온 하루를 부모들이 밥을 벌어오기만을 기다리군하였다. 옛이야기에 나오는 흥부네 살림과 다름이 없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가슴들을 내놓고 추위에 바들바들 떨다가는 어머니를 기다리다못해 젖먹이가 배고파 울기 시작하면 허기진 아이들이 덩달아 우는데 그 울음소리는 하루종일 그칠새없었다.

그 정상이 가긍하기 그지없어 동네사람들도 혀를 차며 걱정을 했다.

《저렇게 울다 애들이 기가 넘어가면 어쩌누.》

《그러게 말이우다. 애당초 이런 세월에 태여난게 원쑤지.》

하지만 자기들도 집안에 석자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것 없는 가난뱅이들이라 도와줄수가 없었다. 그래 날마다 가슴저미

는 애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애간장만 태울뿐이였다.

그러니 부모들의 심정이야 오죽하랴.

아버지는 이른아침에 지게를 지고 집을 나가서는 산판을 헤매며 나무를 했다. 현기증으로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데다 매끄러운 눈길이여서 그것을 지고 내려오느라면 열두번은 넘어져야 했다.

허리가 시큰거리고 발목이 삐여졌지만 죽기내기로 도회지까지 지고가서 보면 처지가 비슷한 나무장사군들이 하두 많이 늘어나 나무 한짐 팔아도 낟알 한되박 사기 어려웠다.

생각하면 눈물겨운 일이지만 가족들을 살리자니 그런 노릇이라도 거듭해야 했다.

어머니는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남의 집 삯빨래질을 하였다. 일이 주접스러운건 그렇다치더라도 주인집의 지청구를 들으며 갖은 모욕을 당할 땐 걷어치우고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났다. 그러나 쌀 한되박 바라고 참아야 했다.

이렇게 내외가 아득바득 일을 해도 굶주림을 면할수가 없어 그 집 애들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종일토록 마을에 울리였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어느 하루도 그칠새없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어느날 뚝 멎어버렸다.

어찌된 일일가?

이고장이 살기 어려우니까 온 집안이 짐을 싸가지고 어데로 훌 떠나버린게 아닐가? 그렇잖으면 혹시 애들이 잘못되지나 않았을가?

막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마을사람들은 더럭 겁이 났다.

그래 알아보려던참인데 한 로인이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낮에 길을 가던 한 백발로인이 시간을 가늠해보려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뜻밖의 광경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밝은 대낮인데도 하늘에 별 하나가 떠서 유난히 빛을 뿌리고있었기때문이였다.

《아니, 내 나이 칠순이 넘도록 대낮에 별이 뜬걸 처음 보는군.》

로인은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는사이 별은 눈부신 빛살 하나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집우에 길게 내리드리우더니 순간에 사라지는것이였다.

그러자 곧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로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허둥지둥 그 집으로 달려갔다.

알고보니 눈부신 별님이 그 집에 내려와 배고파우는 애들에게 신기한 쉐기밥을 주고가시였다는것이였다. 그래서인지 방안은 해빛이 든것처럼 밝고 따뜻한감이 들었다.

(참 놀라운 일이로다.)

로인은 그 신비함에 감동을 금할수 없어 곧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을 돌렸다.

아이들은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둘러앉아 쉐기밥 몇덩어리를 나누어먹었다.

그 쉐기밥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먹을수록 자꾸만 생겨나는것이였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일터에서 돌아오면 드리려고 한덩어리의 쉐기밥은 솥안에 넣어두었다.

그날저녁이였다.

6남매의 아버지는 이날따라 나무가 팔리지 않아 그냥 집어던지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눈물로 얼룩진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얼른거려 그의 발걸음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그런데 마을어귀에 들어서면 의례히 들려오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이상하게도 들리지 않았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가?)

불길한 생각이 든 그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들어가며 애들을 불렀다.

그러자 뜻밖에도 집안에서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와르르 쏟아져나왔다.

《아버지, 나 밥 많이 먹었다.》

《별님이 내려와 우리들에게 밥을 먹게 해주시였어요.》

중구난방으로 쏟아놓는 애들의 말에 아버지는 벙벙해졌다.

《별님이라니?》

아버지가 믿지 못해하자 아이들이 그의 손을 끌고 부엌에 들어가 《여기 쥐기밥 한덩어리를 남겨두었어요.》하며 솥뚜껑을 열어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안엔 여덟개의 쥐기밥이 들어있었다.

한덩이의 쥐기밥이 식구수만큼 늘어났던것이다.

아이들도 아버지도 다같이 눈이 휘둥그래졌다.

뒤미처 집에 들어온 어머니도 말을 못하고 눈만 껌벅거렸다.

꿈같은 일이여서 그들은 먹을 생각을 못하다가 이슥고 배가 고픔을 느끼고서야 그것을 꺼내먹었다.

신기한 일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다음날 아침에도 솥뚜껑을 열어보니 솥안에는 또다시 여덟개의 쉐기밥이 들어있었고 저녁에도 역시 그대로 생겨나군하였다.

(참 별일이다! 이런 신기한 쉐기밥을 주고가신 별님은 어떤 분이실가?)

애들의 부모는 이런 생각으로 몹시 궁금해하였다.

이때 오가자일대에서는 별님에 대한 노래가 널리 불리워지였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

그 노래소리를 듣자 6남매의 부모들은 짐작을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기한 쉐기밥을 주고가신 별님은 바로 만백성이 우러르는 한별님이실거야!)

이때 그들의 짐작이 맞다는것을 담보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자일대에서 나돌았다.

《캄캄한 밤하늘에 솟아오른 한별님이 여기 오가자에 내리셨댔다.》

《한별님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을 돌봐주시였다!》

《만성전염병》

항일혁명투쟁시기 일본인들속에서는 이상한 전염병이 만연되여 천황까지도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1930년대중엽에 관동군사령부산하 어느 일본륙군병원의 나이지숙한 신경과의사에 의하여 처음 그 병명이 밝혀졌는데 그는 환자의 병력서에 이렇게 썼었다.

《병명: 전염성신경과민증(일명 〈공산군〉 에 대한 공포증)》

그가 전염병이라고 명명한것은 환자의 발병원인이 직접 유격대《토벌》에 나갔댔거나 유격대의 습격을 받아본 일도 없는데 다만 목격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떠도는 소문을 듣고 생긴것이라는데 있었다. 물론 신출귀몰하는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한테 직접 참패를 당해본자들이 그런 병에 걸리는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그런 일은 겪어보지도 않은자들한테까지 퍼지니 어찌 전염병이 아니라 할수 있으랴. 그것도 한두달사이나 이삼년사이에도 고칠수 없었으니 만성병이 틀림없다. 이 전염병에 감염된자들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몇가지 보기로 하자.

1. 술을 마시면 유격대의 습격을 면하는가?

만철을 달리는 렬차에서 경호라는 조선청년이 승무원으로 일한적이 있었다.

렬차가 만주를 떠나 칭진쪽으로 나올 때였다. 렬차출발시간이 림박하여 함께 일하는 일본인승무원 오니시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헐떡거리며 차에 올랐다.

그는 승무원실에 들어와 경호앞에 들고온것을 내놓았다. 중국빼주 한병에다가 마른 낙지 몇마리였다.

《자, 술을 마시자구. 당신은 경험이나 없어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고 떠나야 〈공산군〉의 습격이나 받지 않는다.》

오니시는 두개의 고뿌에다 술을 찰랑찰랑 따랐다.

《술을 마셔야 〈공산군〉의 습격을 받지 않는다구요?》

그 말이 이상해서 경호는 눈이 휘둥그래 오니시를 바라보았다.

《글쎄 내 말 틀린데나 없으니 마시기나 하라.》

오니시는 더 설명을 하지 않고 술부터 입에 가져갔다.

경호도 의아쩍긴 했으나 그놈을 따라 술을 마셨다.

취중에 몇개의 역을 지났는지 몰랐다. 취기가 점점 더 오르자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엔 날은 훤히 밝고 렬차는 어느덧 청진역에 들어서고있었다.

오니시는 두팔을 쥐올리며 기지개를 켰다.

《보라. 술이나 마셨더니 〈공산군〉의 습격이나 없었잖아.》

경호도 그런가부다 하고 머리를 끄덕였다.

경호는 처음 입직을 할 때 만철구간은 유격대의 활동구역이라는것, 언제 어느 시각에 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것, 그래서 요즘엔 누구도 그 렬차의 승무원노릇을 하기 꺼려한다는것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조선사람인데야.》하는 생각으로 그는 서슴지 않고 기차를 타게 되였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오니시가 자꾸 무섬증을 불러일으키군 했다.

경호는 할수없이 《너는 굿이나 해라. 나는 구경이나 하겠다.》는 식으로 그의 말이 옳건 그르건 그저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꾸했다.

이날저녁 렬차는 청진을 떠나 다시 만주로 들어가게 되였다.

이번에도 출발시간을 이삼분 앞두고 오니시가 헐레벌떡 차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엔 그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승무원실로 들어온 오니시는 매우 락심해하며 말했다.

《술을 구해가지고 오르지 못했으니 참 야단이나 났다. 미리 사두었어야 하는건데 방금 가보았더니 술집에나 술이 딱 떨어졌다는거야.》

그리고는 안절부절 못했다.

오니시가 그렇게 락심하는것은 술을 마시지 못했으니 이번 렬차길에 유격대의 습격을 받을가봐 그런다는걸 묻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렬차가 두만강을 건너 만주땅으로 들어설 때는 거의 한밤중

이 가까와서였다.

서로 고달픈 인생을 한탄하며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던 승객들은 눈을 감고 머리방아를 찧고있었다. 그러나 오니시의 눈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동그래졌다.

넓은 초원을 지나 올리막길에 들어선 기차는 숨가쁜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밤공기를 깨뜨리며 울려오는 기관총소리처럼 들렸다.

오니시는 목을 잔뜩 움츠리고 긴장되여있었다.

술을 마셨을 땐 그리도 말이 많더니 지금은 벙어리가 된듯 얼음판우에 들어선 황소처럼 눈알만 굴리고있었다.

마지막 경사지를 올리채던 기차가 갑자기 뚝 멎어섰다.

(어찌된 일일가? 정말 《공산군》의 습격에 맞다들렸구나.)

오니시의 머리가 곤두서며 그의 신경은 초긴장상태에 들어갔다.

그런데다 기차는 얼마동안 후진을 하더니 덜커덕 하고 멈춰섰다.

순간 그의 눈앞에 환각이 일어났다. 총을 겨눈 《공산군》들이 앞뒤에서 기차를 향해 공격해오는것 같았다.

《틀림없다. 〈공산군〉의 습격이다!》

오니시는 눈이 뒤집혀 경호에게 이런 말을 하더니 《〈공산군〉이다!》 하고 소리치며 기차밖으로 내리뛰였다.

끄떡끄떡 졸고있던 승객들이 그 소리에 놀라 소동을 피웠다.

《〈공산군〉이다!》

차안에 섞여있던 일본인들이 먼저 헤덤비며 창문을 깨고 뛰쳐나갔다. 유리에 상판을 베는놈, 내리뛰다가 다리가 부러지

는놈, 언덕받이에 배밀이를 하는놈, 그 꼴들이 가관이였다.

렬차안은 삽시에 수라장이 되였다.

《〈공산군〉이 〈습격〉했다.》는 소식은 이웃차칸들에까지 퍼졌다. 모든 차칸들에서 쟁가당쟁가당 창문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악마구리 끓듯했다.

총소리 하나 울린 일이 없지만 곧 전장을 방불케 하는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사실은 올리막길을 달리던 기관차가 증기가 잘 오르지 않아 멎어섰던것인데 뒤에서 《공산군》이라고 소리지르며 소동을 피우는바람에 기관사까지도 풀숲으로 뛰여내렸다.

얼마동안 들볶던 그들이 한참만에야 잠잠해졌다. 그때는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몸들을 피했으므로 로출되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는것이였다.

옆사람도 가려볼수 없는 어둠속에 고즈넉한 침묵만 흘렀다.

몇시간동안 꼼짝달싹 못하고있던 그들은 날이 밝아서야 주위를 살피며 풀숲에서 기여나왔다.

그리고 《공산군》이 지나가버린게라고 생각하고 다시 차에 올랐다. 렬차는 《전쟁》을 만나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모두들 누가 처음 소리를 쳤는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정말 《공산군》의 습격이 있은줄로 생각했다. 유리에 긁히우고 돌에 이마를 쪼아 생긴 피자욱이 더우기 그것을 사실처럼 믿어지게 했다.

오니시는 승무원실에 들어와 천만다행이라는듯이 큰숨을 내쉬며 경호에게 말했다.

《그것 보라. 술을 마시지 못하고 차에 올랐더니 〈공산군〉의 습격을 받았다.》

경호는 역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이것이 오니시의 신경과민증으로부터 빚어진 일이라는걸 그는 짐작하고있었다.

술에 취해있으면 순간이나마 그 신경과민증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신경병환자로서의 이놈이 한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2. 목욕탕에서의 소동

흥남비료공장을 건설할 때 있은 일이라고 한다.

며칠전부터 흥남지구에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가 진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던중 한번은 새까만 밤에 높은 합성탑조립장에 올라가 고래고래 호령을 치며 로동자들을 부려먹던 일본감독놈이 밑에서 누군가가 《유격대다!》하고 소리치는바람에 놀라 떨어져서 황천객이 된 일까지 있었다. 항일유격대에 대한 소문은 항시적으로 놈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모리가와와 히로유끼라는 두 감독이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을 하게 되였다고 한다. 그들이 들어간 목욕탕은 혼자서나 겨우 들어앉아 씻을만한 좁디좁은곳이였는데 따로따로 들어가기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약속하고 함께 들어갔던것이다.

음식점에 들어가 밥을 먹을 때에도 어느 식탁에 유격대가

앉아서 살펴보지 않나 두리번거리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 때에도 혹시 휘장뒤에 유격대가 숨어있다가 총을 빼들고 나오지 않겠는가 두려워했던놈들인지라 으슥한곳이라곤 찾아볼데 없이 너무도 빤드름한 작은 목욕탕인데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살피며 옷들을 벗었다.

둘은 혼자서 겨우 들어갈 목욕통안에 같이 들어갔다. 목욕탕안은 잠간사이에 뽀얀 김으로 가득찼다. 옆의 벽도 어렴풋이 보일듯말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뙤창문쪽을 흘끔흘끔 돌아보며 앞가슴을 씻고있던 모리가와가 벌떡 일어나며 《유격대다!》하고 소리치며 목욕통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옷을 등에다 걸치고 목욕탕바닥에 넙적 엎드렸다.

그바람에 놀란 히로유끼 역시 벌떡 일어나 나가다가 벽에 이마를 찧고 《아이쿠, 살려주!》하며 납작 엎드렸다.

그렇게 하고 얼마동안…

목욕탕안에 서리였던 김이 사라지자 눈이 멀뚱멀뚱해서 엎드려있던 두놈은 그안에 자기들밖에 없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슬그머니 일어나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옷을 입었다.

《어떻게 된 일이야?》

히로유끼가 물었다.

《내가 앞가슴을 씻고있는데 저 뙤창문으로 시커먼 얼굴이 들여다보더란말이야. 그것은 귀신과도 같이 눈을 실룩거리며 무서운 모양을 지어보이더니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지 내 엉치를 박박 긁어놓았단말이야. 앞으로 재미없을테니 정신차리라는 신호였겠지.》

모리가와는 긁히웠다는 자기 엉치를 가리켰다.

《오—그렇게 됐군. 그 유격대는 무쇠같은 주먹으로 내 이마를 딱 치더란말일세. 목숨을 건드리지 않은것만도 다행이야.》

히로유끼는 벽에 부딪쳐 이마에 생긴 혹을 가리켰다.

사실은 너무 좁은 목욕통안에 둘이 들어앉다보니 히로유끼가 자기의 엉치를 긁는다는것이 모리가와의 엉치를 긁어댄바람에 생긴 일이였다.

그리고 검은 얼굴이라는것은 물물 피여오르는 김이 그놈의 눈에 사람의 얼굴과도 같은 환각을 일으켰던것이다.

3. 밤길에 만난 《빨찌산》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때에 경찰관주재소가 녹아난 후로는 어느 순사도 그곳 주재소로 가기를 싫어했다. 제놈들도 선임자들의 전철을 밟을가봐 두려웠던것이다.

등급을 높여준다고 해도 달가와하지 않았다.

봉급을 올려준다고 해도 시큰둥해하였다. 죽은 다음에야 등급은 해서 무엇하며 돈은 해서 무엇하랴. 오히려 유격대는 등급높은 놈들에게 먼저 벌을 내린다고 하였으니 차라리 하바닥 졸병놀음을 하기가 나을상싶었던것이다.

이러나저러나간에 하여간 순사들은 어쨌든 보천보에만은 가기 싫어했다. 그래 혜산경찰서에서는 우격다짐으로 내리먹여서 한놈한놈 머리수를 채워놓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요시다라는 순사가 임명장을 받고 그리로 가

게 되였다.

그가 혜산경찰서를 나설 때는 낮 한시경이였다. 자전거로 두시간이면 능히 보천면소재지에 이를것이니 대낮에 가게 되여 그는 어느정도 안심을 했다.

그런데 그만 절반도 못가서 자전거바퀴에 구멍이 났다. 요시다는 그걸 고쳐보겠다고 맨손으로 뜯어놓고는 소경 아이낳아 주무르듯 주물러댔다.

시간만 보낼뿐 소용이 없었다. 당장 고무풀이 없는데다 인가가 보이지 않는곳이여서 거기에선 가위나 집게 하나 구할수 없었다.

미련을 가지고 신바닥깔개를 뜯어서 틀어막아보았다. 하지만 뽐프질을 하기 바쁘게 칙—하고 바람이 샜다.

이렇게 씩닥거리다보니 어느새 해가 넘어갔다.

그제야 급해맞은 요시다는 바람나간 자전거를 끌고 걷기 시작했다.

그가 가산마을을 지날 때에는 날이 어두워 벌써 주위를 분간키 어려웠다.

옆에선 가림천이 주절거리며 흐르고있었다.

떠나기전부터 범의 굴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마음이 초조했는데 보천보를 앞에 두었다고 생각하니 신경이 잔뜩 곤두섰다.

금시 량쪽골짜기에서 죽은 령혼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내려올것만 같았다.

요시다가 얼마쯤 어둠속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났다.

(누가 따라오는구나.)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든 요시다는 우뚝 멎어섰다.

그러자 동시에 뒤에서 들리던 발자국소리도 멎었다.

요시다는 다시 걸었다. 또다시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났다.

신경을 잔뜩 뒤통수에 집중하고 살금살금 발끝걸음을 걸어보았다. 그러자 뒤에서도 발끝걸음을 걷는 모양 소리가 나지 않았다.

당장 자기의 목덜미를 덮칠것만 같았다.

(이래선 안되겠다. 판결을 보아야지.)

요시다는 주동적으로 맞서볼 심산으로 칼을 뽑아들고 홱 뒤로 돌아섰다.

《누구얏!》

그런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어지간히 빠른데.)

한참 숨소리를 죽이고 살피던 요시다는 자전거를 밀고 냅다 달렸다. 그러자 뒤에서도 따라뛰는지 발자국소리가 빨라졌다.

숨이 하늘에 닿도록 달리는데 이건 또 뭐야, 길옆에 시꺼먼 사람이 앉아있는게 아닌가.

(앞뒤에서 나를 노리고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요시다는 기겁을 해서 길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두손을 싹싹 빌었다.

《제발 살려주시우!》

그는 자기가 틀림없이 《빨찌산》과 맞다들었다고 생각했다. 반항을 한댔자 소용이 없을것이였다. 그래 무턱대고 비는판인데 시커먼 사람은 그런것쯤은 들을 잡도리가 아닌지 말없이 웅크리고만 있었다. 앞에 삐죽한게 나와있는걸 보니 자기한테

총을 겨누고있는게 분명하다.

(그렇지, 무기가 있으면 내놓으라는게구나.)

이런 생각이 든 요시다는 허리에 찬 장도를 풀어서 두손으로 받쳐들었다.

《저에겐 이 칼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도 저쪽에선 입을 열지 않았다.

(또 무엇을 내놓으란말인가? 그렇지, 파견장이 있겠다.)

이번엔 웃주머니에서 파견장을 꺼내여 받쳐들었다.

《예, 여기 파견장도 있습니다. 전 사실 이걸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강다짐으로 보내질 않겠습니까. 죽여야 할놈은 경찰서장 그 족제비같은놈입니다.》

요시다가 이렇게 우는 소리로 엮어댔으나 저쪽에선 역시 침묵이였다.

《그럼 이젠 무얼 바랍니까? 알고있는 비밀을 대라는가요? 전 처음 임명을 받고 오는 길이다보니 아무 비밀도 모릅니다, 예.》

밤새껏 빌었으나 그쪽에선 계속 말 한마디 없었다.

요시다는 겁에 질리다못해 몸뚱이가 달팽이처럼 말려들어 한옹큼이나 될가말가 할것 같았다.

이때 갑자기 부스럭소리가 나더니 그 《빨찌산》이 옆구리에서 작탄같은것을 내던지며 자기를 덮치려드는것이였다.

《빨찌산이 나를 덮친다!》

요시다는 비명소리와 함께 뒤로 벌렁 너부러지며 의식을 잃고말았다.

이튿날 어제 떠났다는 요시다순사가 아침까지도 도착하지 않자 보천보주재소 소장놈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순사들을 앞

세우고 혜산방향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산리쪽으로 한 5리가량 갔을 때였다.

길바닥에 자전거가 나딩굴고 순사 한놈이 어푸러져있었다.

《요시다다!》

소장놈이 소리쳤다.

모두 가까이 가기를 꺼리며 주춤거렸다.

《뭣들 하는가? 빨리 가서 보라.》

소장놈이 꽥 소리를 쳐서야 비실비실 다가갔으나 순사들은 누구도 자빠져있는 요시다를 만져볼 생각을 안했다.

그래도 나이먹은 소장놈이 먼저 엎드려 요시다의 앞가슴을 잡고 흔들어댔다.

《요시다! 요시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이번엔 그의 볼따귀를 이쪽 저쪽 때려보았다. 머리는 치는대로 돌아갈뿐이였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뚱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총알 한 알 맞은 자리 없고 칼자리 하나 나있지 않았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럼 자기절로 쓰러졌단말인가? 바보같은 자식!》

소장놈은 쓰러져있는 요시다를 발길로 툭 걷어찼다. 그러다가 죽은놈에게 벌을 주어 무엇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던지 그만하고말았다.

이때 너부러져있던 요시다가 꿈틀거렸다. 아마도 발길로 걷어찬것이 은을 냈던 모양이였다.

《요시다, 정신이나 차리라.》

소장놈이 그를 흔들어댔다.

요시다는 다시 반응이 없었다.

《빨리 병원으로 가져가야겠다.》

소장놈은 순사들에게 그를 업혀가지고 병원으로 갔다. 요시다는 병원에서 사흘후에야 약간 의식을 회복했는데 의사들은 여러가지 진단끝에 그의 병이 전염성신경과민증으로 인한 졸도현상이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흔히 정신병환자들은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걸 인정하지 않는다.

요시다 역시 의사들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의 정신은 똑똑했으며 모든 사실은 자기가 본 그대로였다고 그는 우겼다.

그러나 요시다가 만났다는 《빨찌산》은 사람이 아니라 밑둥이 큰 나무그루터기였다.

신경과민증에 걸린 요시다에게는 그것이 앉아있는 《빨찌산》으로 보였고 삐죽이 옆으로 나온 가지는 총부리로 생각되였던것이다.

그리고 나무그루터기밑에 둥지를 틀고있던 굴뚝새가 잠에서 깨여나 포르릉 날아나오자 요시다는 《빨찌산》이 작탄을 던지며 자기를 덮치려는줄 알고 기절을 했던것이다.

어둠속에서 뒤따르던 발자국소리는 제놈의 발뒤축에서 나는 소리였다. 노루 제방귀에 놀란다는 격으로 그놈은 결국 제발자국소리에 놀랐던것이다.

두메아편꽃

백두산답사길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나 이끼푸른 진대나무와 풀 한포기, 길가의 조약돌 하나까지도 무심히 보게 되지 않는다.

비록 말은 없으나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사연깊은 이야기를 품고있는듯 생각되기때문이다.

사실이 그러하다.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더불어 우리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에는 봉마다 골마다 전설없는데 없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사연깃들지 않은것 없다. …

바람세찬 산기슭에 한떨기의 하얀 꽃이 피여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국화일가? 들에서 올라온 목화꽃일가?

섬약해보이면서도 꿋꿋이 서있는 그 꽃은 두메아편꽃, 나지막한 키에 꽃송이와 잎새도 좀 작을뿐 그 생김생김이 신통히도 집에서 자래우는 아편꽃을 닮았다. 추위를 이겨내느라 솜털이 보시시하고 잎새도 두텁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군대원들이 약으로도 많이 썼다는 그 두메아편꽃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 백두산에 피기 시작했는지는 딱히 모르나 전설로 전해오는 유래는 아래와 같다.

1936년이 절반이나 흘러가고 삼복에 접어든 어느날이였다. 밀영에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벌써 몇시간째 둔덕진곳에 서시여 멀리 앞쪽을 바라보고계시였다.

길목에 서있는 나무가지가 흔들려도 눈여겨 앞을 살피시고 숲속에서 누런 말사슴이 뛰여가도 그리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좌우 수림속에서부터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주위엔 검은 장막이 드리웠다.

《바우가 날자를 어길수가 없는데 웬일일가?》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며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시는데 때마침 밑에서 인기척이 났다.

《바우가 아니요?》

장군님께서 저으기 흥분된 어조로 물으시였다.

《아, 장군님! 제 바우입니다.》

그쪽에서도 대뜸 장군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격정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밑으로 달려내려가시여 어둠속에서 그 대원을 찾아 부둥켜안으시였다.

바우는 순간 자기를 다잡지 못하고 장군님께 몸을 통채로 떠맡겼다. 몹시 다쳤거나 지친 모양이였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장군님께서는 걱정이 되시여 곧 그를 둘쳐업으시고 병실로 들어가시였다.

불빛에 보니 바우의 몸이 말이 아니였다.

온통 피투성이가 된데다가 옷과 신발은 성한데가 없이 거덜이 났다.

심한 부상을 입고 산길을 헤쳐온게 분명했다.

이날밤 장군님께서는 잠시도 바우의 곁을 뜨지 못하시였다. 다심한 어머니처럼 줄곧 그의 손발을 주물러주시고 머리를 짚어주시였다.

대원들이 대신 바우를 돌보겠다고 말씀올렸으나 그이께서는 오히려 그들더러 돌아가 쉬라고 하시였다.

바우는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자는척 눈을 감긴 했으나 심한 동통때문에 1분이 멀다하게 끙끙 신음소리를 냈다.

《며칠동안 눈 한번 붙이지 못했겠는데 상처가 쑤시여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는군.》

장군님께서는 바우가 아픔을 참아내느라 이를 악물고 눈을 찡그릴 때면 그 동통이 자신에게까지 마쳐오는듯 표정이 변하군하시였다.

당시 혁명군병원엔 진통제로 쓸만한 약이 이미 떨어진데다가 도회지로 약을 구하러 간 대원들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래 응급처치를 했으나 지혈만 시킬뿐이였지 환자의 동통은 좀처럼 덜어주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우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며 걱정하시였다.

《이런 때엔 아편줄기라도 있으면 좀 진정을 시키고 잠을 재울수 있겠는데.》

장군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대원들은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지금껏 장군님의 명령을 집행하지 못한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날밤만은 장군님의 그 아픈 심중을 풀어드릴수가 없는것이였다. 하늘꼭대기로 높이 치솟아오른 이곳 백두산에서 어떻게 따뜻한 벌방에서 자라는 아편꽃을 볼수 있으랴.

바우를 잠재우지 못해 심려하시는 장군님께서도 바쁘신 일로 하여 벌써 며칠째 꼬박 밤을 새우시였다.

그날밤도 어느덧 자정이 훨씬 넘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던 한 대원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수 없어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뒤늦게 솟아오른 하현달이 하늘에서 은푸른 빛을 뿌려주고있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짓던 그 대원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나무그림자들사이로 숲속에 난데없이 희끗희끗한 꽃송이들이 보였기때문이였다.

(지금껏 여기서 저런 꽃을 본 일이 없는데 웬꽃일가? 내 눈이 혹시 무엇에 홀리운게 아닐가?)

그는 눈을 비벼가며 거듭 바라보다가 분명히 어떤 꽃인것같아 숲속으로 들어가 그중 한송이를 꺾어들었다. 그리고는 방안에 들어가 불빛에 비쳐보았다.

그랬더니 참 이리도 신기한 일이 다 있을가? 그것은 뜻밖에도 눈같이 하얀 아편꽃이였다.

약간 작을뿐 줄기며 흰 꽃잎이 틀림없는 아편꽃이였다.

대원은 그 꽃을 장군님께 드리며 흥분된 어조로 말씀올렸다.

《장군님, 아편꽃입니다. 장군님께서 아편꽃말씀을 하시니까 이 심산유곡에 아편꽃이 피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꽃을 보시더니 못내 기뻐하시며 말씀하시

였다.

《그렇소? 어디 함께 나가봅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시였다.

그이께서 나오시자 밖은 방금전보다 더 환해졌다.

정말 병실주위엔 아편꽃이 하얗게 한벌 깔려있었다.

《약초도 우리를 알아주누만!》

장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며 아편꽃을 밑뿌리채 한포기 한포기 뜯으시였다.

그리고는 푹 달여서 바우에게 먹이기도 하시고 얼마가량은 짓찧어 상처에 붙여도 주시였다.

신기하게 나타난 아편꽃이여서 그런지 약효 또한 신기했다.

바우의 신음소리는 순간에 멎고 인차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바우는 다음날 한낮이 넘도록 자고나더니 몸이 거뜬하다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상처도 어느새 씻은듯이 아물었다.

장군님께서도 그제야 마음을 놓으시고 잠시 휴식을 하시였다.

이때부터 백두산주변엔 해마다 하얀 아편꽃이 피게 되였는데 백두산뿐아니라 혁명군이 활동하는 그밖의 여러 지역에서도 그 꽃을 볼수 있게 되였다.

대원들은 깊은 두메산속에서 피여났다 하여 그 이름을 두메아편꽃이라고 불렀다.

이런 일을 두고 당시 인민들속에서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없던것도 생겨나게 하신다.》, 《부하들에 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지신이 감심을 하고 백두산에 아편꽃을 피워놓았다!》 등등의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강냉이보초

민심은 천심이라 그것은 막을수도 없고 마음대로 돌려세울수도 없다. 그러니 사람이 가지고있는 힘가운데서도 가장 센것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 하겠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백만의 관동군을 상대하여 싸워이기신것도 그이께서 민심을 끌어당기시는 강한 힘을 지니신 까닭이 아니더냐.

항일유격대의 생명선을 끊어놓으려고 왜놈들이 아무리 경비망을 강화하고 눈을 도사렸어도 식량이 새들어가고 천이 빠져들어갔으니 신기한 동화와도 같은 강냉이보초이야기도 이런데서 생겨났나부다.

1939년가을이였다.

길림에 둥지를 틀고있는 《토벌》사령부에서는 각 《토벌》대, 경찰대, 《자위단》 등에 항일유격대 《토벌》에 림하여 한톨의 낟알, 한컬레의 신발도 유격대에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특별지령》을 내려보냈다. 아울러 유격대에 식량이 《밀입》되지 못하도록 특무들을 몇배로 늘이고 물샐틈없는 경비망을 펴라는것, 만약 식량류출현상이 생기면 즉시에 책임있는놈의 목을 자르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지령을 받은 어느 한 《토벌》대 대장 기꾸찌소좌는 그날로

부하들을 불러다 시시콜콜이 과업을 주어 보내고는 아직 놓쳐버린 빈 구석이 없겠는가를 이것저것 따져보았다. 그러다가 송화강류역에 있는 세정보 남짓한 강냉이밭에 생각이 미치자 펄쩍 놀랐다.

사흘전에 그쪽을 지나다보니 강냉이가을을 하지 않은채로 있었던것이다.

(부락에서 식량이 빠져나가는건 단속을 한다치더라도 밭에서 직접 나가는 낟알은 어쩐다?)

며칠전에 안도쪽에서 항일유격대가 농민에게 값을 후하게 주고 강냉이밭을 통채로 사서 밤사이에 다 따갔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런데 자기 관할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단언한단말인가. 쏟친 물은 담지 못한다. 자칫하면 혁명군을 도와준 죄인으로 몰려 자기의 목이 떨어져나갈수도 있다.

(구장이나 지주에게 강냉이가을을 빨리 하라고 독촉할수도 있겠지만 이젠 구장도 믿지 못하겠고 지주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당분간은 강냉이밭에 경비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기꾸찌는 병실에 있는 시라이라고 하는 중위를 불렀다.

《시라이, 오늘부터 저녁마다 네가 책임지고 부하 다섯씩 데리고 가서 송화강기슭의 강냉이밭에 보초를 서라. 한이삭의 강냉이도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옛!》

시라이는 대답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흥, 나중엔 밭을 다 지키다니…》하며 투덜거렸다.

시라이는 그날저녁 부하 다섯을 데리고 송화강기슭으로 나

갔다.

강냉이밭엔 벌써 땅거미가 졌다.

막상 보초임무를 받고보니 그 가까이에 《공산군》이 있기나 하듯 겁이 났다.

하긴 어이 알랴, 어둑컴컴한 밭고랑에 숨어있다가 달려나오며 《이놈!》 하고 뒤덜미를 내려칠지.

부하 다섯에 시라이까지 여섯이긴 하지만 세정보가 넘는 강냉이밭을 둘러서자니 한놈한놈의 사이가 퍼그나 멀었다.

달도 없는 밤이였다. 강냉이밭이 바람에 와스스 설레였다. 만주바람은 도대체 밤에도 잘줄을 몰랐다. 그런데다 밤낮의 기온차이가 심한 내륙지대여서 밤이 되자 으스스 추워났다.

응당 시라이는 보초장으로서 강냉이밭주변을 돌며 부하들의 근무정형을 살펴야 했다. 그러나 당초에 그는 그럴 엄두를 내지 않았다.

발자국소리를 듣고 어느 구석에서 《공산군》이 뛰여나올지, 아니면 어둠을 타고 두억시니가 달려나올지 무서운 생각이 앞섰던것이다.

그래 시라이는 그중 든든해보이는 졸병곁에 바싹 붙어서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하품이 나갔다. 추위속에서도 졸음은 찾아와 눈섭을 간지럽혔다.

《제길, 아무일도 없는것을 공연히 고생만 시키는군.》

시라이의 입에서 불평이 튀여나왔다.

그는 밭뚝에 쪼그리고앉으며 졸병에게 말했다.

《졸지 말고 똑똑히 살피다가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알리라.》

《옛!》

졸병은 이렇게 대답은 했으나 상관이 자니 마침 잘됐다고 자기도 앉아 졸기 시작하였다.

다른 보초놈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보이지 않는곳에 외따로 서있기가 무섭기는 했으나 졸음이 올 땐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 마음놓고 앉아 졸수가 있었다.

드디여 날이 밝았다.

시라이는 밤새 이상이 없는가를 알아보려고 강냉이밭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한곳에 이르러 그의 발걸음이 뚝 멎었다. 누가 따갔는지 그곳엔 빈 강냉이대들만 서있었던것이다. 그것도 한정보가량이나 되였다.

시라이는 겁이 덜컥 났다. 머리우에 떨어질 벌이 먼저 생각되였다.

《야단이다! 이걸 누가 따갔는가? 왜 보고하지 않았는가?》

그는 독사같은 눈으로 보초병을 쏘아보았다.

《모르겠습니다.》

새벽에야 정신이 든 보초는 철수할 시간이 되였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혀 밭에 강냉이이삭이 달려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선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시라이가 물어서야 그도 발견하고 놀란 황소처럼 눈이 뒤집혔다.

《모른다구?》

시라이는 뱀이 난김에 보초병을 반죽음이 되도록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찼다. 그러고서도 성이 풀리지 않았지만 상급에 보고할 시간이 되였으므로 부하들을 끌고 밭에서 철수했다.

보고를 받은 기꾸찌소좌가 불덩이를 삼킨것처럼 펄펄 뛰였다.

《그런 일을 예견해서 내가 보초를 세우지 않았는가? 너희

들은 죽어마땅하다.》

그는 곧 시라이중위이하 다섯을 모두 끌어내다 목을 베게 했다.

이날저녁엔 니시오까라고 하는 대위에게 부하 열명을 붙여 강냉이밭으로 내보냈다.

니시오까는 잡도리를 단단히 했다. 시라이중위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녀석은 시라이가 아니라 시라소니야, 보나마나 모두 졸았겠지.)

니시오까는 강냉이밭둘레에 부하 열을 고르게 배치하고는 졸지 못하도록 그들이 5분에 한번씩 번호를 부르게 하였다. 니시오까곁에 서있는 보초가 《하나》하면 그다음 보초가 《둘》하고 받아넘기고 다음엔 《셋》, 《넷》, 《다섯》, … 이렇게 열번째까지 번호가 이어져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니시오까로서는 아주 신통한 생각이였다. 정말 보초병들은 하나도 졸지 못했다.

어둠속에서 발머리에 서있는 보초들이 어김없이 5분에 한번씩 《하나—둘—셋—넷—…》하고 번호를 불렀다.

(이러는데야 그런 일이 생길라구?)

니시오까는 한밤중이 되자 팔짱을 끼고 앉았다.

그러나 때이르게 속단을 하지 말라는듯 강냉이밭속에서 부스럭부스럭 무엇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누구얏!》

첫번째 보초병이 소리치니 두번째 보초병도 《누구얏!》, 세번째 보초병도 《누구얏!》… 열번째 보초병도 《누구얏!》하였다.

니시오까는 후들짝 놀라 일어섰다.

《무슨 일인가?》

《부스럭소리가 났습니다.》

《부스럭소리가 났습니다.》

《부스럭소리가 났습니다.》

대답소리도 열번이였다.

니시오까는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칼이 쭈빗 곤두섰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강냉이밭을 찬찬히 살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전지를 켜랍니까?》

곁에 있는 보초가 물었다.

《이놈아, 그건 〈나한테 총을 쏘시오.〉 하고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야.》

놈들은 밭이랑에 바싹 다가가서 귀를 강구었다. 여전히 강냉이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따금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가볍게 《툭》, 《탁》 하는 소리도 들렸다.

《강냉이밭둘레를 단단히 지키라.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니시오까는 보초놈들에게 단단히 일렀다. 그리고 제놈은 무서움을 무릅쓰고 밭머리를 빙빙 순회하였다.

밤새껏 그렇게 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잡히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다.)

니시오까는 날이 밝기 바쁘게 강냉이밭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간밤에도 또 근 한정보가량이나 강냉이가 털리웠다.

리해되지 않는것은 들어간 발자국도 나온 발자국도 하나도 나있지 않는것이였다. 밭이랑에서도 밤사이에 왔다간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어쨌든 우린 죽었구나!》

니시오까는 풀썩 주저앉았다. 판결은 이미 자기가 내린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기꾸찌는 니시오까이하 열놈의 목을 다 베여버렸다.

《밥통같은놈들, 소리를 듣고도 잡지 못한단말이야?》

기꾸찌는 이번엔 제놈이 직접 부하 삼백을 데리고 나갔다.

강냉이밭 둘레에다 3메터에 하나씩 보초를 세워놓으니 마치 울타리를 친것과 같았다.

《그물속에 든 물고기는 빠져나갈수 있어도 이 강냉이밭엔 누구나 들어오지도 빠져나가지도 못할것이다.》

놈은 진작 이렇게 력량을 많이 파했더라면 강냉이 한이삭도 잃지 않았을걸 하고 후회를 했다.

기꾸찌는 보초들에게 말소리도 내지 말고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오직 눈과 귀에 온 신경을 도사리고있으라고 일렀다.

사위는 조용하였다. 이날밤엔 바람도 잦았다.

다만 주절거리는 송화강의 물소리만이 한가롭게 들려왔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강냉이밭속에서 바스락소리가 나기도 하고 《툭》, 《탁》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삼백놈의 신경이 바싹 귀에, 눈에 몰렸다.

《누구얏! 나오라. 너희들은 포위되였다.》

기꾸찌가 소리질렀다.

그래도 여전히 바스락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였다. 소리를 쳐도 무서움을 타지 않는것으로 보아 배심들이 든든한것 같았다.

(보이지 않으니까 잡힐 념려가 없다는건가. 참 배포유하군.)

기꾸찌는 강냉이밭 둘레에 모닥불을 피우라고 명령했다.

수십개의 모닥불이 밤하늘을 밝혔다.

순간 놈들은 뜻밖의 광경을 보고 아연해졌다.

하늘로 강냉이이삭들이 날아가고있었던것이다.

(누가 강냉이밭에 기합을 주었는가? 최면술을 걸었는가? 날개없는 미물이 자기절로 날아가다니?)

기꾸찌는 강냉이밭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강냉이이삭들이 대에서 저절로 떨어져나와 하늘로 오르고있는게 아닌가. 바스락소리와 《툭》, 《탁》하는 소리는 그것들이 꼭지에서 떨어져나올 때 나는 소리였다.

《저 강냉이이삭들을 잡으라!》

기꾸찌가 얼빠진 소리를 쳤다.

《날아가는걸 어떻게 잡으라는거야.》

보초들은 하늘만 쳐다볼뿐이였다.

그제야 제놈도 헛소리를 했다는걸 깨달은 기꾸찌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강냉이이삭들은 어느 밀림속에 있는 혁명군을 찾아갈것이다.

사람들을 못가게 하니 이젠 강냉이가 자기절로 날아가누나.

그러니 민심만이 아니라 천지만물이 다 지남철에 끌리듯 **김일성**장군한테로 달려가고있다!》

기꾸찌는 이날 다가올 황군의 패망을 눈앞에 그려보며 스스로 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독립연에 만납시다》

해방직후 인민들속에 널리 퍼졌다는 이 전설은 구술자마다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어느 한 부자에게 써주시였다는 글쪽지도 《독립연에 만납시다.》, 《독립되면 봅시다.》, 《해방의 날 우리 만납시다》 등 전해지는 말이 실로 여러가지이다.

그러나 문구가 좀 다르고 이야기줄거리가 약간씩 차이가 날뿐 그 내용은 일맥상통한것이다. 그러므로 그중 한가지 이야기만을 소개한다.

1930년을 전후하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흩어진 동지들과 손을 잡으시려고 몹시 어려운 나날을 보내시던 때의 일이라고 한다.

어느 한 도시에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매우 딱한 정황에 맞다드시였다. 만나야 할 사람은 이미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어느새 기미를 챘는지 경찰이 사면팔방에서 접어들었다.

역구내는 물론이거니와 골목골목에 놈들이 도적고양이처럼 도사리고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당장은 경찰의 눈을 피하셔야 하였다.

(사람이 사는곳인데 사람을 믿자.)

장군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눈에 띄우는 큰 기와집으로 찾아들어가시였다.

《주인님, 계십니까?》

그이의 음성을 듣고 밖에서 서성거리던 심부름군아이가 달려들어가 주인에게 알렸다.

그 집은 조선에서 건너와 자그마한 철물공장을 운영하고있는 박재문이라는 사람네 집이였다.

박재문은 문밖에 나와 초면의 《젊은 손님》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찾아왔소?》

《날이 저물어 그러는데 댁에서 하루밤 폐를 끼칠수 없겠는지 해서…》

그이의 말씀에 박재문은 잠시 말이 없었다.

(비록 옷차림은 수수하나 보매 범상한 젊은이같지 않다. 그런데 숱한 려인숙을 두고 왜 우리 집에서 류하자는걸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으렸다. 저 젊은이가 화를 지고 다닐가, 복을 지고 다닐가? 아서라, 그게 어떻든 물어서 뭘하랴. 믿고서 찾아들어왔은즉 신의는 신의로 대답하렸다.)

박재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장군님을 기꺼이 맞아들였다.

《사람의 집에 사람이 들기마련이니 무슨 페될 일이 있겠소. 어서 들어오시오.》

원래 박재문은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의 한 사람이였다. 그는 장군님을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성의껏 저녁을 대접해올리고 잠자리까지 펴드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초면에 그가 너무도 무랍없이 대해주는것이 고마우시였다. 하지만 갚아드릴것은 아무것도 없으시였

다. 그래 장군님께서는 다음날 아침 그 집을 떠나시면서 글쪽지 한장을 남기시였다.

《주인님, 신세를 갚지 못하고 갑니다. 대신 이 종이 한장이나 받아주십시오.》

박재문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값을 받자고 손님을 들였겠소? 아예 그런 말 마오.》

그는 《젊은 손님》을 바래우고나서 종이장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이렇게 씌여있었다.

《독립연에 만납시다.》

박재문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과시 보통젊은이가 아니였구나!》

박재문은 글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어쩐지 그 종이장이 소중히 여겨져 머리말에 있는 농밑바닥에 깊숙이 넣어두었다.

세월이 흘렀다. 《젊은 손님》에게서 받은 종이장에 대한 생각도 머리속에서 가물가물 사라져가고있던 어느날 한 거간군이 박재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른께선 돈을 크게 벌어볼 의향이 없으신가요?》하는것이였다.

기업가치고 돈을 마다할 사람이 어데 있으랴.

《돈을 크게 벌다니요?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는가요?》

박재문이 반문하였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돈을 벌자면 일본군수업체와 손을 잡는게 땡수외다. 어른께선 철물기업을 하니 그중 적임자라고 볼수 있어요. 일본군부에서 만주각지에 물색을 하는판이니 절호의 기회라 마음내키신다면 내가 알선을 해드리리다.》

거간군의 입에서 사탕발림의 말들이 청산류수처럼 흘러나왔

다. 박재문은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덤덤히 듣고만있었다.

당시 일제는 대륙침략을 위해 도처에 군수공장과 비행장건설을 벌려놓았다. 돈과 인부를 아끼지 않고 처넣었다.

바람따라 돛달기에 이골이 난 거간군들이 때를 만난듯이 사방에 줄을 놓으려 사타구니에 불이 일도록 뛰여다녔다. 그들은 그들대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그러는것이지만 사실 이마적에 와서는 일본놈들을 등에 업은 기업주들만이 득세하는판이였다.

하지만 열번을 재고 한번 자르랬다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박재문이 거간군에게 말했다.

《사흘만 말미를 주오. 그때엔 내 확답을 하리다.》

거간군이 돌아간 그날저녁 박재문은 잠자리에 누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밤늦도록 생각을 굴렸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머리맡에 있는 농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햇솜과도 같은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여나오는것이였다.

(농속에서 웬 구름일가?)

박재문은 눈이 휘둥그래 바라보는데 구름우에 《젊은 손님》이 나타나 빙그레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독립연에 만납시다!》

박재문은 반가와 일어나려고 했으나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 젊은 손님!》

그가 손을 내밀었으나 《젊은 손님》은 구름을 타고 점점 멀어져갔다. 다만 그쪽 하늘에서 하얀 종이 한장이 팔랑거리며 내려오더니 박재문의 가슴에 안기는것이였다.

《독립연에 만납시다!》

종이엔 이런 글이 씌여있었다.

그걸 들여다보며 황송해하다가 꿈을 깨여보니 머리말에 있는 농은 문이 닫긴채로 있었다.

박재문은 글쪽지생각이 나서 급기야 농을 뒤져보았다. 글쪽지는 깊숙이 넣어둔채 그대로 있었다.

(무슨 연고로 꿈에 이 글쪽지가 떠올랐을가?)

그는 거기에 씌여진 글자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가만, 독립연에 만나자 했으니 우리 나라가 기어이 해방이 된다는 뜻이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박재문은 스스로 후들쩍 놀랐다. 거간군과 한 약속이 생각났던것이다.

《내가 뭐 일본놈과 손을 잡아?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기로서니 반역을 하다니.》

그는 사흘을 기다릴게 없이 즉시 거간군에게 편지를 썼다.

《나에게 그런 흥정일랑 아예 할 생각을 마시오.》

심부름군아이를 불러 그것을 곧 전달하라고 이르고나니 마음이 거뿐하였다.

(후유— 그 글쪽지가 나를 구원해주었구나.)

박재문은 글쪽지를 다시 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로부터 몇해가 또 흘렀다고 한다.

그 사이 박재문의 기업은 병다리아이처럼 점점 쇠약해져서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되였다.

물론 일본군부에 불응한탓에 그 압력으로부터 오는 화근임에 틀림없었다. 은행에서는 빚을 물지 않으면 기계설비들을 모두 차압해버리겠다고 이틀이 멀다하게 을러멨다. 기업은 파산의 기로에서 허덕이고있었다.

(이제 다 나라가 없는탓이로구나!)

그럴수록 해방의 날이 일일천추로 기다려졌다.

마침 이즈음에 만주광야를 들었다놓으며 백만관동군을 전률케 한다는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에 대한 소문이 날개를 달고 퍼지였다.

박재문은 그 소식을 들으며 애오라지 거기에 마음을 지탱하고 살아갔다.

《**김일성**장군, 20대의 젊은 장수라지. 그분은 어떤분일가?》

박재문은 어쩐지 그분이 자기네 집에 찾아들어오시였던 《젊은 손님》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으로 집에 와있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아버지, 거리에 광고가 나붙었어요. 빨찌산공작원을 잡거나 신고하기만하면 거액의 현상금을 준대요.》

《그놈들이 무슨짓인들 못하겠냐.》

박재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이날 저녁이였다. 또다시 꿈을 꿨는데 먼저번과 같이 농문이 열리더니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오르는것이였다.

구름우에 《젊은 손님》이 나타나 빙그레 웃으며 손을 저었다.

《독립연에 만납시다!》

박재문은 반가운김에 어린애처럼 두팔을 벌렸으나 몸이 더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 젊은 손님!》

그를 부르려고 해도 목소리조차 씨원히 나가지 않았다.

《젊은 손님》은 구름을 타고 점점 멀리 사라지고 《독립연에 만납시다!》는 우렁우렁한 음성만이 하늘에서 들려왔다.

모지름을 쓰다가 잠을 깨니 몹시 서운했다.

(이상하다. 왜 또다시 《젊은 손님》이 꿈결에 나타나 독립연에 만나자고 다짐을 하였을가? 필유곡절이라, 가만 안팎의 일들을 채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그에겐 뭔가 짚이는데가 있었다.

(애녀석이 왜 광고에 난 현상금애길 했누?)

박재문은 곧 아들을 불러들였다.

《애야, 네 어제저녁 광고애길 할 때 기색이 좀 이상해보이던데 이 애비한테 숨기는게 있지 않느냐?》

따지고드는품이 만만치 않자 아들이 실토를 했다.

《사실은 어제 순사노릇을 하는 동무를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삼촌네 집에 낯선 사람의 출입이 잦은것 같은데 공작원으로 의심되는 점이 없나 알아보라는거예요. 일이 잘되면 우린 빚을 갚을 길이 생긴다나요.》

박재문은 아연해져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는 아들의 귀뺨을 내리쳤다.

《이 자식, 그러니 네가 그놈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꼴이구나. 말도 사람의 됨됨을 봐서 하는거야. 빨찌산공작원이라면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일텐데 나라에 공은 세우지 못할망정 역적은 되지 말랬다고 네가 어떤 큰죄를 짓자고 그러느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공부를 했다는게 속은 썩었구나. 서울로 가지 말고 여기 만주바람을 쏘이며 일이나 하거라.》

박재문은 분을 삭이느라고 황소숨을 쉬였다.

그러다가 글쪽지생각이 나서 농을 뒤져보았다.

글쪽지는 고이 간직해둔채 그대로 있었다.

(후— 이 글쪽지가 내 아들을 건져주는구나.)

박재문은 거기에 씌여진 글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이제보니 이 글은 나라가 해방되는 날까지 마음 변치 말고 살라는 뜻이였구나!

나에게 이 글을 남겨준 《젊은 손님》은 어떤분이실가?)

그는 글쪽지를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보다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래졌다. 언제 저절로 새겨졌는지 아니면 그날 써주신것을 불찰로 보지 못했었는지 글쪽지의 뒤등에 **《김일성》**이라고 위대한 존함이 새겨있었던것이다.

《아니, 우리 집에 오셨던분이 왜놈들이 그 명함만 들어도 오금을 쓰지 못한다는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단말인가!》

감동어린 박재문의 눈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던 그날이 삼삼히 떠올랐다. 그때 두번다시 차례지기 힘든 행운의 날이였건만 그분을 성심성의껏 모시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그는 무한한 존경심을 안고 글쪽지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기업은 비록 찌그러진 오막살이신세로 되였지만 천만금에 비길수없이 귀중한것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에 무쇠기둥이 세워진것처럼 든든해졌다.

박재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써주신 글쪽지를 다시 농 깊숙이 간수해놓았다. 그리고는 그후 연줄을 놓아 의연금을 보내거나 피복, 신발을 마련해보내는 등 유격대를 있는 힘껏 도와나섰다.

조선의 한울님

1936년말 일부 천도교대표들이 백두산밀영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후 이들은 장군님을 《조선의 한울님》으로 숭상하고 높이 우러러모시면서 교인들을 묶어세워 광복성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실적자료는 여러 책자들에 활자로 찍혀져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일이지만 항간에서는 그나름으로 또 다른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생겨나 구전되고있다.

어느날 저녁 천도교의 한 도정이 동학(서학인 천주교와 대립되여 나왔다는 취지에서 동학이라 함. 후에 천도교로 개칭되였다.)의 교조 최수운대신사의 초상밑에서 청수를 봉전하고 심중의 안타까움을 쏟아놓고있었다.

《아,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며 이 땅에 지상천국을 세우고자 하늘을 우러러 매일같이 주문을 외우고 도를 닦고 부적을 써왔건만 왜적의 발굽은 삼천리를 짓밟고 백성들의 아우성은 구천에 사무쳤구나.

갈수록 어둡기만한 이런 시국에 〈보국안민〉, 〈지상천국〉을 어떻게 바랄소냐. 대구장대에서 참을 당한 교조님의 령전

에 이 불초제자는 무엇으로 대답하리오.》

그의 한숨소리에 구들장이 무너질듯하였다.

천도교는 《인내천》을 교리로 하고 《보국안민》, 《지상천국》, 《포덕천하》, 《광제창생》, 《척양척왜》를 목적으로 내세운 조선민족고유의 종교였다.

이것이 죄로 인정되여 교조인 최제우는 1864년 대구감영에서 참형을 당했고 동학은 나라에서 금하는바가 되고말았다.

그러나 동학은 애국애민의 사상을 다분히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의 수는 늘어만갔다. 천도교는 드디여 불교, 그리스도교와 함께 우리 나라에 퍼진 3대 종교의 하나로 되였으며 더구나 풍산, 갑산, 삼수를 비롯한 북부지대에선 그 영향력이 자못 컸다.

천도교의 도정이라 하면 군종리원장들을 직접 장악통제하고 500호로부터 수천호까지의 교인들을 관할하는 도의 최고상층교직자로서 천도교인들속에서 그 위신이 대단하였다.

명색이 명색이요, 자리가 자리인것만큼 두 어깨우에 지워진 짐은 한량없이 무거운데 앞일은 그믐밤같이만 생각되니 도정은 그리도 속이 타는것이였다.

《애닯다! 〈척왜척양〉의 기치를 들고 파죽지세로 싸움길에 내닫던 갑오년의 전봉준동학도들은 초야에 묻힌지 이미 오래고 현세에 이르러 독립의 뜻을 움틔우던 동학당 젊은이들은 일제의 칼에 맞아 피를 뿌렸거늘 과연 분골쇄신하여 나라를 구원할 의롭고 슬기로운 교도들은 더는 없느뇨.

한울님이시여! 엎드려 빌건대 칠칠암야에 등불없이 헤매는 이 우둔한 백성을 가엾게 여기시여 우리 배달민족을 도탄에서 구원할 계시를 내려주옵소서!》

도정은 하늘에 빌고 땅에 하소하며 안타까움을 삭이느라고 오래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다.

밤도 어지간히 깊어졌다.

삼라만상이 잠에 든듯 고요한데 상우에 놓인 초불만이 꺼불거리며 그를 동무해주고있었다.

이때 문밖에서 《어험!》하고 인기척이 났다.

무아몽중에 있던 도정은 우뚤 정신을 차리며 눈을 껌벅이였다.

(이 밤중에 웬 사람일가?)

곧 주인을 찾는 말소리가 들렸다.

《주인 계십니까? 이 집이 도정님댁입니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예, 누구신지?》

도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비스듬히 열었다.

밖에 훤칠하게 생긴 사나이가 서있었다. 환하게 웃음짓고있는 인상을 보니 첫눈에 그가 호남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백두산에서 온 사람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도정님이하 천도교중책을 맡아보시는 몇분을 만나주시겠답니다.》

손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도정에게 장군님의 친서를 전했다.

사람에게 뜻밖에 큰 행운이 차례져도 기절을 한다더니 그게 사실인가부다. 도정은 **김일성**장군님의 친서를 받아보고는 목석처럼 굳어져서 오래동안 눈섭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원래 그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만백성이 독립대장수로 우러르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해서만은 마음속으로 높이 숭상하고있었다.

숭상하면서도 꺼려지는것이 있어 찾아뵙지 못하였는데 친서를 받고보니 가슴이 몹시 울렁거렸다.

(내 이제껏 공산주의를 멀리했거늘 불시에 찾아떠난다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고? 아서라, 내 어찌 불손하게 마음속 저울질을 하느냐.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자는 뜻이야 천도교의 교리와 어긋남이 아니지 않는가. 더우기 천하를 품어안으시는 넓은 도량과 인덕으로 신앙과 정견을 가림없이 불러주시는데 내 어찌 주춤거릴수 있단말인고.)

잠시 이런 생각에 잠기던 도정은 정신을 가다듬고 백두산에서 온 사람을 방안으로 이끌었다.

《아뿔싸, 이 주책없는 늙은이가 례의를 망각하고 손님을 밖에 오래 서계시게 했습니다. 루추하지만 어서 내실로 들어오소이다.》

마음씨 너그러운 백두산사람은 아무것도 흠하지 않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 도정은 손님을 따라 집을 나섰다. 그는 사방에 련락을 띄워 몇몇 종리원장들을 비롯하여 교의 하부직책을 맡아보는 사람 일여덟명에게 의논할 일이 있으니 어디에 모이라고 하였다.

도정의 지시를 받고 모여온 천도교인들은 장군님께로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일행은 백두산에서 온 사람을 따라갔다. 장군님의 부하여서 그런지 그는 늙은이들이 원로에 힘들어할세라 살틀히 보살펴주며 이끌고갔다.

누구 한사람 피곤해하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수 없었다.

오히려 갈수록 기세가 높아만지고 기분까지 충천하니 이번 길이 승천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들을 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은 어떤분이실가? 필경 백발이 성성한 로장이실테지.)

도정은 길을 걸으면서 줄곧 머리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그려보았다.

그들은 해빛도 스며들지 못하는 백두산원시림을 헤치며 험산준령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빠져 다음날 저녁녘에 마침내 골짜기가 두갈래로 갈라지는곳에 이르렀다.

빨간 노을빛에 곱게 물든 구름이 온 골짜기를 뒤덮고있어 어디부터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땅인지 경계를 알아볼수 없었다.

처음엔 그 구름이 여러가지 모양을 지어보이며 순간도 쉬지 않고 꿈틀거리더니 일행이 도착하자 마치 례의를 지키려는듯 차분히 아래로 내려앉는것이였다.

두 골짜기가 갈라지는곳에 아담한 집 한채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구름속에 가리워 볼수 없었는데 점차 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자, 저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십시다.》

백두산사람은 일행을 그 집으로 이끌었다.

그 집은 못 하나, 꺾쇠 하나 치지 않고 지은것이였다. 안팎이 티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돈되여있고 방바닥은 불을 땐것처럼 온기가 있었다.

일행은 내심 그 신비함에 탄복을 하며 조심스레 방에 들어가 려장을 풀어놓았다.

먼길에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도정은 곧 혼곤히 쪽

잠에 들었다.

이윽고 기분이 상쾌해지며 방바닥이 움씰움씰 움직이고 벽이 기우뚱거렸다. 아울러 몸이 허공에 붕 떠오르는 촉감이 들었다.

도정은 이상해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랬더니 자기가 앉아있는 그 집이 구름을 뚫고 자꾸 우로 오르는것이였다.

(아니, 이 집이 통채로 승천을 하는구나!)

그는 이번엔 머리를 내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땅세상은 이미 구름에 가리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를 천상세계로 데려가는게로구나.)

이런 생각이 든 도정은 옷매무시를 바로잡고 출입문을 마주하여 정히 앉았다.

숭엄한 감정에 사로잡혀 미지의 세계를 그려보고있는데 집은 마침내 더 오르지 않고 뚝 멎어서는것이였다. 동시에 문쪽이 환히 밝아지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다.

《도정은 어서 나와서 한울님을 마중할지어다!》

그 소리에 도정은 와뜰 놀랐다.

(한울님이라니? 그럼 내가 한울님을 뵈옵는단말인고?)

도정은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문턱에서부터 멀리 앞으로 화려한 꽃주단이 끝을 모르게 펼쳐져있었다.

(이 몸이 반백이 넘도록 목마르게 기다리던 한울님은 어디에 계실가?)

도정이 두리번거리는데 멀리 맞은켠에서 아홉마리의 룡이 끄는 수레를 타고 구름같은 흰 수염을 펄펄 날리며 한울님이

마주오고있었다.

한울님의 머리우에선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였고 한울님이 입고있는 두루마기엔 연한 안개가 서려있었다.

구룡차가 가까와지자 도정은 꽃주단우에 꿇어엎드렸다.

머리우에서 천하를 진동시키는 찌렁찌렁한 말소리가 들렸다.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여 가슴태우는 그대 마음 어여삐 여겨 내 백두천지의 물을 찍어 이 종이에 글을 새겼노라. 그러니 그대는 이걸 받아가지고가서 길을 찾아볼지어다!》

한울님은 그에게 큼직한 책 한권을 내주는것이였다.

도정은 몹시 황송해하며 엎드려 정중히 책을 받았다.

그것은 한울님이 그에게 내린 계시였는데 사항이 열가지가 되였다.

도정이 그 하해같은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한울님의 장수를 축수하여 인사를 올리려고 보니 어느새 구룡차와 한울님은 보이지 않았다.

도정은 죄책감과 서운함을 금치 못해하며 얼마동안 서있다가 방으로 들어와 종이에 새겨진 한울님의 계시를 읽어보았다. 그랬더니 실명을 했던 사람이 광명을 되찾은듯 갑자기 앞이 환해졌다.

그대로 하기만하면 《보국안민》도 《지상천국》도 다 제대로 이루어질것이 틀림없었다.

도정은 막 춤이라도 추고싶었다. 그래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그만 잠에서 깨여났다.

(아, 내가 꿈을 꾸었구나!)

그는 머리를 흔들며 몹시 섭섭해하였다. 그러다가 도정은

자기의 손에 꿈에 한울님이 내리신 계시가 적힌 책이 그대로 쥐여있는것을 보았다.

(이게 어찌된 일일가? 그러니 내가 한울님을 만나뵈온건 사실이였구나. 옛 성인들중에도 꿈에 한울님의 계시를 받은 일이 있다더니 나도 그렇게 된가부다.)

도정은 몹시 흥분되였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잠든사이 모두 밖으로 나갔는지 방안엔 자기 혼자뿐이였다.

이때 밖에서 발자국소리들이 나더니 《도정님!》하고 부르며 여러 종리원장들이 들어왔다.

도정이 그들에게 한울님의 계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의 손에도 그와 꼭같은 책자들이 있었다.

열가지 계시가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였다.

《아니, 그대들은 이 한울님의 계시를 어디서 받았소?》

그러자 종리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

《이건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온데 그분의 부하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

도정은 영문을 알수 없어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이 들고있는 책자만 바라보았다.

(한울님의 계시와 꼭 같은걸 그분이 작성하시다니?)

그가 의문을 풀지 못한채 앉아있는데 문이 열리며 길안내를 해준 사람이 들어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러 오십니다.》

알고보니 그는 장군님을 직접 모시고있는 부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신다구요?》

일행은 감격에 휩싸여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급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어느새 위대한 장군님께서 붉게 타는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온 골짜기가 환하게 웃으시며 마당에 들어서시는것이였다.

그이를 뵈옵는 순간 도정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천하제일명장으로 수많은 전설적인 이야기를 산출하신 장군님은 백발이 성성한 로장이실줄로 알았는데 뜻밖에도 활기가 넘치는 새파랗게 젊으신분이였기때문이였다.

봄날처럼 따뜻한 그이의 존안을 대하니 순간에 온몸이 후더워졌다.

장군님의 출중한 인품에 도정을 비롯한 천도교대표들은 그만 넋을 잃고말았다.

그들은 너무나도 황홀하고 눈이 부시여 한동안 홀린듯이 그이를 우러르다가 뒤늦게야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 답례하시여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나이많은분들이 먼길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도정은 높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예지가 빛발치고 기상이 나래치며 젊음이 차넘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에서 그는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았다.

장군님께서는 방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자신의 좌우명은 《이민위천》, 다시말하여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주장도 천도교의 《인내천》 주의도 다같이 사람을 믿는것이 아닌가, 그러니 사람을 믿고 묶어세워 강도 왜적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열가지조항으로 된 그 방책을 하나하나 가르치시였는데 그것은 곧 한울님의 계시와 같은것이였다.

(그러니 꿈에서 만난 한울님이자 곧 장군님이시였구나.)

도정은 장군님의 그 가르치심이야말로 천도교인들뿐만아니라 온 배달민족이 받아안은 광복대강이고 장차 지상천국으로 될 조선의 기치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장군님을 만나뵙고 돌아오던 날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고보니 나와 우리 천도교인들이 지금껏 안타까이 찾던 조선의 하늘은 백두산이고 조선의 한울님은 **김일성**장군님이시오!》

그러면서 꿈에 한울님의 계시를 받던 이야기를 하였다.

쫓겨다니는 김석원

김석원이라면 항일유격대를 《토벌》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나섰다가 간삼봉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유명한 《호박대가리》전설을 남기고 달아난놈으로 세상에 알려져있다.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놈이라면 그런 처지에 마땅히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외딴 산속에 들어가 머리를 처박고 숨어있기라도 하는게 옳을것이다.

그러나 놈은 그후에도 시침을 뻑 따고 꺽다리에 번대머리를 버젓이 사람들앞에 내밀었다니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물은 곬로 흐르고 죄는 지은대로 간다고 죄많은 그놈의 행차가 무사할수 있을소냐. 여기에 안변, 고산일대 인민들속에서 전해내려온 이야기 한두가지를 적어보자.

1. 함흥형무소에서

김석원이 어느날 함흥형무소에 나타났다.

그러자 수인들은 누구나 신경을 썼다.

검사도 아니요, 변호사도 아니요 《법》계통에서 일을 보지

도 않는 그가 왜 나타났을가?

혹시 패전의 책임을 지고 형무소에 내리먹은게 아닐가.

왜놈장교복을 입고있는것으로 보면 그런것 같지도 않았다. 허리에 권총도 찼다. 일본도가 데룽거렸다. 간수들도 고등계 형사도 모두 그에게 굽신거렸다. 그러니 그놈의 높은 《직위》는 변함이 없는것 같았다.

형무소측에선 갑자기 수인들을 마당에 집결시켰다. 김석원이 명령한것이다. 《일반범》과 《사상범》이 한데 모였다.

무슨 일이 생겼을가? 이렇게 모든 《죄수》가 한꺼번에 모이기는 처음이였다.

캄캄한 감방안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지냈던터라 그들은 눈이 부시여 앞을 볼수가 없었다.

이런 땐 눈으로 보기보다 귀로 듣기가 더 빨랐다.

앞에서 쉬여빠진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우매한짓〉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시와 긴사이쨍(김석원)각하께서 강연을 하시겠다. 주의깊게 들어라.》

군중은 술렁거렸다.

《이자 뭐라 했어? 김석원이 강연을 한다고 했지?》

한사람이 옆사람에게 물었다.

《김석원? 그놈은 간삼봉전투에서 죽었다는 말이 있던데.》

옆사람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직 목은 붙어있는 모양이야. 귀신이 강연을 하러 올수야 없잖아.》

《그놈의 말을 뭐 들을게 있을라구. 밖에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담장을 둘러친 형무소에 와서 짖어대겠다는거

겠지.》

그들의 판단은 옳았다. 조선사람으로서 왜놈군대 《토벌》 대장자리에 오른다는것은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인데 김석원은 그 《높은》 군좌에 앉아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것처럼 늘 으시대왔다. 그런데 간삼봉전투가 있은 다음부턴 그놈의 말이 어데서도 통하지 않았다.

그래 떨어진 《위신》을 조금이라도 추세워보려고 생각해낸 것이 바깥세상과 단절되여있는 형무소를 택한것이였다.

김석원이 턱을 쳐들고 연단에 올라섰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몇마디 서론을 주어섬기더니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죄는 대체 몇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는가? 세가지다. 그 한 가지는 입을 잘못 놀려 지은 구찌꾸세(《입버릇죄》라는 뜻), 다른 하나는 손버릇이 나빠서 지은 데꾸세(《손버릇죄》라는 뜻) 그리고 세번째는 남녀간의 품성이 좋지 못해 지은 마라꾸세(부화해서 짓는 죄라는 뜻)로 구분된다.》

그러면서 놈은 죄를 짓는것은 우매한데서 나온것이라느니 자기를 수양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한참 지껄이더니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는 말로 연설을 끝맺었다.

뒤켠에 앉아 듣고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강연을 잘 들었수다. 그 세가지가 옳긴 옳겠수다.》

그가 이렇게 말을 떼자 김석원은 희색이 만면했다. 놈은 걸상등받이에 웃몸을 젖히며 물었다.

《그런데 모를것이 있는가?》

그 사람은 기침을 한번 하고나서 대답을 했다.

《모를것은 하나두 없수다. 다만 그 강연을 듣고보니 잘못

된 처사가 있수다.》

놈은 더 으쓱해졌다.

《음, 그런 잘못된것을 찾아내고 고쳐야 한다.

그래 무엇이 잘못되였는지 말해봐라.》

《죄는 대체 입버릇죄, 손버릇죄, 부화하는 죄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상범이요. 말을 잘못한것도 없고 도적질한것도 없고 부화한 일도 없소. **김일성**장군님께서 보천보와 간삼봉전투에서 왜놈들을 통쾌하게 족치시였다는 소문을 듣고 백두산을 찾아가다가 잡혔소.

말하자면 당신네들과 생각이 달라 잡혀왔소.

그런즉 우리는 그 세가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죄인이 아니지 않소. 우릴 잡아가둔건 잘못된 처사라고 보오.》

그러자 김석원이 갑자기 총에 맞은놈처럼 굳어졌다. 입이 실룩거리고 볼따귀가 푸들거렸다.

《뭐라구?》

놈은 발악적으로 소리를 치며 일어섰다. 떨리는 손이 권총집을 거머쥐였다. 당장 쏠 기세였다.

그러다가 총을 뽑지 못한채 놈이 막대기처럼 꿋꿋해졌다. 경련을 일으킨 모양이였다. 눈알이 굴지 않고 입이 삐뚤어졌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형사들은 그들을 진정시키느라고 《주시! 주시!》(일본말로 조용하라는 뜻) 하며 고아댔다.

김석원이 몸뚱이를 가누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려 하자 형사들이 부축해서 안으로 끌고들어갔다.

수인들속에서 폭소가 터졌다.

《임자가 **김일성**장군님이야기를 꺼내니까 김석원이 순간에 기가 질리더군.》

《**김일성**장군님의 성함만 들어도 꿋꿋해지는걸 보니 그놈이 장군님한테 혼쌀이 나두 단단히 난 모양이야.》

수인들은 통쾌감을 금치 못해하였다.

2. 안변으로 가다가

한번은 김석원이 《지원병》을 모집하려 안변으로 가게 되였다. 졸병을 다 잃었으니 머리수를 채워야 했기때문이였다.

때는 벼가 누렇게 익고 감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 가을이였다.

이번 길에 일이 잘되기를 바라며 김석원은 함께 따라가는 호소까와대위에게 말을 걸었다.

《고향길을 걷는 기분이로군. 나는 〈공산군〉과 회계를 끝내고선 고향집에 돌아가 편안히 정원을 가꾸며 살겠소.》

호소까와대위는 응답이 없었다. 그는 뒤전에 앉아 《얻어맞는 주제에 회계를 끝내겠다니 무슨 망상이냐.》하는 속생각을 하고있는것이였다.

김석원은 일부러 자기가 지금 목가적인 기분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보이려고 차에서 내려 들길을 걸으며 음정도 맞지 않는 코노래까지 불렀다.

길가에 초가집 대여섯채가 있었다. 그중 한 집마당에서 아

이들이 놀음에 정신을 팔고있었다.

그곳을 바라보며 걷던 김석원이 갑자기 《가만, 저애들이 왜 나무가지에다 활을 쏘는거야?》 하더니 호소까와에게 좀 가까이 가보자고 했다.

예닐곱살 돼보이는 아이들이 자작 만든 활로 감나무에 달린 작은 열매를 쏘아맞히기내기를 하고있었다.

화살로 열매를 맞힌 아이는 《맞았다!》 하고 손벽을 치며 좋아했다.

다른 때같으면 그런것에는 눈도 돌리지 않을 김석원이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야! 야! 열매는 왜 쏴떨구는거냐? 그건 나쁜짓이다.》

그러자 열매를 맞히고 좋아하던 애가 당돌하게 대꾸했다.

《우린 활에다 도를 닦아주어요. 내 활은 저 열매를 맞혔으니까 도가 찼어요.》

《도가 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김석원은 애의 말뜻을 리해할수 없었다.

《어른이 그런것도 모르나요? 백두산에서 싸우시는 **김일성**장군님은요 허리에 참대칼을 차고 다니시는데 그 참대칼은 도가 차서 저 황룡산(안변읍 뒤산)같은 큰 산도 뭉청 베버린대요. 그래 왜놈들이 무서워 벌벌 떤다나요.》

그 애의 말에 다른 애들도 겨끔내기로 재잘거렸다.

《**김일성**장군님의 때때권총은 왜놈들 대포보다도 더 쎄대요.》

《**김일성**장군님께서 돌멩이를 잡았다 던지시면요 왜놈들 폭탄보다도 더 무섭대요. 그건 다 도가 차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활에 도가 찼나 보려고 쏴볼내기를 해요.》

아이들은 김석원이 어떤놈인지 알리 없었다.

그래 어른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자랑스럽게 엮어댔던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김석원이 아무 대꾸도 없었다. 갑자기 벙어리가 되였는가? 아니면 귀가 먹었는가?

뜻밖에도 조무래기들의 입에서 **김일성**장군이야기가 나오자 그놈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눈알이 뒤집혀 흰자위만 가득했다.

아이들은 그 모양이 꿈에 본 도깨비를 련상시켰던지 무서워 우르르 달아나버렸다.

이윽고 겨우 정신을 차린 김석원은 다리맥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다.

《돌아가자.》

놈은 호소까와를 돌아보며 풀죽은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차에 올라 급히 그곳을 떠나고말았다.

(**김일성**장군이 도처에서 나를 골탕먹이는구나!)

그놈의 팔다리는 여전히 풍을 만난것처럼 제멋대로 떨고있었다.

신기한 덧저고리와 이상한 도끼

옛날에 신령스러운 힘을 빌은 어떤 사람이 손으로 돌을 잡았다놓으면 그것이 금덩이나 보석으로 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원래가 령험하신분이여서 그이께서 쓰시였거나 한번이라도 잡았다놓으신 물건은 모두 신기한 힘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것도 돌이 금으로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값지고 신통력을 가진 물건으로 된다는것이다.

인민들속에서 전해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자면 수없이 많다.

여기에 이천군에서 사는 한 로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정리한다.

1930년대 어느해의 몹시 추운 겨울날이였다.

허리까지 치는 눈을 헤치며 한 젊은이가 수림속을 가고있었다. 그에겐 털모자도 없었다. 솜옷도 걸치지 못했다. 바지저고리는 다 해져 너불거리고 머리에 동여맨 수건은 겨우 귀나 가리울 정도였다.

힘이 진한데다 밑을 알수 없는 눈길이여서 서너발자국도 제

대로 걷지 못하고 이쪽으로 자빠지고 저쪽으로 넘어졌다.

북만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사는 길복이라는 젊은이가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를 찾아가는 길이였다. 얼마전에 유격대가 자기네 마을에서 멀지 않은 성시의 왜놈들을 쳤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인차 떠났으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그래 백두산쪽으로 가느라면 만날수 있겠거니 하고 걷기 시작한것이 며칠째 할바령의 깊은 수림속에서 헤매고있었다.

그사이 곳곳에서 길목을 지키고있는 왜놈들에게 들켜 몇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랐다. 아마도 놈들은 그를 유격대원으로 아는 모양이였다. 이러나저러나 잡히면 졸경을 치를건 뻔한 일이였다.

놈들의 눈을 돌려보려고 허줄한 솜옷마저 벗어던지고 토끼털귀걸이도 풀어버렸다.

그런데 이해 겨울은 어찌나 심술이 사나운지 땅에 눈을 석자씩이나 깔아놓고도 대기중에 유리가루와 같은 서리꽃을 뿌려놓았다.

나무들은 쩡쩡 얼어터지는 소리를 내고 털가진 짐승들도 얼씬 바깥출입을 안했다.

얼굴은 바늘로 찌르듯 때끔거리고 발은 이미 제것이 아닌것 같았다. 길도 모르고 어방대고 하늘을 쳐다보며 향방을 잡고 가는 형편이라 이러다 눈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얼어죽고말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맹세코 장군님의 품을 찾아가겠다고 떠난 길이라 돌아서고싶은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길복이 이를 악물고 눈길을 헤쳐가는데 뜻밖에도 앞에 자그마한 산막이 나졌다.

《웬 산막일가?》

비록 자그마했으나 눈속에 묻힌 산막은 옛이야기에 나오는 신선이 사는 집과도 같이 황홀하게 보였다. 어쨌든 거기서 신선이 살든 도사가 살든 길복은 무작정 그리로 들어갔다.

《주인 계십니까?》

길복이 밖에서 두세번 불러보았으나 안에선 응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방안에 손때묻은 헌 궤짝 한개와 낡은 이부자리 한채가 있었다.

길복은 몸을 좀 녹여가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래목을 짚어보니 식긴 하였으나 불을 끈지가 그리 오랜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부엌에 나가 아궁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는 아궁앞에 바투앉아 게걸스럽게 불을 쪼였다.

얼었던것이 풀리자 손끝, 발끝이 저려났다. 그 아픔 또한 강추위에 못지 않았다.

길복은 방안에 들어가 아래목에 누웠다. 방바닥은 미지근해나는데 방은 추웠다. 주인의 승낙을 받지 못해 마음에 걸렸지만 이부자리를 내리덮었다. 그리고는 온갖 피곤이 몰려와 다음날 아침까지 내처 자버렸다.

주인은 밤사이에도 오지 않았다. 산막주인을 만나면 길이라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걸 보니 코집이 틀렸다.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생겨 이 집을 아예 버리고 간게 아닐가? 사람이 죽지 않고 살면 서로 만날 날이 있다는데 값은 후에 치르더라도 걸에 껴입을 옷이든지 먹을게 있으면 좀 가지고가자.)

길복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구석에 있는 궤짝을 들추어보았다.

헌 넝마들만 나올뿐 변변한게 없었다. 그러더니 맨밑에 하

야 초지에 싼것이 나타났다.

길복은 초지를 헤쳐보았다. 거기에는 차곡차곡 접어놓은 깨끗한 덧저고리와 이상하게도 날이 새파랗게 선 도끼 한개가 있었다.

그는 덧저고리와 도끼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망설이다가 그것들을 꺼냈다.

《주인님, 용서하시우.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데 옷주제가 말이 아니여서 덧저고리를 내가 입고 갑니다. 그리고 이 도끼는 가다가 왜놈 한둘쯤 만날 때에 써보자고 그럽니다. 우리 나라가 해방되면 값은 후하게 드리리다. 내 이 골짜기를 잘 기억해두겠시다.》

길복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덧저고리를 껴입고나서 허리춤에 도끼를 찼다.

마침 방구석에 감자가마니가 있어 그것을 몇알 구워서 보따리에 쌌다.

《이러고보면 내가 길복이 있단말이야. 아버지가 내 이름을 길복이라고 잘 지어주셨거든.》

길복은 다시 눈길을 헤치며 밀림속을 걸었다.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몸은 훈훈해났다.

이젠 천리라도 내처 걸을것 같았다.

산막을 떠나 산속으로 퍼그나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다.

《서라!》

갑자기 뒤에서 목구멍이 째지는듯한 고함소리가 들렸다.

그가 홍뜬김에 주의하지 못한탓인지 경찰 대여섯놈이 그를 먼저 발견하고 따라오고있었던것이다. 두툼한 털외투에 귀덮개가 달린 털모자를 쓰고 등에 배낭까지 진걸 보아 여러날째 수림속을 싸다니는놈들 같았다.

길복은 그 땅까마귀(경찰)들을 떨구어놓으려고 힘껏 앞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눈길이여서 내닫는다는것이 보통때의 빠른 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놈들은 총을 쏘아대며 검질기게 따랐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냥감》을 기어코 놓치지 않을 잡도리였다.

앞에 작은 등성이가 나타났다. 그쪽엔 눈이 가슴을 쳤다.

겨우 등마루에 오른 길복은 발을 헛디디며 옆의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고말았다. 거기엔 눈이 어찌나 쌓였던지 키를 훨씬 넘었다.

그런데다 헤여나려고 허우적거렸더니 꼭대기에서 눈사태까지 밀려내렸다.

길복은 눈속에 묻혀 나올수가 없었다.

경찰놈들도 매한가지였다. 길복이를 따르다가 그놈들 역시 아래로 굴러떨어져 눈속에 묻혔다.

서로 접근할수도 헤여나올수도 없었다.

놈들을 피하기엔 차라리 잘되였다는 생각이 든 길복은 숨을 쉴수 있게 머리우에만 구멍을 내놓고 눈속에 가만히 엎드려있었다.

경찰놈들은 저마다 뭐라고 꽥꽥 소리를 지르더니 얼마후엔 잠잠해졌다. 놈들도 맥이 빠져 구석구석에 틀어박혀있는 모양이였다.

(이러다간 눈속에서 얼어죽고마는게 아니야?)

길복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순간이였다. 몸이 자꾸만 후더워나는게 조금도 춥지 않았다.

눈속이여서 그럴가? 결코 그런것 같지는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입고있는 덧저고리에서 후끈후끈 열이 났다. 길이도 좀 길어진 감이 들었다. 덧저고리를 입은채 누우니 제법 불 땐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운것 같았다. 그는 소룻이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도 이따금 깨여나 배가 고프면 감자를 한두알씩 꺼내 먹었다.

이럭저럭 그는 눈속에서 사흘을 보냈다.

이틀째 되는 날까진 놈들의 목소리가 간간이 들리더니 이젠 아예 기척이 없었다.

길복은 가던 길을 계속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후끈후끈한게 몸에서 김이 물물 났다.

덧저고리가 눈에 흠뻑 젖었겠구나 하고 벗어보니 어찌된 일인지 거기엔 눈 한덩이 묻지 않았다. 참 신기한 덧저고리였다.

그런데 키를 넘는 눈속이여서 헤여나가는것이 문제였다. 그사이 눈은 다져지고 굳어져 삽같은것으로 파지 않으면 나갈수가 없었다.

손으로 헤집자면 어방도 없었다.

길복은 허리에 찬 도끼생각이 났다. 세상에 나서 도끼로 눈을 친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지만 그는 도끼를 뽑아들고 앞으로 휘휘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참 그 도끼 역시 보통도끼가 아니였다. 한두번 휘두르는사이에 삽장만큼 커지더니 순식간에 량옆으로 눈을 날려버리는것이였다.

이렇게 스무발자국가량 헤쳐나오니 경찰 다섯놈이 달팽이처럼 꼬부리고앉은채 까딱하지 않고있었다. 이미 꽛꽛하게 얼어죽었던것이다. 털외투에 털모자, 털신, 그 차림새가 아무리 굉장하다 하더라도 길복이가 입은 덧저고리만큼 몸을 덥혀주진 못했던것이다.

길복은 그놈들이 가지고있는 총을 다 벗겨서 어깨에 메였다.

《이렇게 되니 장군님을 뵈올 면목이 서게 됐는걸. 여보게들, 안됐네. 난 총만 가지고 가겠네.》

그는 경찰놈들의 몰골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고나서 골짜기를 내렸다.

그런데 승냥이를 피하자 사자가 나선다더니 갑자기 그의 앞에 누런 옷을 입은 왜놈들 열댓놈이 나타났다.

이번엔 피할길이 없었다. 할수없이 잡혀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길복은 가까이 오면 한두놈이라도 제끼리라 마음먹고 아름드리나무밑에 앉아있었다. 총은 있어도 그는 쏠줄을 몰랐다.

놈들은 그가 반항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자 생포하려는 심산이였던지 총 한방 쏘지 않고 한치한치 가까이 접어들었다.

놈들이 원을 짓고 그의 주위에 좁혀들어올 때였다.

《이놈들아!》

길복은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 도끼를 휘둘러댔다. 그러자 도끼날에서 시퍼런 빛이 나면서 윙윙 소리를 냈다.

불의의 타격에 《악악》 놈들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길복은 자기가 도끼를 휘두르는지 도끼가 자기를 끌고 돌아가는지 가늠할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는 장수마냥 놈들에게로 몸을 날렸다.

순식간에 열댓놈이 총도 몇방 쏴보지 못하고 너부러졌다.

길복은 숨을 돌리며 도끼를 들여다보았다. 보기엔 보통도끼와 다름없는데 휘두를 땐 그리도 신기한 힘을 내다니,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틀림없이 산막주인이 도술을 부리는 유명한 도사인가부다. 그런 사람이 입고 쓰는 덧저고리와 도끼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신기할수 있나.)

그는 다시 도끼를 허리춤에 소중히 간수했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놈들이 가지고있던 총들을 다 그러모았다.

먼저것과 합치니 한짐에 지기가 힘에 부쳤다. 그래 몇자루는 눈을 헤치고 락엽속에 감추어두고 질수 있는만큼 줿어지였다.

그런데 다시 길을 가자니 방향을 잡을수가 없었다. 날이 흐리여 해도 보이지 않았다.

할수없이 어림짐작으로 등성이 하나를 넘었다.

그리고 얼마쯤 눈을 헤치며 가느라니 앞에 또다시 산막 한채가 나졌다.

(저건 또 웬 산막일가?)

길복은 총들을 나무뒤에 세워두고 그 산막으로 갔다. 가까이 가보니 먼저 들렸던 산막이였다. 산속에서 한바퀴 빙 돌아 제자리로 다시 온셈이였다.

(별나겐 됐군. 어쨌든 좀 쉬여가자.)

길복은 마치 그 산막이 제 집이기라도 하듯이 눈을 툭툭 털고 문을 열었다. 그러다 그만 그 자리에 굳어졌다.

방안에 한 로인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있었던것이다.

산막주인이 도사가 틀림없다고 생각된 길복이 당황해하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로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로인님은 왜 우십니까?》

로인은 그의 물음에는 대답을 안하고 머리를 돌려 길복이가 입고있는 옷을 유심히 보는것이였다.

그제야 아차 생각이 난 길복은 방에 들어가 얼른 덧저고리를 벗었다.

《로인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인도 없는데서 이 덧저고리를 꺼내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끼도…》

그는 로인앞에 도끼까지 내놓았다.

로인은 그걸 보더니 안도의 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 같지 않게 얼굴에 환한 웃음을 피우는것이였다.

《에끼, 이 사람. 난 이것때문에 3년은 감수했네. 임잔 도대체 뭘 하러 다니기에 이걸 꺼내입었댔나?》

길복은 로인이 결코 나쁜 사람같지 않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로인은 다시한번 기뻐하면서 길복이의 두손을 덥석 잡았다.

《그렇다면 잘한 일일세.》

길복은 그러는 로인이 고마왔다.

하다면 이 로인은 어떤 로인이며 신기한 덧저고리와 도끼는 어데서 났을가?

길복은 로인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았다.

《이 덧저고리와 도끼는 대를 두고 전할 가보일세.》

로인은 이렇게 서두를 떼더니 칠팔년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로인네는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자그마한 농촌마을에서 살았다고 한다. 식솔이라곤 아들 하나에 딸 하나까지 셋이였다.

그런데 어느날 오매에도 그리던 **김일성**장군님께서 멀리 왜적을 치러 가시는 길에 대원들과 함께 로인네 집에서 하루밤을 류하시게 되였다고 한다.

장군님께서는 밤깊도록 로인네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더니 이른 아침 주인이 깨여나기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뜨락을 깨끗이 쓸어주시고 손수 도끼를 들고 나무까지 무드기 패주시였다.

로인이 만류했으나 장군님께서는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며 패놓은 장작을 차곡차곡 가려주기까지 하

시였다.

사실 주인집에서는 아무것도 대접해드린게 없어 죄스러워하는데 장군님께서는 오히려 폐를 많이 끼쳤다고 하시더니 《제 보기엔 로인님이 바깥출입을 하재도 입을 옷이 변변히 없는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것이 뭐 별로 없습니다. 성의로 아시고 이 덧저고리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시며 단벌밖에 없는 자신이 입고계시던 덧저고리를 벗어주시는것이였다.

그러시면 안된다고 아무리 받지 않으려 했으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기어코 그 덧저고리를 로인에게 입혀주시였다.

로인은 그이의 덕망에 목이 메여 눈물만 흘렸을뿐이였다.

그 사랑, 그 은정을 순간도 잊을수 없는 로인은 아들딸이 자라자 둘다 장군님의 유격대에 보냈다. 그리고 자기는 왜놈들의 행패를 피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멀리 이곳에 와서 산막을 짓고 살게 되였다고 한다.

《바로 이 덧저고리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입으시였던 은정깊은 덧저고리일세. 그리고 이 도끼는 그때 장군님께서 나무를 패시던 그 도끼야.

소문을 들으니 장군님은 하늘이 낸 령험하신분이여서 그이께서 쓰시였거나 만지시였던 물건은 무엇이나 다 신기한 힘을 가진 령물이 된다더군. 그래서인지 아무리 맵짠 겨울날에도 이 덧저고리를 입고 밖에 나가면 불을 땐 방안에 있는것처럼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른다네. 그리고 이 도끼로는 아무리 굳은 나무라도 못패는게 없어. 아름드리나무도 단번에 넘어뜨린다네. 금을 주고도 못살 이런 귀중한 보물이어늘 내가 마을에 내려갔다오는 사이에 없어졌으니 얼마나 애가 탔겠나. 난 죽고싶

은 생각까지 들더군.》

로인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줄곧 덧저고리와 도끼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것이였다.

길복은 자기가 큰 실책을 했다는걸 느꼈다.

(아, 로인이 도사인게 아니라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이 깃들어있어서 덧저고리와 도끼가 그렇게도 신비스러웠구나. 과연 **김일성**장군님은 어떤분이실가?)

그는 한시바삐 로인네 산막을 떠나려 했다.

로인이 그를 붙잡아앉히고 마을에서 얻어왔다는 얼마 안되는 쌀로 밥을 지어주었다. 그러더니 덧저고리와 도끼를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임자가 **김일성**장군님께로 간다니 이 덧저고리를 입고가게. 그리고 도끼도 차고가라구. 놈들과 맞다들면 도움이 될걸세.》

그러나 길복은 절대로 그것을 받을수가 없었다.

《로인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보물은 로인님이 간수하십시오. 저에게는 총이 여러자루 있습니다. 그것만 다룰줄 알면 됩니다.》

로인은 그가 한사코 뿌리치자 속옷이라도 더 껴입으라고 내주고는 멀리까지 길안내를 해주었다. 그리고 유격대원들이 총을 다루던것을 본 기억도 있어서 길복이에게 총쏘는법도 대주었다.

길복은 새힘을 얻고 길을 떠났다.

그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 자기의 소원대로 유격대원이 되였고 다음해에는 산전막의 그 로인을 다시 만나게 되였는데 로인은 그때까지도 일구월심 장군님의 사랑이 깃든 덧저고리와 도끼를 정히 간수하고있었다고 한다.

기묘한 작전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변만화하는 유격전법에 의해 《무적황군》이라 자랑하던 일제는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나서 《공산군의 전략전술은 참말 귀신이 곡할 일이다. 어느 병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병법〉으로 전쟁을 한다. 그들은 황군의 정규작전과는 조금도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항하기때문에 제일 곤난하다.》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작전을 구상하고 들부셨길래 《공산군을 소멸》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쪽발이들을 그렇게도 대경실색하게 만드시였을가?

금야군 긴제리에서 살다가 93살에 별세한 강로인은 자기가 만주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면서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설을 들려주었었다.

자그마한 부대의 독립군두령을 하다가 패하고 무송현의 어느 깊은 두메산골에서 사는 최가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그를 여전히 최두령이라고 불렀다.

총칼을 번뜩이며 의기남아의 용맹을 떨쳐보이던 때가 언제였던가싶게 화전을 일구고 사는 그의 몸에서는 무사다운 흔적

이 사라진지 오랬다.

그런데 집에만 붙어있던 그의 엉치가 갑자기 들썩거리기 시작하였다. 손에서 잠시도 놓지 않던 호미를 집어던지고 그는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며 돌아가는 소문을 듣느라고 온 정신을 팔았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유격대가 그곳에서 멀지 않는 성시를 들이쳐서 왜놈들을 몰살시켰다는 통쾌한 소식이 들려와 그의 마음을 든장질해놓았던것이였다.

자고나면 새 소식이요, 듣고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군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선 어떤 전법을 쓰시길래 강적 왜놈들을 송사리떼 몰아잡듯 하시는걸가?》

최두령은 지난날 패전을 거듭하던 자기네 독립군시절을 돌이켜보며 장군님께서는 누구도 모르는 신기한 방법으로 작전을 하시는게라고 생각하였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작전을 구상하실가?

그가 이런데 더 신경을 쓰게 되는것은 이러나저러나 자기도 한 반일부대의 두령으로서 싸움때마다 늘 작전에 머리를 쓰던 일이 체질적인 습관으로 되여버린데서 오는것이였다.

최두령은 이웃마을들은 물론 멀리 도회지들에까지 찾아다니며 알아보았다.

그러던중 아래마을의 한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별자리를 보고 작전을 하신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시고요? 그러니 점성술을 하시는게 아닐가요?》

《천만에, 점성술과는 다르답니다. 장군님께서는 전투를 앞둔 밤이면 대원들을 푹 쉬라고 잠재워주시구선 밖으로 나가신

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신대요. 하늘에선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리며 장군님을 내려다본답디다. 그 별들도 사람처럼 다 이름이 있다누만요. 옛날 로인들의 말이 사람 하나 생기면 별도 하나 생긴답디다. 헤아릴수없이 많고많은 그 별들가운데서 제일 크고 밝은 별은 장군별이래요.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별이란말입니다. 그 주위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그분의 부하들이구요.

장군님께서는 은하수를 압록강이나 두만강처럼 여기시고 어느어느 산을 넘고 어느어느 골짜기로 빠져서 강을 건너가 왜놈들을 쳐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며 장군별을 보신답니다. 그러면 장군별은 자기도 동감이라는듯 더 밝은 빛을 뿌리군한답니다.

아울러 무수한 별들은 군사가 움직이듯 그분의 구상에 따라 움직여보인대요.

이렇게 구상하신 작전대로 전투를 하시여 언제나 이기군한답니다.》

《과시 장군님께서만 하실수 있는 작전법입니다. 그러니 온 하늘이 그분의 작전도이구만요.》

최두령은 감탄해마지 않았다.

그는 이날저녁부터 별이 총총한 밤이면 밖에 나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군하였다.

마누라가 령감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물었다.

《령감, 요즘 정신이 좀 돈게 아니요? 왜 하늘만 멍청하니 올려다보우?》

그러면 최두령은 대답했다.

《가만 있어. 나도 **김일성**장군님처럼 별을 보고 작전을 좀 해보려구그래.》

하지만 아무리 올려다보아도 별들은 그 모양그대로만 보일뿐 아는체를 안했다.

마누라가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아무나 그럴수 있다면 패하는 군사가 없겠수다.》

(정말 마누라의 말대로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는게 아닌가부다.)

이런 생각이 든 최두령은 장군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작전을 하실가 해서 그밖에도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식과 월식을 리용해서 작전을 하신다는 이야기, 낚시질을 하시면서 작전을 하신다는 이야기, 실로 출중하신 장군님이시니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고많았다.

이렇게 되자 최두령은 자기눈으로 직접 장군님께서 어떻게 작전을 하시는가를 한번만이라도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는 인차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될상싶지 못한 생각은 아예 하지두 말자.》하고 제 생각을 털어버리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이 외진 두메산골마을에 경사가 났다. 오매에도 그리던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쪽으로 나가시는 길에 대원들과 함께 이 마을에서 하루밤 류숙을 하시게 되였던 것이다.

헤여졌던 부모처자를 만난들 이보다 더 반가우랴. 최두령과 마을사람들은 며칠몇달이라도 장군님곁을 떠나지 않으려는듯

그이의 둘레에 떡 늘어붙어앉아 우렁우렁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들었다.

야삼경이 지나서야 최두령이 《장군님, 만리험로에 피곤인들 얼마나 쌓이셨겠습니까? 저희들이 욕심만 차리며 너무 무례한것 같은데 이젠 침상에 드십시오.》하고 말씀올리며 청중들에게 아쉽지만 어서 돌아들 가자고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말씀하시였다.

《아버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가슴을 헤치고 이야기를 나누고나면 아무리 겹쌓인 피로도 다 풀립니다. 밤도 깊었는데 제가 오히려 폐가 된것 같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기며 집으로들 돌아갔다.

이날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최두령의 집에서 류하시게 되였다.

최두령은 가난한 살림이라 그이께 변변한 이불 한채 펴드리지 못하는것이 가슴에 걸렸다.

최두령은 끓어오르는 흥분으로 하여 온밤 잠을 들수가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장군님께서 계시는 방에서도 불이 꺼지질 않았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시나? 혹시 별자리를 보시려 밖으로 나가신게 아닐가?)

최두령은 또다시 장군님을 뵙고싶은 생각이 머리를 쳐들어 견딜수가 없었다. 그래서 례의에 어긋나는 일인줄 알면서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살그머니 아래방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고 한 부하장수

와 마주앉아 작전계획을 짜고계시는데 그야말로 참 신기스러웠다.

장군님께서는 방바닥에 커다란 백로지 한장을 펴시더니 호주머니에서 당콩을 한줌 꺼내여 그우에 뿌려놓으시였다.

최두령은 처음엔 두분이 바둑을 두시려는가 생각하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손바닥을 아래로 가게 하시고 허공중에서 한번 휘— 동그라미를 그으시자 당콩들이 모두 움직이는 군사로 변하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돌격앞으로!》하고 작게 구령을 주시였다. 그러자 작은 군사들은 제가끔 자기 방향대로 움직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부하장수를 마주보시며 뜻있는 웃음을 지으시였다. 작전수립은 다 끝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손바닥이 아래로 가게 하시고 허공중에서 종이우에 동그라미를 그으시였다. 그러자 작은 군사들은 다시 당콩으로 변하였다.

그이께서는 이윽고 당콩을 호주머니에 넣으시고 백로지를 둘둘 마시였다.

(히야! 저렇게도 신기한 방법으로 작전을 하시다니! 알고보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전을 하실 때부터 벌써 신기한 술법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천변만화의 전법이 생겨나누나!)

최두령은 자기 혼자만 본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전송을 받으시며 마을을 떠나가신 후 남녀로소가 다 모인 자리에서 성수가 나서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이야기 뒤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참으로 **김일성**장군님은 불세출의 명장이시요. 그분의 신기한 작전법은 어느것이나 상상을 초월하는것들이요. 우리 백의동포는 미구하여 해방의 날을 보게 될것이요.》

김일성장군님께서 마을을 떠나가신 후 백초구에서, 무산지구에서 그리고 대마록구, 홍기하에서 장군님의 유격대가 강도 일제놈들을 요정내시였다는 소식이 연해연방 전해졌다.

그때마다 최두령은 마을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사실을 궁지높게 이야기하군하면서 천하에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작전법으로 전투를 계획하시고 부하들을 이끄시는 **김일성**장군님앞에서는 그 어떤놈들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통쾌하게 이야기하군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유격대를 도와 자기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 바쳤다고 한다.

달라진 꿈

밤은 소리없이 아동단학교에 찾아들었다. 류창하던 노래소리도 재잘거리던 말소리도 이미 그친지 오래다.

고즈넉한 정적이 차분히 방안에 깃들었다. 쌔근쌔근 아이들의 숨소리만이 들린다.

아동단지도원 윤희는 잠든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밤에는 아동단학교를 부모없는 아이들의 숙소로 쓰고있었다.

세워진지 며칠 되지 않아 불비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병실바닥엔 피나무껍질을 깔았다. 그래도 애들은 적구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해 그런지 취침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잠들었다.

열여섯살 어린 나이에 아동단을 책임진 윤희는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며칠째 매일 서너시간을 자나마나 하였다. 5분이 멀다하게 모포를 차버리는가 하면 때없이 잠결에 《으앙—》울음소리를 내는 아이도 있었다.

더우기 이상스러운것은 일곱살짜리 순금이라는 애였다. 그는 하루저녁도 잠꼬대를 안하는적이 없었다. 윤희는 구석쪽에 꼬부리고 누웠다가도 늘 그 아이의 잠꼬대소리에 깨여나군하였다.

이날도 아이들의 잠자리를 돌아보던 윤희는 또 순금이의 잠

꼬대소리에 놀랐다.

《엄마! 엄마야—》

아이의 팔다리가 파들파들 떨리고 눈굽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금아, 왜 그러니?》

윤희는 그를 가볍게 흔들었다.

순금이는 눈을 뜨더니 일어나며 윤희에게 와락 안겼다.

《선생님.》

그리고서는 흑흑 흐느껴울었다.

《애야, 너 나쁜 꿈을 꾼게로구나.》

윤희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왜놈들이 엄마를 붙잡아갔어요. 엄마를 불타는 집에 가두어넣었어요. 엄마—》

아이는 또 흐느껴울었다.

《됐다. 그쳐라. 넌 꿈을 꾸었다.》

윤희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순금이는 적구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희생된 자기의 부모들의 최후를 알지 못하고있는 불쌍한 애였다. 그런데 꿈에 제 나름대로 엄마아빠가 나타나는 모양이였다.

순금이는 윤희의 품속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저녁이였다.

한밤중이 되자 순금이는 또 신음소리를 냈다.

윤희가 급히 가보았더니 몸을 비틀며 알릴락말락하게 《저놈, 저놈이…》하고 소리를 내는것이였다. 가위에 눌린 모양이였다.

윤희는 그를 흔들어깨웠다.

그러자 순금이는 눈을 빠금히 뜨더니 아동단지도원과 방안

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그곳이 아동단학교라는것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순금이는 꿈에 왜놈들이 따라오며 총으로 쏘는바람에 자기는 죽었댔다고 말하였다.

《일없다. 우리 유격구엔 왜놈들이 없잖느냐.》

이렇게 안심시켜주면서도 윤희는 한숨을 쉬였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꾸지 않게 할가?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큰 불행을 당한 애들인데…)

그 불행은 영원히 그런 무서운 꿈으로 아이들을 괴롭힐것이다.

윤희는 안타까왔다. 어찌할 방도가 서지 않았다.

그 다음날 저녁에도 윤희는 미리 그런 걱정이 앞서길래 아이들의 꿈을 좀 돌려보려고 잠자기전에 우스개소리를 서너마디 해주었다. 아이들은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우스워 눈물을 찔끔 짠 아이도 있었다. 그런 다음에 《동무들, 이젠 잡시다.》 하고 구령을 주었다.

윤희의 말에 모두들 잠자리에 누웠다.

얼마동안은 방안이 쥐죽은듯 조용했다.

(내가 웃겨준게 은을 냈을가?)

윤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밤중이 가까와오자 또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의 잠꼬대소리가 들렸다.

(아이구, 그것도 소용없구나.)

윤희는 그들에게로 다가가 어머니들이 하는것처럼 토닥토닥 다독여주었다.

이때였다. 밖에서 조용히 인기척이 나더니 방문이 열렸다.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던 윤희는 뜻밖에 차례진 감격적인 사실앞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오매에도 그리던 **김일성**장군님께서 들어서시는것이였다.

《장군님!》

윤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올리고는 아이들을 깨우려고 하였다.

장군님께서 윤희를 말리셨다.

《단잠에 들었겠는데 깨우지 마오.》

장군님께서는 아이들의 잠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시였다. 그분을 따라 유격대중대장이 함께 왔다.

장군님께서 이날 멀리 싸움길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이곳유격구에 들리시게 된 때는 이미 밤이 깊어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고 부모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보고싶다시며 자정이 넘었으나 이렇게 아동단숙소를 찾아주시였던것이다.

따사로운 사랑의 빛이 자기들에게 뿌려지고있는줄도 모르고 애들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뒤척거리며 자고있었다.

그이께서 순금이앞에 이르시였다.

(오늘저녁만은 조용히 자거라. 장군님께서 걱정하실라.)

윤희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런데 순금이는 자꾸만 꼼지락거리더니 신음소리에 가까운 잠꼬대를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잠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시였다.

《애가 꿈자리가 나쁜 모양이군. 다른 애들도 잠꼬대를 자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장군님!》

윤희는 애들이 자꾸만 무서운 꿈을 꾸군하는데 순금이가 좀 더하다고 말씀올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방바닥에 깐 피나무껍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바닥에 피나무껍질을 깔았으니 얼마나 배기겠소. 잠자리가 불편하면 사나운 꿈을 꾸게마련이요. 잠자리가 편해야 단꿈을 꾸지.》

그리고 순금이를 바로 눕혀주시면서 아이들이 다리를 꼬부리고 자면 꿈에 호랑이를 만나도 뛸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잠자리를 잘 보살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다음날 이곳 유격구를 떠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였다.

짐을 가득 실은 마차 한대가 아동단학교마당으로 들어섰다. 마차에는 신발과 공책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품과 함께 곱게 결은 구름노전이 실려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곳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시는 선물이였다.

방에 깔았던 피나무껍질을 걷어내고 새 구름노전을 까니 자로 잰듯 방안에 꼭 맞았다.

아동단원들은 너무도 기뻐 그우에서 콩당콩당 뛰며 손벽을 쳤다. 그러나 아동단지도원 윤희는 북받치는 감격을 누르지 못해 끝내 흐느껴울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고 아동단원들에게 말했다.

《동무들, 장군님의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돼요. 모두가

장군님께 충실한 훌륭한 혁명가가 되자요.》

《예!》

아이들은 힘차게 대답을 했다.

이날저녁이였다.

윤희가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아 밤늦도록 잠을 못이루고있는데 캐득캐득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느 애가 아직 자지 않고있을가?)

윤희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웃음소리는 순금이가 잠결에 내는것이였다. 눈, 코, 입을 실룩거리며 웃고있었다.

옆의 아이들도 무엇이 우스운지 눈을 거불거렸다.

윤희도 웃음이 나갔다.

(무슨 단꿈을 꾸길래 저리도 웃는것일가?)

다음날 아침 순금이는 잠에서 깨기 바쁘게 사기가 나서 선생에게 꿈이야기를 하였다.

《선생님, 난 꿈에 장군님과 숨박곡질을 했어요.

장군님께서 〈순금아, 날 찾아봐라.〉하시길래 우리 아동단학교 뒤뜰에도 가보고 소나무숲에도 가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계시고 다시 〈순금아〉하는 목소리가 머리우에서 나더군요. 글쎄 구름속에 숨어계시는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겠나요. 애가 타서 발을 구르는데 커다란 학이 날아와서 등에 타라는게 아니겠어요.

나는 학을 타고 구름속으로 장군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엔 계시지 않고 〈순금아, 나 여기 있다.〉하는 장군님의 목소리가 이번엔 아래쪽에서 들렸어요. 내려다보니 장군님께서는 어느새 백두산꼭대기에 우뚝 서계시질 않겠어요. 내가 학을 타고

내려가니 장군님께서는 나를 안으시고 둥개둥개 하시며 한바퀴 도시는것이였어요.》

옆에서 함께 듣고있던 애들이 《야!》하며 진짜 그런 일이 있은것처럼 순금이를 부러워하였다.

그러자 한 남자아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선생님, 나는 꿈에 날개달린 장수가 되였댔어요. 동무들과 뒤산에 올라가 군대놀이를 하는데 멀리 산너머, 구름너머에서 왜놈들을 족치는 유격대아저씨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나도 가서 도와드리고싶었어요. 그런데 멀어서 어떻게 가나요. 내가 안타까와하는데 갑자기 량쪽 겨드랑이에서 왜가리날개같은 큰 날개가 불쑥 돋아나오는게 아니겠어요. 나는 훨훨 날개를 흔들며 그리로 날아가 군대놀이하던 나무칼로 왜놈들을 내리쳤어요. 놈들은 내 칼에 맞아 단꺼번에 열놈, 백놈씩 쓰러졌어요.》

《야!》

아이들은 손벽을 치며 통쾌해하였다. 어떤 아이는 그애한테 날개가 돋혔던 자리가 있나해서 만져보기까지 하였다.

이런 홍에 겨운 꿈이야기는 그후에도 종종 있었다.

윤희는 생각했다.

(장군님께서 깔아주신 구름노전이 이애들에게 단꿈을 꾸게 해주었구나.)

정말 신비로운 일이였다. 아이들은 그 구름노전우에서 자기 시작해서부터는 더는 악몽에서 헤매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1933년 왕청현의 어느 한 아동단학교에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새 지동설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지구라는 둥근 별이 생겨나 지금까지 고스란히 자기 궤도를 따라 돌아가고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우에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4계절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자리를 내주었으며 낮과 밤도 매일 규칙적으로 엇바뀌여왔다.

하지만 지구의 움직임이나 이 땅우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단순히 자연의 리치대로만 되는것도 아닌가부다.

이마적에 와서 자연의 법칙을 뛰여넘어 례년에 볼수 없던 천지조화, 천지개벽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놀래우고있는가.

이와 같은 일들은 비로소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요 돌이켜보면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어졌다는 깜짝 놀랄 일들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으니 진원은 이미 그때에 있었던것이다.

그래서인지 해방전에 일본 도꾜에서 공부하던 일부 젊은이들속에서는 《새 지동설》이라는 뜻이 깊은 말까지 돌았다고 하는데 듣고보면 단순히 전설로만 생각되지 않는다.

경상도 영덕지방에 고향을 둔 한 젊은이가 일본 도꾜에 건

너가 천문학을 공부하고있었다고 한다.

그러던중 졸업을 한해 앞둔 여름방학이였다.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졸업론문을 준비하려고 방안에 들어박혀 두문불출하고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책장을 뒤적이며 머리를 짜도 신통한 실마리가 잡히지 않자 며칠만에는 《에라, 모르겠다. 글도 안되는데 시원히 바람이나 쏘이고 친구들이나 만나보자.》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소꿉동무들을 찾아 밭에도 가보고 마실방에도 다녀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속에서 돌아가는 소문을 듣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한 친구는 만나자마자 회포도 나눌새없이 이런 말을 했다.

《너도 들었겠지. 순간에 산이 평지로 되고 평지가 산으로 된 이야기말이야. 왜놈들 수천명이 유격대〈토벌〉을 떠나 어느 골짜기를 목표로 삼고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던 산이 쑥 잦아들어 평지로 되더라는거야. 놈들이 당황해서 되돌아오려는데 이번엔 평지에서 산이 불쑥 솟아올라 앞을 막더라질 않겠어. 참 이상도 하지. 놈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멍해있다가 유격대총알을 맞고 모두 지옥으로 갈다더라.》

다른 친구는 또 이런 말을 했다.

《너도 들었니? 두만강건너 나란히 자리잡고있는 어느 두 마을에선 글쎄 낮과 밤이 서로 엇갈렸댔다는거야. 서쪽마을에선 밤이여서 부엉이가 우는데 동쪽마을에선 낮이여서 꾀꼬리가 노래를 불렀대. 참 이상도 하지.

그때 서쪽마을엔 왜놈들이 있었고 동쪽마을엔 유격대가 주둔해있었다더라.》

그밖에도 별의별 희한한 소식들이 꼬리를 물고 그의 귀를

두드렸다.

이렇게 되자 학도다운 습관이랄가 젊은이는 또다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며 그 밑바탕에 어떤 진리가 놓여있는가를 밝혀내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러나 천체의 움직임이나 지각운동의 원리로써는 도저히 그 비결을 알아낼수 없었다.

얼마동안을 그런 일로 해서 무아몽중에서 헤매던 젊은이는 어느날 머리도 식힐겸 바다가로 나갔다가 마침내 한 마을에서 사는 삼동이라는 아이가 겪은 신기한 일을 보게 되였는데 이것이 그의 머리에 등불을 지펴줄줄이야.

그곳 영덕앞바다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다.

우가 둥글넙적하게 생겨서 그것을 떡바위라고 불렀다.

그 떡바위는 사람들이 한 사오십명가량 올라가앉을수 있었다. 그래 여름철이면 아이들이 그곳까지 헤염을 쳐나가서는 온종일 벌건 알몸뚱이로 바위우에서 놀다가 해질녘에야 건너오군했다.

그런데 어느날 여직껏 집 한채 없이 조용하던 그 바다가에 유리창을 번들거리며 왜식건물이 하나 일어섰다. 오노다라는 일본놈이 유곽을 지어놓고 돈벌이를 시작한것이였다.

그러자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이던 떡바위도 자연히 그놈의 소유로 되여버렸다. 집안에서만 버는 돈으로써는 성차지않아 낮이면 쪽배에다 기생들을 실어다놓고는 왜놈들과 돈많은 부자들을 불러다 온종일 바위우에서 뚱땅거리며 놀게 하였다.

오노다의 유곽에는 심부름군노릇을 하는 삼동이라는 조선아

이가 있었다. 일찌기 부모를 여윈데다 두 형마저 징병에 끌려나가 외토리가 된 불쌍한 아이였다. 나이는 열서너살가량 되였는데 바다에 나갈 때는 늘 그 애가 노를 젓군하였다.

그러던 바로 어느날 아침이였다.

웬일인지 오노다가 이른새벽부터 부산을 피웠다. 음식칸에 들어가서는 일본료리를 많이 만들라 이르고 기생들방에 가서는 화장을 곱게 하고 옷치레를 잘하라 이르고 삼동이를 불러서는 미리 쪽배에 나가 걸레질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고있으라고 일렀다.

《도대체 어떤놈들이 오길래 새벽부터 들볶을가?》

삼동이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물녘으로 나가면서 투덜거렸다.

바다우로 아침해가 한발기장이나 되게 솟아올랐을 때였다.

삼동이가 배를 말끔히 닦아내고 모래불에 앉아있는데 승용차 서너대가 먼지를 일구며 달려왔다.

차는 유곽앞에 와서 멎어서더니 그안에서 누런 옷을 입은 왜놈장교들이 쏟아져내리고 뒤따라 군수며 면장, 아근의 유지들이 내렸다.

기다리고있던 오노다주인이 달려나와 허리를 굽석거렸고 기생들이 뒤따라나와 하나씩 놈들의 팔을 끼였다.

그들은 곧 쪽배에 올랐다.

왜놈들의 상통을 보니 역겹기 그지없었으나 매인 몸이라 삼동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삐걱삐걱 노를 저었다.

장교놈들은 희색이 만면하여 갈가마귀떼처럼 저마다 듣기 싫은 일본말로 지껄여댔다. 군수와 면장, 유지들이 놈들에게 발라맞추느라고 노상 입을 벌쭉거렸다.

《이곳 경치가 마음에 드신다면 며칠간 즐기다 가셔도 좋습니다.》

오노다가 먼저 바위우에 올라서며 말했다.

《어, 이곳 바다경치 참 아름답습니다. 만주에 들어가면 화약내를 맡아야겠는데 여기서 한 이삼일간 쉬다 가겠습니다.》

그중 뚱뚱해보이는 장교놈이 히벌쭉거리며 말했다.

당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만주광야를 주름잡으시며 신출귀몰하는 전법으로 련일 타격을 들이대는바람에 정신을 차릴새없이 얻어맞고 많은 병력을 잃게 된 관동군사령부에서는 부족되는 장교들을 보충해달라고 본국에 요구했다. 그래 일본에서는 유격전에 대한 교육도 받고 《야마도다마시이》정신이 몸에 뱄다는 놈들을 고르고골라 보내게 되였는데 바로 그놈들이 만주로 가는 길에 이곳에 들린것이였다.

떡바위우에 곧 술상이 차려지고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왜놈들은 얼굴에 취기가 오르자 메돼지청으로 일본노래를 뽑아댔다. 인차 남녀가 어울려 춤판이 벌어졌다.

바위모서리에 앉아 그 꼴을 바라보고있던 삼동이는 밸이 뒤틀렸다. 마음같아선 당장 놈들의 술상을 뒤집어엎고싶었다.

올곧지 않은 눈으로 제놈들을 바라보는 삼동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지 춤판에 끼여있던 오노다가 일부러 제가 쓰고있던 하얀 채양모를 바다물에 떨구며 말했다.

《야! 물에 들어가 저 모자를 건져와.》

왜놈들과 기생년들이 물우에 동동 떠있는 모자를 내려다보며 웃어댔다.

삼동이는 밸이 울컥 치밀어올라와 못들은척 하고 픽 돌아앉

았다.

《귀가 먹었는가? 모자를 건져와!》

오노다가 그의 뒤등을 툭 쳤다.

《싫수다.》

삼동이의 태도는 마른나무 등걸처럼 뻣뻣했다.

《뭐야?》

순간에 눈에서 불이 번쩍 일게 오노다가 그의 뺨을 후려쳤다.

삼동이가 손바닥으로 볼을 가리우며 대들었다.

《왜 때리는거야? 네놈들이 망할 날이 없을줄 알아?》

그 소리를 들은 장교놈들의 눈이 갑자기 꼿꼿해졌다.

《빠가야로!》

한놈이 삼동이의 멱을 잡더니 주먹으로 쳐서 바다에 떨구었다.

《임마, 이 바위가 끄떡없듯이 〈대일본제국〉도 끄떡없어.》

물속에 곤두박힌 삼동이는 곧 헤엄을 쳐서 쪽배우에 올랐다.

(흥, 《**김일성**빨찌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줄행랑을 놓을 놈들이 무슨 큰소리야.)

삼동이는 놈들을 쏘아보며 코웃음을 쳤다.

오노다가 망신을 당한게 내려가지 않아 또다시 삼동이를 어째보려고 하자 한 기생년이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까짓 애녀석 내버려두세요. 공연히 홍취가 다 깨지겠어요.》

오노다는 성을 삭이느라고 씩씩거리다가 술판에 눌러앉았다.

몇잔의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다시 취기가 오를무렵이였다.

갑자기 세워놓은 술잔들이 기우뚱거리더니 한꺼번에 옆으로 넘어지는것이였다.

놈들은 처음엔 제놈들이 취한 나머지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엔 떡그릇이며 안주그릇들까지 한쪽으로 와르르 밀리며 뒤집어졌다.

그래 눈이 뒤집혀 영문을 몰라하는데 때를 같이하여 제놈들의 몸뚱이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렸다.

기생년들이 급기야 사내들의 다리며 허리를 붙잡고 깔깔거렸다.

알고보니 그렇게도 끄떡없던 떡바위가 파도를 만난 매생이처럼 이쪽이 쳐들렸다 저쪽이 쳐들렸다 하는것이였다.

처음 약하게 흔들릴 때에는 흥취를 더해주는듯하더니 점차 그 흔들리는 도수가 높아지자 모두들 겁에 질려 낮빛이 변했다.

《아니, 왜 이 큰 바위가 움직일가?》

《글쎄말이다. 이건 지진이다. 지진!》

한놈이 소리쳤다.

그러자 모두가 《오—지진》 하며 납작 엎드렸다.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살아온 왜놈들은 지진에 대한 공포심이 컸다. 놈들은 행운을 바라며 손을 머리우로 쳐들고 싹싹 비벼댔다.

쪽배에 앉아서 뜻밖에 천연바위가 흔들리는것을 보고 놀라와하던 삼동이는 부지런히 노를 저었다.

그는 바위쪽에서 떨어져나오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섬에 있는 다른 바위들은 하나도 움직이는것이 없었다. 바다가의 집들도 산들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움직이고있는것

은 떡바위뿐이였다.

(지진이라면 주변의것들이 다 흔들려야지 어째서 떡바위 하나만 흔들릴가?)

떡바위는 삼동이가 멀어져가자 더 세차게 기우뚱거리더니 마침내는 벌떡 뒤집혀지고말았다.

그바람에 거기에 있던놈들은 어쩔새없이 모두 바다속에 처박혔다.

이어 바다밑에서 우르릉—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세찬 돌개바람이 일면서 그곳에서 물기둥이 하늘높이 타래쳐올랐다. 물에 빠진놈들의 몸뚱아리가 그 물기둥에 휘말려 허공중에 높이 떠올랐다가 다시 바다속에 떨어졌다.

살아남은것은 오직 쪽배를 타고 뭍으로 나온 삼동이뿐이였다.

이날 바다가에 나왔다가 떡바위가 뒤집히는것을 본 이고장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니, 대대로 끄떡없던 저 바위가 왜 갑자기 뒤집혔을가?》

《글쎄말이우다. 저렇게 큰 바위만 냉큼 뒤집힌게 이상하지 않수?》

아무리 머리들을 기웃거리며 생각해보아도 까닭을 알수 없었다.

그들속에는 바로 천문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도 끼여있었다.

뭇사람들의 시선이 자연히 그에게로 쏠렸다.

《임잔 천문지리에 도통하고있을테니 알겠구만.

이 땅이 생겨 지금까지 끄떡없이 내려오던 저 떡바위가 무슨 연고로 갑자기 뒤집혔나?

지진인가? 아니면 귀신의 조화가?》

젊은이는 인차 대답을 못했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였다. 아무리 국부적인 지진이라고 해도 그렇게 바위 하나만 난딱 뒤집힐수는 없었다. 그러면 정말 귀신의 조화란말인가. 그러나 이 젊은이는 당초에 귀신이란걸 믿지 않았다.

젊은이의 입에서는 《글쎄요.》라는 소리가 흘러나올뿐이였다.

사람들은 그의 대답에 실망해하다가 이번엔 목격자인 삼동이를 직접 불러다 물어보았다. 그애는 어렵지 않게 대답을 했다.

《왜놈들이 벌을 받은거예요. 떡바위가 끄떡없듯이 〈대일본제국〉도 끄떡없을거라고 큰소리를 치더니 저렇게 뒤집혀졌거든요.》

통쾌한 말이였다.

사람들은 기쁨을 금치 못해했다.

그러나 젊은이만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그렇단들 뒤집히기는 왜 뒤집혔을가?》

반드시 원인이 있고서야 그뒤에 결과가 따르기마련이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는것은 세상사를 바로 알수 있는 기본원리요, 더우기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에겐 그것이 사고방식의 기초로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마적에 들려오는 소문들과 이날 보게 된 이상한 일들은 도저히 까닭을 밝혀낼수 없었다.

(아마도 우리가 디디고서있는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 어떤 다른 힘이 있는가부다.)

젊은이는 고심하던 끝에 이런 생각을 했다.

이틀이 지나서였다.

그날도 젊은이와 마을사람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안은 채 바다가를 서성거리고있는데 괴나리보짐을 어깨에 걸친 한 길손이 지나가다가 그리로 왔다.

길손은 바다를 내다보더니 누구에게라없이 묻는것이였다.

《저 바위가 벌떡 뒤집혀진게 아니요?》

젊은이가 대답을 했다.

《옳습니다.》

그러자 길손은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앉으며 철썩 무릎을 쳤다.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그 소리에 모두들 눈이 둥그래졌다.

(그렇게 될줄 알다니? 그럼 이 사람은 미리 저런 일이 생기리라는걸 알았단말인가?)

젊은이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그럼 손님은 저 바위가 뒤집힌 까닭을 아시는가요?》

길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알다뿐이겠소. 듣자니 그건 바로 하늘이 낸 백두산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니요?》

사람들의 눈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이미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늘 보아오던 떡바위가 뒤집혀진것도 멀리 계시는 장군님과 관계되는 일이라고는 믿을수가 없었다.

그들이 의아해하자 길손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 앉으시여 몇천리밖에서 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답니다.》하고

말하더니 자기도 누구한테서 들었다면서 자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삼일전에 있은 사실이라고 한다.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어느 바위우에 걸터앉으시여 오래동안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멀리 조국땅 남쪽으로 파견되여갈 그이의 부하 한사람이 준비를 끝내고 가서 인사를 올리려고 하자 장군님께서는 조용하라는듯이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대시였다.

부하는 그분께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걸 눈치챘다. 그래서 잠시 그 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이때 례의를 모르는 바람이 서쪽에서 쏴— 하고 불어왔다.

장군님께서는 조용하라는듯 한쪽 손을 그쪽으로 내드시였다.

그러자 서풍은 그이의 손끝에서 멎어섰는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번엔 동풍이 밀림을 휘둘러놓으며 휘파람을 불어댔다.

그분께서는 다른 손을 그쪽으로 내드시였다.

그러자 동풍은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섰는지 더는 불어오질 않았다.

장군님께서 앉아계시는 백두산마루엔 고요한 정적만이 깃들었다.

그런데 이윽토록 앉아계시던 그분께서 갑자기 격분해하시며 벌떡 일어서시였다.

《뭐라구? 바위가 끄떡없듯이 〈대일본제국〉도 끄떡없다구? 이놈들!—》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노하시여 장검으로 쾅— 땅바닥을 내리치시였다. 그 바람에 장검이 절반이나 땅에 박혔다.

때를 같이하여 땅속에서 《짜르릉— 짜르릉—》 핑음이 울리며 멀리 메아리쳐갔다.

부하는 영문을 몰라 휘둥그래진 눈으로 그이를 바라보았다.

장군님께서는 잠시후 분을 삭이시고 부하에게 과업을 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가 이번에 나가는 길에 영덕지방에 피뜩 들려보오. 그곳 앞바다에 큰 바위가 하나 있겠는데 그게 어떻게 되였는가 좀 보구 오시오.

방금전까지 왜놈장교들이 그 바위우에서 술판을 벌려놓고 희떠운 소리를 줴쳤소.》

그러고보니 장군님께서는 몇천리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계시였던것이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부하는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는 장군님한테서 배운 축지법을 써서 하루밤사이에 천리길을 걸었다.…

《그러니 정말 **김일성**장군님께서 천지조화를 부리시여 멀리 백두산에서 저 바위를 뒤집어놓으셨구만!》

《장군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더니 그게 사실이였소그려!》

길손의 말을 듣고있던 사람들은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자 길손은 뭇사람들을 둘러보며 《듣자니 장군님께서는 순간에 산을 평지로도 만드시고 평지를 산으로도 만드신답니다. 필요하다면 흐르던 강도 거꾸로 돌려세우시고 낮과 밤을 엇바꾸어놓기도 하신대요. 장군님께서는 하늘과 땅만 쥐락펴락하시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쥐락펴락하신답니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사람들의 눈앞에는 우주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세찬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재우기도 하시며 천지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다.

젊은이의 눈에서 갑자기 불꽃이 번쩍이였다.

《아,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지금껏 찾지 못하던 세계를 움직이는 그 거대한 힘을 바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였구나!》

그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도 알고있고 코페르니크스의 지동설도 배웠다. 그런데 자기가 찾아낸것은 그런것들과는 아주 구별되는 새로운 진리였다.

젊은이는 흥분을 가라앉힐수가 없어 이날 저녁 모두 사라진 후에도 어둡도록 바다가를 오락가락하였다.

후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날 바다가에 나타났던 길손이 바로 임무를 받고 다니는 장군님의 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는 다음날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을 만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모두들 알아두라구! 지구는 앞으로 **김일성**장군님의 의도에 따라 돌아갈거네!》

동료들은 그의 이 말을 코페르니크스의 지동설에 이어 《새지동설》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토벌》대장들의 고백

《내가 살아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때에 이 세상에서 없어진 사람이다.》

해외에서 발간된 어느 한 잡지에는 만주에서 유격대 《토벌》에 동원되였던 옛 《토벌》대장이 쓴 이와 같은 글이 실렸었다.

왜놈 《토벌》대장들의 일반적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하겠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인민들속에서 전해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설들가운데는 신기한 술법으로 《토벌》대놈들을 골탕먹이신 이야기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 몇가지를 반복되지 않는것으로 아래에 소개한다.

1. 사득판에서 있은 일

어느날 《토벌》대장 고노에게 지구《토벌》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공산군》이 그리로 나올수 있으니 행처를 찾아내여 끝까지 추격하라는것이였다.

고노는 골머리가 아파 두손으로 싸쥐였다.

이즈음엔 상급에서 여간 보채지 않았다. 일본륙군내에서 살인장군으로 유명한 노조에가 사령관직에 앉더니 드살이 보통이 아니였다. 어느 한시간도 발편잠을 잘수가 없었다. 《죽은 송장이냐?》, 《왜 앉아 매닥질을 치고있느냐?》전화통에서 조석으로 이런 욕지거리가 연거퍼 쏟아져나왔다.

그리고는 성공하면 훈장을 달아준다느니, 별을 올려준다느니 하고 곶감 몇알 가지고 애들 홀리듯 달콤한 말로 끝을 맺군하였다.

물론 훈장을 마다할 고노가 아니였다. 《토벌》대장이 된후 여러해가 지나도록 구살이만 받다보니 훈장이 다 뭐냐, 뺨을 얻어맞지 않는것이 다행이였다. 일찌기 어느 한 부대에서 군조로 있을 땐 누구보다도 《야마도다마시이》정신이 강하다고 칭찬을 받은적도 있었다. 그러나 유격대에 대한 《토벌》에선 그 《야마도다마시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가늠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것이 유격대의 행처다.

그래 소경 막대질하듯 어방대고 싸다니다가 함정에 빠지거나 뒤통수를 얻어맞기가 일쑤였다.

《천황이나 미나미총독을 여기에 데려다놓아도 별수가 없을거야.》

그럴 때면 고노는 이런 말로 자기 위안을 했다.

그러나 《토벌》에서 《공》을 세워보겠다는 의욕만은 머리속에 살아있었다.

고노는 곧 산지사방에 풀어놓은 제놈의 밀정들을 불러들여다 상급의 훈시를 그대로 받아넘겼다.

늘 들어오던 소리였지만 밀정들도 《공》을 세워보겠다는

욕심이 동해났는지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흩어져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한 밀정으로부터 유격대의 행처를 찾아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고노는 급히 1,5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모두 출동시켰다.

밀정의 정보는 정확했다. 열두명가량의 유격대가 마을을 가까이 한 야산으로 행군을 하고있었다.

《꼬리를 놓치지 말라!》

고노는 추격하는 선두대렬에 명령했다.

유격대는 놈들을 끌고 굽이굽이 산길을 돌더니 펑퍼짐한 풀밭으로 들어섰다. 앞에는 사득판이였다.

빠지기만하면 누구도 헤여나올수 없는곳이였다.

고노는 쾌재를 올렸다.

《이젠 됐다. 저 사득판을 포위하라! 〈공산군〉이 진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놈의 명령에 따라 《토벌》대는 사득판을 겹겹이 둘러쌌다. 그리고 좁혀들어갔다.

그야말로 물샐틈없는 포위였다.

그런데 유격대가 사득판의 개버들숲에 엎드렸는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하얀 버들개지들만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고노는 일제사격을 명령했다.

우박치듯하는 총알에 버들개지들이 가지끝에서 모두 떨어져나갔다. 시커먼 진펄이 드러났다. 그래도 유격대는 보이지 않았다.

거기엔 숨을곳도 피할곳도 없었다.

이미 진펄에 다 빠진게라고 생각한 고노는 진펄에 대고 사

격을 하도록 했다. 불도가니마냥 흙탕물이 부글부글 끓으며 솟구쳐올랐다.

그렇게 하기를 대여섯시간, 사득판의 개버들도 이젠 손톱만큼 그루터기만 남았다. 그런 속에선 작은 개미라 하더라도 살아남지 못할것이였다.

고노는 증거물이 있어야 하겠기에 부하들을 유격대의 모자라도 찾아내오라고 사득판으로 들여보냈다. 그러나 두세발자국 옮기기 바쁘게 쑥쑥 빠져들어가고말았다.

열놈이 빠지면 백놈을 들여보냈다. 그러나 들어가는족족 밑에서 다리라도 잡아당기듯 사득판속에 자취를 감추었다.

행여나해서 이렇게 하기를 스무날 고노의 부하들도 이젠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흔적이 없자 고노는 부대를 철수하고 상급에 유격대를 몽땅 《소멸》했다고 보고를 했다.

고노는 이 사실을 부하들앞에서도 자랑을 했고 집에 들어가 녀편네한테도 자랑을 했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토벌》사령부에서 그를 호출했다.

(훈장을 달아주려는가? 승급을 시키려는가?)

그가 궁금해하며 차를 타고갔는데 뜻밖에도 노조에가 붉으락푸르락해서 일어서더니 무작정 그의 뺨을 후려치는것이였다.

《이자식, 유격대는 한명도 잡지 못하고 부하들만 다 죽였으니 너는 훈장이 아니라 효수를 당해야 하겠다. 유격대 열두명이 사득판에서 다 살아나왔다.》

고노는 막대기처럼 꼿꼿해졌다. 유격대가 살아나오다니?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재주를 피운다는데 풀 한포기 남지 않

은 사득판에서 어떻게 살아나온단말인가. 그러니 유격대는 귀신보다도 더하단말인가?

고노는 그 말을 믿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였다. 사득판 주변마을에 박혀있던 밀정이 그곳 사람들의 말을 듣고 《토벌사령부》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던것이다.

놈들이 철수한지 두시간후였다고 한다.

농민들이 밭에서 김을 매고있는데 새파란 하늘에 갑자기 칠색무지개가 비끼더라는것이였다.

《갑자기 웬 무지갤가?》

희한해서 바라보니 무지개의 한끝은 멀리 백두산쪽으로 뻗어있고 다른 끝은 사득판가운데다 뿌리를 박고있었다.

잠시후 사득판 한가운데가 쩍 갈라지더니 유격대원 열두명이 고스란히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입고있는 옷엔 흙 한점 묻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엔 모두 웃음이 어려있었는데 다만 한 대원이 실수로 부상을 당했는지 팔에 붕대를 감고있는것이 보였다.

유격대원들이 멀리 백두산쪽으로 사라지자 다리를 놓았던 무지개도 씻은듯이 걷히였다.

후에 돌아간 소문에 의하면 그 유격대의 대장은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고 한다.

그날 일부러 놈들을 사득판으로 끌고들어가신 장군님께서는 손바닥으로 땅을 세번 툭툭 두드리시였다. 그러자 사득판 한가운데가 쩍 갈라지면서 룡두장을 짚은 지신이 나타났다.

《무슨 분부시나이까?》

지신이 그이께 인사를 올리며 이렇게 묻자 장군님께서는 여

기서 며칠간만 좀 쉬다가야겠다고 대답하시였다.

그러자 지신은 장군님과 유격대원들을 쾌히 맞이했다 한다.

하늘엔 천궁이 있다 하고 바다엔 룡궁이 있다했듯이 땅속에도 웅장화려한 궁전이 있었는데 유격대원들은 스무날동안 거기서 편안히 피곤을 풀고있었다고 한다.

2. 갑자기 나타난 수만의 《군사》

늘 자기를 남보다 지혜롭다고 여겨온 오야끼라는 《토벌》대장이 있었다. 그는 제놈이 관동군사령관 우메즈나 《토벌》사령관 노조에보다 결코 어느모로보나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야끼는 유격대를 《토벌》하려면 우선 **김일성**장군님의 신묘한 술법을 알아야 한다는것을 판단했다.

그래 이미 참패를 당한 여러 《토벌》대들의 교훈을 수집해들이는 한편 밀정들을 통해 항간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탐문해오도록 하였다.

밀정들이 어디서 듣고와 하는 말이 **김일성**장군님은 옛날에 신기한 도술을 부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름난 도사들과 명장들을 훨씬 더 릉가한다고 했다. 또한 옛말에 나오는 평양의 열장사가운데 주먹으로 바위돌을 깬다는 전주복이나 지붕우를 훌쩍훌쩍 올리뛴다는 돈정신이나 칼을 잘 쓴다는 법근이 이야기가 신비롭다 해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 열장사의 특

기를 다 합친것보다도 더하다고도 했다.

(그건 다 풍설일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오야끼는 사명당에 대한 책을 구해다 읽어보았다. 왜장 가등청정이나 소서비도 벌벌 떨게 만든 사명당이야기는 꼭 어떤 신화를 읽는것과 같았다. 그는 라관중이 쓴 《삼국연의》도 읽어보았다. 거기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전법은 꼭 아이들의 동화에 나오는 환상적인 이야기같았다.

(이런 이야기도 필시 과장이 많을텐데 현실적인물인 **김일성**장군이 어찌 그보다 더 출중한 술법을 쓰랴.)

오야끼는 항간에서 돌아가는 말을 믿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토벌》대장 오야끼는 화룡에서 장백쪽으로 나가는 유격대를 추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격대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친솔하시는 부대인데 열댓명가량의 소부대라는것이였다.

오야끼는 《토벌》대를 출동시켰다. 그 수는 2,000명을 넘었다. 사실은 그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차후 놈들의 소굴을 치시기 위해 그놈들의 앞잡이를 통해 일부러 그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시였다고 한다.

유인전술에 걸려든것을 모르는 오야끼는 《내 이번에 〈공산군〉의 술법을 시험해보리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해서 떠났다.

며칠동안 온 부대가 산속을 헤매다가 드디여 눈우에 그려진 화살표를 발견했다.

《서라! 여기서부턴 주의해야겠다. 이 화살표는 빨찌산이 자기들끼리 쓰는 신호일게다.》

오야끼는 부대를 멈춰세우고 앞을 주시해보았다.

(발자국자리는 없고 왜 화살표만 있을가?)

놈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부대를 이끌고 화살표방향으로 행군했다.

얼마쯤 가니 그런 화살표가 또 나타났다.

오야끼는 유격대가 간곳이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곳으로 속도를 높이라!》

놈은 이렇게 소리치고나서 권총을 뽑아들고 뒤전에서 따랐다.

미구하여 앞쪽에서 유격대가 나타났다는 전갈이 왔다. 유격대가 숲속에 앉아서 휴식을 하다가 《토벌》대의 선두대렬이 나타나자 《이제야 오는군. 걸음도 참 느리다.》고 하면서 일어서서 앞쪽으로 가더라는것이였다.

그 말소리가 들릴정도면 퍼그나 가까와야 할텐데 조선말도 잘 모르는 제놈들이 어떻게 가려들었을가. 지레 겁을 먹다나니 착각을 한게 아닐가?

오야끼는 앞쪽으로 달려가 부대를 끌고 행군속도를 높였다.

날이 어슬어슬해지기 시작했다.

골짜기를 빠지니 키높은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밀림이 나타났다. 나무가지에 앉았던 새가 불청객들한테 놀랐는지 푸드득 날았다. 그럴 때면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놈들은 유격대를 찾으려고 눈을 도사리고 걸었다.

정말 유격대가 앞쪽에서 가끔 뒤를 돌아보며 행군하고있었다. 눈에 뜨이는것은 열명안팎이였다.

오야끼는 수적우세에서 힘을 얻었다.

《공격하라!》

놈은 명령을 내렸다.

졸병들이 곱새마냥 허리를 잔뜩 꼬부리고 앞으로 돌진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유격대가 놈들의 앞에 나타났다. 제놈들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아보였다.

(《공산군》이 어데서 저리도 많이 나타났을가? 방금까지는 열명안팎이였는데.)

오야끼는 당황해서 일시 머뭇거리다가 사격명령을 내렸다.

졸병들이 모두 엎드려 그쪽으로 사격을 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무리 쏘아도 유격대는 한명도 쓰러지지 않았다.

《탄알을 아낌없이 쏘라!》

오야끼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래도 유격대는 꿈쩍도 안했다. 혹시 총알이 뚫지 못하는 신기한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요술쟁이처럼 총알을 받아먹는가?

수만발의 총알을 다 날려보냈는데 역시 유격대는 끄떡없이 그 모양대로 서있었다.

총알이 떨어졌으니 할수없이 육박전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오야끼는 졸병들에게 소리쳤다.

《육박전! 야마도민족의 용맹을 떨치라!》

그러자 왜놈들은 짐승들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괴이한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내달았다. 하지만 죽기를 맹세코 머리로 받고 창으로 찌르며 덤벼들었으나 그것은 뜻밖에도 《공산군》이 아니라 나무사람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술법을 쓰시여 순식간에 나무를 사람모양으로 만들어놓으셨던것이다.

왜놈들은 모두 얼이 빠져 미친듯이 돌아치며 총대만 부러뜨리고 이마에 주먹같은 혹만 잔뜩 매달았다.

한창 그러고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한놈도 살려두지 말라!》쩌렁쩌렁한 구령소리가 들렸다.

놈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나무사람만 안고 쓰러졌다.

온몸에 부상을 입고 겨우 홀로 목숨만 부지한 오야끼는 새벽에 정신을 차리고서야 제놈들이 밤새껏 나무에 대고 총을 쏘았다는걸 알았다.

그놈은 절망에 빠져 한탄을 했다.

《항간에서 돌아가는 소문이 사실이였구나! 순식간에 나무들에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워놓을줄이야 어떻게 알랴. 이 세상에 **김일성**장군님의 술법에 견줄만한것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놈은 감히 그 술법에 맞서보겠다고 날뛰던것이 매우 어리석음을 통탄했다.

3. 쇠물만 흘러내리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공산군》을 찾았다는 마사끼《토벌》대의 보고를 받고 길림에 있는 《토벌》사령부에서는 그리로 총력을 집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에 따라 《지구토벌》대, 《소지구토벌》대, 《경찰유격대》, 《산림경찰대》, 《자위단》등 군인원과 무장장비들이 모두 동원되여 사면팔방에서 포위진을 치고 좁혀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대포만 해도 몇십문이 잘되고 중기는 몇천문을 헤아렸다. 졸병들의 등에는 탄약이 가득가득 지워있었고 자동차와 말파리에도 짐들이 가득했다. 하늘에선 비행기들이 웅웅 날며 삐라를 뿌렸다.

요시하라가 인솔하는 《토벌》대도 여기에 동원되였다. 그놈도 이미 몇번이나 《토벌》에서 학질을 뗐지만 상급의 명령이니 빠질수가 없었다.

그런데 병영을 나설 땐 어깨가 처져있었으나 막상 동원된 방대한 군인원과 기재들을 보자 그에게도 용기가 되살아났다.

(**김일성**장군의 지략이 아무리 뛰여나다 할지라도 이 방대한 무력에는 맞설수가 없을거야.)

말우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는 그는 언제 패전의 쓴맛을 보았던가싶게 거들먹거리기까지 했다.

오랜 행군끝에 피곤이 느껴지자 요시하라는 어느 한 마을에 이르러 휴식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제놈은 길가에 서있는 농가집울타리밖에 짚을 펴놓고 누웠다.

잠시후였다. 하늘에서 일본군용기가 요란한 소리로 짖어대며 낮추 떠서 날아갔다. 《토벌》대시찰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위용》을 뽐내고싶어서 그랬는지 몰랐다.

이때 울타리안에서 농사군 주인내외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놈의 비행기가 마을에 폭탄을 떨구면 어찌갈가요?》

아낙네의 목소리였다.

《별걱정을 다 하누. 그까짓거 조금도 겁날게 없어. 백두산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하늘만 한번 쳐다보아도 엿가락처럼 녹아떨어지고말걸.》

남정네의 대답이였다.

울타리밖에서 이야기를 엿듣고있던 요시하라는 그 소리에 후들쩍 놀라 몸을 반쯤 일으켰다.

(뭐라구? 비행기가 엿가락처럼 녹아떨어진다구?)

어처구니가 없었다. 생각같아선 당장 주인내외를 끌어내다 도륙을 내고싶지만 일개 대장이랍시구 남의 말을 도적고양이처럼 엿들었다는게 웃음거리가 될것 같기도 한데다 시작부터 칼부림을 해서 인상을 잡치고싶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항간에서 돌아가던 말들이 다 일리가 있었던만큼 저 농사군들이 닥쳐올 앞일을 미리 계시해주는게 아닐가, 그렇다면 아무리 폭군이라도 그들에게 손을 대는건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닌가, 맙시사. 제발 불길한 징조가 아니옵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생각이 그놈을 겨우 자중시켰다.

요시하라는 피곤이 채 풀리지 않았지만 벌떡 일어나 출발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제놈은 승마를 하고 애꿎은 말의 배허벅을 들이찼다.

근 백리길을 걸어서 놈들은 마사끼《토벌》대와 합류했다. 맞은켠에선 그쪽대로 두개 《토벌》대가 마주오고있고 좌우 량켠에서도 여러 《토벌》대들이 오고있다고 했다.

마사끼의 말이 앞에 가는 《공산군》은 한개 중대가량 되는데 유격대사령부로 짐작된다는것이였다. 요시하라는 《또 잘못 걸려들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런 내색을 내지 않았다.

이때 《토벌》대놈들을 뒤에 달고가던 유격대는 어느 덕지대를 행군하다가 앞에 마주오는 적과도 맞다들게 되였다. 그러자 그들은 무연한 새초밭으로 새여들어갔다.

《토벌》대놈들은 쾌재를 올렸다. 수많은 놈들이 갈밭을 둘러쌌다.

《사격!》

요시하라의 구령에 따라 졸병들은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참 별일이였다. 어느놈의 총에서도 총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총알은 나가지 않고 총구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바빠맞은 놈들은 제 총이 잘못됐나 해서 격발기를 당겼다밀었다 하였다. 고장은 없었다. 그런데도 총알은 나가지 않았다.

《이놈들아, 왜 총을 쏘지 않는거야?》

요시하라가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아무리 을러메도 여전히 한방의 총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악에 받친 요시하라는 명령에 불복한다고 앞에 있는 부하들을 사정없이 칼로 내리쳤다.

옆에 있던 부하들이 울상을 해가지고 급해서 소리쳤다.

《대장님, 도무지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총알이 나가지 않는다? 이리 내라.》

요시하라는 한 졸병에게서 총을 빼앗아 제놈이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총구멍에선 역시 물만 줄줄 흘러나올따름이였다.

다른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제야 놈들은 자기들이 **김일성**장군님의 술법에 걸려들었다는걸 짐작했다.

놈들은 당황해하며 이번엔 새초밭을 향해 일제히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다.

수십문의 대포에서 절컥절컥 포탄 재우는 소리가 나고 뚜꺽뚜꺽 방아쇠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어느 포에서도 한방의 포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포아

구리에선 포알은 나가지 않고 뜨거운 쇠물만 줄줄 흘러내렸다.

《이놈들아, 왜 대포를 쏘지 않는거야?》

요시하라는 목청이 째지도록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리 을러메도 포알은 나가지 않았다.

요시하라는 명령에 불복한다고 앞에 있는 포수의 목을 칼로 내리쳤다.

옆의 포수가 급해맞아서 울상이 되여 말했다.

《대장님, 포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안에서 다 녹아버리는지 쇠물만 흘러나옵니다.》

요시하라는 제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고 그게 사실임을 알았다.

《야단이다. 우리가 **김일성**장군의 도술에 걸려든게다.》

놈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어찌할바를 몰라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이때 새초밭쪽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렸다.

유격대가 반돌격을 해나오는것이였다.

총포를 쏠수 없게 된 놈들은 적수공권으로 맞서보려다가 무리죽음만 당하고말았다.

《퇴각하라!》

요시하라는 할수없이 퇴각구령을 내리고 제놈부터 먼저 줄행랑을 놓았다.

놈은 어느 한 나무밑에 이르러 숨을 돌리며 생각했다.

(백두산에서 **김일성**장군이 하늘만 슬쩍 쳐다보아도 비행기가 엿가락처럼 녹아떨어진다는 농사군내외의 말이 옳긴옳았구나! 그때 미리 돌아섰어도 이런 꼴을 면했을걸.)

아무리 많은 총포탄도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앞에선 맥을 추지 못한다는걸 그놈은 뒤늦게야 깨달았던것이다.

조선사람의 자랑

우리 인민은 지금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있다.

진심으로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진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단군이래 5천여년의 우리 나라 력사를 더듬어보아도 그렇고 요즘 돌아가는 세상사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어느 시기,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있는게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이것은 오직 수령복을 타고난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수령으로 받들어모신 때로부터 가지게 된 긍지와 자부심이다.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조선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은 일찌기 망국노의 처지에서 신음하던 일제통치시기에 벌써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기 시작했으니 아래에 그와 관련한 수많은 전설들가운데서 하나를 정리한다.

1940년을 전후한 시기에 문천군에서 사는 전치남이라는 사람이 징병에 끌려갔다.

물론 그때 일본놈들이 조선의 청장년들을 모조리 징용이요, 징병이요 하고 끌어갔으니 이것이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전치

남의 경우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치남의 배다른 삼촌은 안변에서 소문난 큰 지주였다. 넓은 벌, 기름진 땅을 독차지하고있어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누구도 가늠하지 못했다.

돈과 재물이면 못할 일이 없는 때라 군청이며 경찰서, 모모한 세도기관을 다 겨드랑이밑에 끼고살다보니 팔삭둥이같은 그의 아들 전치호까지도 남들을 업신여기기가 보통이 아니였다. 쩍하면 농민들을 보고 《바보같은 자식들》, 《머저리같은 년놈들》하며 손가락질을 하였고 나이많은 늙은이들에게까지 까닭없이 《이 둔치야》, 《이 버새야》하고 놀려대군하였다.

치남은 치호보다 한달차이로 형벌이 되였다.

사촌간이면 매우 밭은 친척이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사이가 나빴다. 하나는 리치를 모르는 바보요, 다른 하나는 그에 비해 똑똑하니 놀음을 할 때마다 뜻이 맞지 않아 으르렁거렸다. 바보는 바보대로 리치를 모르니 우기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니 우겼다.

그러니 놀음은 언제나 싸움으로 끝이 났다.

아이들의 싸움이 곧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가기 일쑤라 이것은 아낙네들의 아귀다툼으로 변하고 남정네들의 주먹질로 변했다.

여기서는 언제나 세도가 등등한 치호네가 이겼다. 그리하여 치남이네는 아예 멀리 헤여져서 그 꼴을 안보는편이 낫겠다며 문천군의 외진 산골마을로 가버렸던것이다. 거기서 치남의 아버지는 부대기를 일구어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갔다.

그런데 그리도 앙숙이던 사촌동생 치호가 도꾜류학을 갔다

가 얼마전에 귀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치남은 안변으로 갔다. 어려서는 다투었다 해도 오래동안 헤여져있었으니 만나보고싶어서였다.

그 집에서는 그날 검은 양복에 4각모를 쓴 아들을 서울대감이라도 맞이하듯 동구밖에까지 한패거리 마중을 보냈다.

치호는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한 젊은이에게 트렁크를 지워가지고 개선장군처럼 헤벌쭉거리며 걸어왔다. 그런데 반색을 하며 달려오는 애비에게 인사를 한다는 꼴이 《오또상, 오겐끼데 오라레마시다가?》 하는것이였다.

애비는 그만 못박힌듯 굳어져서 눈만 껌벅거리였다. 이게 내 아들이 옳긴옳은가? 방금 저 입에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가 튀여나오지 않았더냐. 뭐 오또상?

치호는 애비에게 일본말을 했던것이다.

이때 옆에 서있던 젊은이가 통역을 해주었다.

《자제분께서 〈아버님, 그사이 편안하셨습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애비는 밸이 울컥 치밀었다.

《편안이야 했지. 하지만 치호, 네녀석은 그동안 조선말까지 다 잊어버리는 반편이 됐냐?》

치호는 그 소리에 한참이나 껄껄거리더니 지금은 일본말을 못하는게 반편이라며 통역에게 잘 말해주라고 일렀다.

애비는 그제야 제 아들이 대학을 나오더니 유식해진게라고 생각하며 그를 집으로 이끌었다.

그날저녁 치호는 대학을 나왔답시구 농민들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내용을 볼라치면 농민들이 쌀을 많이 내야 일본군이 강대해지고 천황으로부터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긴데

서툰 일본말로 엮어대다보니 말이 두서가 헛갈리고 반벙어리처럼 발음이 똑똑치 않았다. 통역이 그 뜻을 수정해서 겨우 전달해주군하였다.

청객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원래부터도 머리가 둔한걸 공부를 보내더니 저렇게 정신병자로 만들었구려.》

《글쎄요. 무슨 도깨비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수다.》

그리고는 이쪽에서도 키득키득, 저쪽에서도 키득키득 입을 싸쥐고 웃었다.

치호는 그들의 행동이 못마땅했는지 말끝마다 《바보같은것들!》, 《머저리같은것들!》 하고 덧붙였다.

(누굴 바보라고? 가랑잎이 솔잎보고 바스락댄다더니.)

청중은 더 웅성거렸다.

뒤켠에 서서 그 모양을 보고있던 치남이는 치밀어오르는 분기를 참을수 없었다.

(저 미친자식을 그냥 두어선 안되겠어. 그러단 우리모두를 머저리로 만들겠단말이야.)

밤이 이슥하자 치남이는 주먹을 쥐고 무작정 치호의 방으로 뛰여들었다.

《이놈아, 오늘 너와 결판을 내자!》

그는 잠자리에 든 치호의 이불을 활 밀어제쳤다.

선잠이 들었던 치호는 눈을 뜨긴 했으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말은 하지 못하고 끙끙 신음소리를 냈다. 한참동안 모지름을 쓰다가야 그는 자기 방에 들어선것이 치남임을 알아보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왜 이러슈?》

《형님? 네입에서 난생 처음 형님이라는 말이 나오누나. 이 놈아, 내앞에서 다시 왜말을 지껄여봐. 남들을 업신여겨두 분수가 있지.》

당장 벼락이라도 칠것 같은 기세에 치호는 비실비실 뒤로 엉뎅이걸음을 했다.

《그게 뭐 잘못됐수? 지금 다 일본말을 쓰라는판인데.》

《그래두 우리끼리 하는 말도 왜말을 써야 옳단말이냐? 넌 도대체 조선사람이 아니냐? 통역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럴바엔 아예 왜놈으로 변신해라.》

《아무렇게나 생각해두 좋수다. 지금 조선이 어디 있수? 우리가 남보다 뭐 나은게 있단말이요?》

치호의 그 말이 점점 약을 올려주었다.

《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우리 나라가 왜 남보다 못해. 그래 저 쪽발이놈들에게 비하겠냐?

옛날부터 삼천리금수강산에 금은보화 가득찬 나라로 자랑해오지 않았단말이냐? 그리구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일컬으지 않았단말이냐?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니. 깨끗하고 례절바르고…》

치남이는 한치한치 치호에게로 가까이 다가들며 들이댔다.

《아무리 아름답고 유구하고 찬란하다 하더라도 그게 뭐 소용있수? 일본한테 먹히운판인데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긍지로 생각하나요?》

치호도 만만치 않게 맞섰다.

리치를 따지기전에 언제나 치호한테 이기군하던 치남이였지만 거기엔 더 대답을 못했다.

《뭐 어쩌구 어째?》

그는 치호를 때릴듯이 주먹을 쳐들었다가 방바닥을 내리치고말았다.

치남은 이런 일로 해서 다음날 아침밥도 먹지 않고 신새벽에 치호네 집을 떠났다.

치남은 그후 인차 징병에 뽑혔다. 치호네와 가까운 친척이니 그들이 한마디만 말해주면 제외될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편에서 치남이가 불온사상을 가졌으니 징병에나 나가게 해달라고 촉새질을 했던것이다.

치남이가 끌려간곳은 원산앞바다에 있는 신도라는 섬이였다.

거기엔 일본군의 유단포(곡사포)기지가 있었다.

병사들은 대부분 일본사람이였고 조선사람은 갓 징병에 끌려온 보충병들뿐이였다.

치남이가 속한 부대는 가네모도라는 헤이쬬(병장)가 훈련을 주었다.

가네모도는 낚시군의 눈처럼 상대방을 지그시 주시하면서 속을 가늠해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다가는 일부러 미끼를 던져서 상대방을 물게 하고는 잽싸게 나꾸어챘다. 말하자면 일부러 흠집을 만들어 혼쌀을 내주군했던것이다.

그에게 걸려들지 않는 병사가 거의 없었다. 일단 걸려들면 반죽음을 당했다. 하루에도 몇명씩 매를 맞고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치남이만은 아직 한번도 걸려들지 않았다. 그에겐 능청스러운 낚시군의 눈을 들여다볼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고 할가, 쪽발이 왜놈들에게 흠집을 잡혀선 안된다는 자각이 있었다고 할가. 어쨌든 일본놈들에 비해 조선사람이 훨씬 낫다

는것을 보여주고싶은 의분으로부터 경계심을 바싹 조였기때문일것이다.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치남이는 어느날 제식동작에서 약간한 실수로 가네모도에게 엉덩이를 채우고 등어리를 얻어맞았다. 뼈가 부서지는것 같고 살이 뭉개여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치남이는 엄살을 부리지 않고 일어섰다. 넘어뜨리면 일어서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섰다.

그러자 가네모도는 손바닥으로 그의 등을 툭툭 치더니 말없이 물러섰다.

(이건 무슨 뜻일가?)

치남이에겐 얼마전에 치호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지금 조선이 어디 있는가? 조선사람에게 자부심이라는게 있기나 한가?

다가올 위험이 걱정되였다.

그날밤, 모두가 병실에 누워서 자려던참인데 가네모도가 들어왔다. 그는 눈짓으로 치남이를 불러냈다.

(예견했던대로구나.)

치남이는 머리를 숙일사하고 이제 있게 될 일을 그려보며 그의 뒤를 따랐다.

가네모도는 그를 병영밖의 숲속으로 데리고갔다.

사위는 어두웠다. 치남이는 마음이 좀 놓였다.

(여기선 1 대 1이 될테니 너죽고 나죽고 해보자.)

그가 이렇게 벼르면서 걷는데 외딴 풀밭에 이르러 가네모도가 그를 앉으라고 하더니 자기도 옆에 붙어앉았다. 그리고는 뜻밖에도 서툰 조선말을 하는것이였다.

《너 **김일성**장군이라는 이름을 들은적이 있는가?》

물론 들은적이 있다. 마을어른들이 쉬쉬 돌리는 말을 그도 몇번이고 들었다. 그런데 왜 묻는걸가? 들었다면 나를 반죽음을 만들고 군법에 넘기려고 그럴것이다. 교활한놈!

치남이는 《난 금시초문이요.》하고 대답했다.

순간 가네모도가 그의 귀뺨을 호되게 쳤다. 눈에서 불이 번쩍 일었다.

치남이는 벙벙해서 그를 마주보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말인가?)

가네모도는 그를 후려치고나서 제김에 씨근덕거리더니 욕지거리를 퍼붓는것이였다.

《**김일성**장군도 모르는게 무슨 조선사람이야? 넌 조선사람이 아니다! 시라지같은 자식, 사람구실을 못할바엔 물에라도 빠져죽어!》

그러더니 또다시 뺨을 후려치는것이였다.

그 소리에 치남이는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이 병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걸가?)

매를 맞긴 해도 어쨌든 고맙게 생각되였다.

치남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팔을 부여잡았다.

《병장님,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그제서야 가네모도는 성을 삭이고 다시 풀우에 주저앉더니 또렷한 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나도 조선사람이다.》

(아니?)

치남이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러자 가네모도가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

《왜 믿어지지 않나? 나의 어머니는 일본녀자이지만 아버지

는 조선사람이야. 그런데 일본에선 조선사람들에 대한 천대가 막심한데다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 아버지는 당초부터 자기를 일본사람이라고 했어. 그래 나도 아버지가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감쪽같이 모르고 자랐지.

그러더니 하루는 아버지가 술이 거나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가족들을 깨워놓고 〈나는 조선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 조선사람이다.

우린 이걸 세상에 더없는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날 저녁 술집에서 들었다는 신기한 수밀도이야기를 꺼내는것이였어.》

그 술집에는 십장생을 그려넣은 조선식병풍이 둘러쳐있었는데 이날 저녁 손님들은 거기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수밀도를 보면서 저마다 말했다고 한다.

《그것 참 맛있겠는걸.》

《저런 수밀도를 따먹으면 만년장수를 한다는데 그런 복숭아를 한알만 따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자 좌중에 있던 한사람이 《그런 수밀도가 있긴 있답디다.》하더니 누구한테 들었다면서 옛말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는것이였다.

이즈음에 와서 세상이 온통 전쟁과 병마, 굶주림으로 시달리게 되다보니 죽음에 위험을 느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수 있을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려볼수 있을가 하는 간절한 생각들을 하였다.

그러던차에 어느 한 유럽사람이 이 지구상에 장생수밀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수밀도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뿐아니라 앞날에 복을 누릴수 있다는것이다.

유럽사람은 그 수밀도를 찾아 이 세상 곳곳을 다녀보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수밀도는 없었다. 지칠대로 지쳐서 객지에서 죽을 지경에 이른 그는 어느날 하늘의 해를 쳐다보며 빌었다.

《해님이시여! 따뜻한 빛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무르익히시는 해님이시여! 그대가 아껴 가꾸신 장생수밀도는 과연 이 땅 어데 가야 찾을수 있나이까?》

그러자 하늘의 해님이 말하더라는것이였다.

《나는 그런 수밀도를 아직 한번도 키우지 못했노라. 하지만 나도 키우지 못하는 장생수밀도가 저 조선이라는 나라의 백두산마을에 열려있도다.》

유럽사람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니, 해님이 없이 무르익은 과일을 생각할수 없거늘 하늘의 해님이 키우지 않았다면 그 수밀도는 누가 어떻게 익혔을가?)

그는 의문을 품은채 해님이 알려준대로 조선의 백두산마을을 찾아갔다.

백두산마을은 유난히도 밝고 아름다운곳이였다.

들에선 땅이 꺼질듯 오곡이 여물고 언덕에선 동이같은 열매들이 새빨갛게 익어가고있었다.

사람들은 걱정을 모르는듯 누구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 인사도 나누고 말도 주고받았다.

그들은 낮이면 밭에서 흥겹게 일을 하고 저녁이면 한데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얼핏 보아선 누가 젊은이고 누가 늙은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백살이 넘었다는 로인도 이마에 주름 하나없이 이팔청춘과 갈

왔다. 그러고보니 정말 그 마을에선 사람들이 장생수밀도를 따먹으며 사는 모양이였다.

유럽사람은 그 마을사람들을 만나 부탁했다.

《여기 백두산마을에 장생수밀도가 있다는게 사실입니까? 있다면 간절한 소원입니다만 한알만 따먹게 해주십시오.》

백두산마을사람들은 그를 친절히 맞아주며 어서 마음껏 따먹으라고 수밀도나무가 있는데로 데리고갔다.

정말 그 마을에는 병풍에 그려진 수밀도와 같은 장생수밀도가 주렁주렁 열려있었다. 유럽사람은 소원했던대로 향기가 물씬물씬 풍기는 새빨간 수밀도를 따먹었다. 그러자 순간에 힘이 솟고 만시름이 다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한알씩 주라고 백두산마을사람들이 따주는 수밀도를 한아름 받아가지고 곧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

유럽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제 집 문턱을 들어서며 《여보!》하고 부르는데 안해와 자식들은 눈이 둥그래 바라보기만하였다. 너무나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앞에 나타났기때문이였다. 나이 쉰이 넘은 자기 남편, 자기네 아버지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에게서 전후사연을 듣고서야 모두들 알아보며 어찌할줄 몰라했다.

수밀도를 먹으니 정말 주름살이 없어지고 병이 달아나고 장수힘이 솟았다.

안해가 신기해하며 물었다.

《세상에 이런 장생수밀도가 어떻게 생겨났을가요?》

그러자 유럽사람은 갑자기 한가지 놓쳐버린 일이 생각났다.

《아차, 내 정신 봐라. 하늘의 해님도 키우지 못하는 수밀도가 그 백두산마을에선 어떻게 무르익게 되였는지 알아본다는걸 깜박 잊었댔군.》

마음이 떠있다보니 수수께끼는 아직 풀지 못한채로 남아있었던것이다.

그런데 후에 들려오는 소문이 그 장생수밀도는 조선의 백두산에 솟아오른 해님이 키우셨다는것이였다. 그 해님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했다.

그래서 그분의 존함에는 해님을 가리킨 날일(日)자가 들어있는데 그 태양의 빛발은 류별나게 밝고 따뜻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새 세상이 태여난다고 했다.

소문을 듣자 유럽사람은 몹시 탄복했다.

《조선사람들은 참으로 복을 받았구나! 그런 태양을 모신 조선사람들이 부럽다. 나도 조선사람이 되고싶다!》

이날부터 유럽사람은 밝은 해님이 빛을 뿌리는 백두산마을을 리상향으로 눈앞에 그려보며 꿋꿋이 살고있다고 한다.…

술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가네모도의 아버지는 자기가 지금껏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숨겨온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날 저녁 가족들에게 사실을 터놓았던것이다.

가네모도는 자기의 말을 잠자코 듣고있는 치남에게 다시한번 말했다.

《**김일성**장군님을 모르면 조선사람이 아니야.

김일성장군님은 조선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긍지야!》

순간 치남이는 캄캄하던 머리속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짐을 느꼈다.

(**김일성**장군님은 조선의 자랑, 민족의 긍지!

내가 왜 치호, 그 얼빠진놈에게 조선사람이 가지고있는 이런 자랑, 이런 긍지를 이야기하지 못했던가. 이건 세상에서 우리 조선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 아닌가!)

치남은 가네모도의 두손을 꽉 그러잡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놈병사들 그리고 비록 조선에서 태여났다 해도 제정신을 가지고있지 못한 얼간이들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구나.)

치남은 언제 그랬던가싶게 그에게서 따뜻한 정이 흐름을 느꼈다.

조선에서 태여났다고 해서 다 조선사람이라더냐.

우리 민족의 얼은 과연 어디에 있다더냐.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구성으로, 만민의 태양으로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고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자기를 조선사람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치호와 가네모도가 얼마나 대조적인가. 치호, 그놈은 비록 조선에서 태여났어도 조선사람이 아니다.

그후 치남은 가네모도와 함께 징병에 끌려나온 조선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추앙심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훈련만 했을뿐 총 한번 쏴보지 않고 이 섬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패망을 한 일제가 부대를 해산시키기에 앞서 명사십리 모래불에서 일본놈과 조선사람으로 대렬을 갈라놓을 때 가네모도는 상관들이 보는 앞에서 서슴없이 조선사람들의 대렬로 척척 걸어왔다고 한다.

아, **김일성**장군님을 모시여 이토록 긍지높은 조선민족이여!

얼어죽은 《진드기부대》

백두산서남쪽의 한 골짜기에는 사시장철 해가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칠팔월 복지경에도 허연 얼음이 그대로 있다는것이다.

본래부터 그런것은 아니였다는 말도 있다. 예전에는 음력 4월부터 9월까지는 그 골짜기에도 볕이 잘 들었다고 한다. 오히려 바람이 스쳐지나는곳이여서 그때엔 무척 따스했다는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해가 비치지 않게 되였으며 까닭은 어디에 있을가?

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어느 한 사람의 말이 연변지방 로인들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졌다고 한다.

일제 관동군사령부산하에 《진드기부대》라는 별명을 가진 《특설부대》가 있었다. 머리수가 스물안팎인 작은 규모의 부대였다.

그러나 군직으로 보면 이 부대를 책임진 야마다중위는 다른 부대의 소장급이요, 하급 졸병들도 거의 좌급에 맞먹었다. 모두가 사무라이후손들로서 《야마도다마시이》정신이 뼈속까지

들이밴놈들인데다가 눈도 밝고 귀도 밝고 걸음새도 빠르고 힘도 세고 사격술도 높으며 격검도 잘하였다. 말하자면 무사로서는 나무랄데 없다고 하는놈들로 이루어져있었다.

이런 부대를 뭇게 된 의도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찾아내기 위한데 있었다.

《진드기부대》대장인 야마다는 이미 어느 한 전투에서 유격대와 맞다들어본적이 있다는 《경험자》였다. 그때 야마다가 속한 《토벌》대는 깊은 산중에서 유격대의 매복에 걸려들어 전멸되였는데 유독 야마다 혼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놈의 말이 산짝대기에서 신호총 불빛이 펑긋하더니 《왜놈들에게 죽음을 주라!》하고 우뢰소리와도 같은 쩌렁쩌렁한 구령소리가 나는것을 직접 듣고 보게 됐는데 그 유격대대장이 틀림없이 **김일성**장군님이였을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쩍하면 《나는 **김일성**장군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나는 **김일성**부대를 잘 안다.》하고 체면을 세워보려고 흰소리를 치군했는데 이런 일로 하여 마침내 《경험자》, 《목격자》를 물색하던 상부의 지명을 받게 되고 일약 《특설부대》의 대장으로 승급이 되였던것이다.

이 《진드기부대》엔 특권이 부여되여있었는데 야마다에게는 관동군사령관이 내준 증명서, 《토벌》사령부에서 써준 증명서, 조선총독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증명서만 하여도 수첩장만큼 두툼하게 가지고있었다.

일단 유격대사령부의 자취를 찾아낸 다음 이웃부대들에 그런 증명서를 보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병력을 동원시킬수가 있었다.

그러나 제아무리 특권을 가진 난다긴다 하는 놈들도 항일유

격대와의 접전에서는 용빼는 수가 없었다.

《진드기부대》놈들이 처음 정보를 받은것은 유격대의 주력부대가 돈화현오지에 나타났다는것이였다.

놈들은 의기양양해서 긴급출동을 하였다. 그런데 돈화땅에 발을 들여놓기도전에 마주오는 한 《토벌》대를 만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유격대사령부는 안도쪽에 있다는것이였다.

《도대체 어느쪽이 진짜야?》

야마다는 도중에서 부대를 안도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단 십리도 못가서 이번엔 그곳에 있는 《협화회》밀정놈들을 만났는데 **김일성**부대는 왕청현쪽으로 행군하고있다는것이였다.

야마다는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럼 왕청쪽으로!》

어쨌든 새로 받은 정보가 그중 정확하리라고 믿어졌다.

하지만 며칠이 걸려서 그리로 갔을 때엔 이미 행차뒤나발이였다.

야마다는 정보를 제공한 밀정놈들을 나무랐다.

《개자식들, 고망년적 소식을 들고다니면서 고생을 시키는가?》

《진드기부대》는 다시 끈질기게 유격대사령부의 행처를 탐문해보았다.

그러다가 몽강쪽에 사령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동차로 가다가는 때를 놓칠것 같아 비행기를 잡아타고 몽강으로 갔다.

그곳에 있는 여러 《토벌》대와 경찰대들이 이미 출동중에 있었다. 놈들은 《장거리추격전》을 벌릴 목적으로 등에 탄알

과 식량을 한짐씩 지었다.

야마다는 제놈의 체면이 깎일세라 급히 《토벌》대를 따라 앞섰다.

그런데 알고보니 유격대는 여러갈래로 갈라져서 행군한다는 것이였다.

(어느쪽이 사령부일가?)

야마다는 부하들을 서너놈씩 나누어 혁명군부대들을 따르도록 하였다.

미구에 왼쪽으로 파했던놈들이 달려와 이르기를 《혁명군사령부는 왼쪽으로 행군하고있습니다.》 하는것이였다.

《왼쪽으로?》

야마다의 왼쪽 귀가 벌쭉해졌다. 그런데 그놈이 채 결심을 내리기전에 이번엔 오른쪽으로 파했던놈들이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오른쪽으로 행군하는 부대가 사령부라고 합니다.》

《오른쪽?》

야마다의 오른쪽 귀가 벌쭉해졌다.

《대관절 어느쪽 귀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야마다가 갈피를 잡지 못해하는데 때를 같이하여 사방으로 갈라져갔던놈들이 련달아 달려오며 보고를 했다.

《**김일성**사령부는 내가 찾아냈습니다.》

《혁명군사령부는 내가 갔던곳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말이 옳다고 서로 우겨댔다.

야마다는 어느놈의 말을 좇아야 할지 머리가 아팠다.

《여기서도 **김일성**, 저기서도 **김일성**, 그러니 **김일성**장군은 여럿이란말인가?》

야마다는 혼자소린지 묻는 소린지 어정쩡하게 중얼거렸다.

《정말 **김일성**장군은 여럿인가 봅니다.》

졸병놈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며 상관의 말을 긍정했다.

이렇게 되여 그곳에서의 《추격전》도 실패를 면치 못했다.

겨우내 봄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며 헛물만 켠 야마다는 오랜 고심끝에 묘한 수를 생각해냈다.

(백두산을 혁명군의 집이라고 했겠다. 그러니 아예 거기에 가서 지키고있자. 언제건 혁명군사령부가 그곳에 들릴 때가 있을게 아닌가.)

그리하여 《진드기부대》는 백두산으로 갔다.

때는 7월이라 복지경에 접어들었지만 백두산의 기온은 아직도 선선하였다.

놈들은 해빛이 잘 들면서도 숨어있기에도 유리한 백두산 서남쪽의 어느 한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오목진곳에 쭈그리고 모여앉아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백두산의 기온은 이해따라 낮과 밤의 차이가 매우 심했다. 해가 비칠 때에는 땀이 철철 흐르다가도 그늘만 지면 된겨울추위때처럼 얼어들었다. 그래 놈들은 밤에는 몇십리밖의 마을에 내려가 자고 새벽이면 다시 올라와 지켜있군하였다.

그러기를 몇번, 기다리기에 지쳐서 놈들의 눈이 방아확처럼 들어간 어느날이였다.

이날 원정의 길에서 돌아오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몇몇 대원들과 함께 백두산의 장군봉에 오르시였다.

《진드기부대》놈들은 곧 이것을 알아차렸다.

야마다는 이미 봉변을 당한적도 있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축지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술법을 쓰신다는 소문을 들어왔던터라 서뿔리 접어들었다간 순간에 목없는 귀신이 되고말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가까운 부대를 찾아가 증원병을 요청해오도록 부하 한놈에게 증명서를 쥐여보냈다.

백두산의 날씨도 주인이 왔다는걸 아는지 바람 한점 불지않았고 하늘엔 구름 한쪼각 뜨지 않았다. 천종만색의 꽃들이 피여나 향기를 풍겼고 봉접들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바위우에 걸터앉으시여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바라보시였다.

이때 뒤에 있는 골짜기에 왜놈들이 숨어있다는걸 눈치챈 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감쪽같이 슬쩍 놈들을 족쳐버릴것인가를 귀속말로 의논하고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아시였는지 장군님께서 《걱정할것 없소. 날 찾아다니다 못해 감히 백두산에까지 기여들었구만. 앉을자리, 설자리도 가릴줄 모르는놈들이니 내가 버릇을 떼주어야지.》 하시더니 한손을 높이 쳐드시여 그 골짜기에 그늘이 지도록 해빛을 가리우시였다.

골짜기에 숨어서 비지땀을 흘리며 옴짝달싹 못하고 증원부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있던 《진드기부대》놈들은 갑자기 골짜기안에 그늘이 지고 추워나자 의아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순간 모두 눈들이 뒤집혔다. 엄청나게 큰 손이 우에서 해빛을 가리우고있었기때문이였다.

골짜기는 삽시에 얼어들었다. 흐르던 물은 허옇게 얼음이 되고 나무도 풀도 얼음버캐를 뒤집어썼다. 살을 에이는 찬바

람이 소용돌이치고 어디서 생겨났는지 검은 구름이 골안을 뒤덮었다. 다른곳은 무더운 여름인데 이 골짜기만은 맵짠 겨울이였다.

거기서 뛰쳐나갔다간 총에 맞겠지 그냥 앉아있자니 사지가 얼어들지 놈들은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꼬부린채 끙끙 신음소리만 냈다.

증원병을 데리러 갔던놈이 수천명의 《토벌》대놈들을 끌고 왔을 때엔 아직 해가 지기전이였는데 혁명군사령부는 이미 간곳이 없고 그늘진 골짜기안에 꼬부리고 얼어죽은 《진드기부대》놈들의 시체만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 꼴을 내려다보던놈들은 기절하여 뒤로 자빠졌다.

(귀신이 곡할노릇이다. 온 백두산에 저리도 노을빛이 붉은데 어떻게 되여 유독 이 골짜기에만 그늘이 져서 모두 얼어죽었는가?)

놈들은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상관놈의 구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게걸음을 쳐서 도망을 쳤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진드기부대》놈들이 숨어있던 골짜기에는 그늘이 진채 오늘까지도 볕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바다우에 뜬 금주단

원산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가느라면 망망한 바다가 눈아래 내려다보이는 안변 상음고개를 넘어 통천군의 첫 어구에서 아담한 바다가마을을 지나게 된다. 이 마을이름이 웅진 다시말해서 곰나루이다.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휴양지가 아닌가 하고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 문화주택 즐비한 마을이지만 해방전에는 스무채 안팎의 작은 초가집들이 있었다고 한다.

원래 이고장은 땅이라군 맨 돌서덕뿐이여서 씨앗 한알 묻을 밭이 없어 처녀들이 다 클 때까지 쌀 서말을 못먹어보고 시집을 갔다는곳이다. 게다가 원산쪽에서 넘어오는 가파로운 바위벼랑우엔 변변한 길이 없어서 어느해 안변에서 색시를 데려오게 된 통천총각이 벼랑우의 돌사닥길에서 가마가 뒤집히는바람에 바다에 굴러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생겼다는 전설적인 각시바위가 지금도 바다가운데 서있다.

이러한곳이여서 곰나루사람들은 일제시기에는 할수없이 모두 고가성을 가진 한 선주에게 매달려 작은 매생이 몇척으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갔다고 한다.

그때의 배군들이란 늘 사자밥을 등에 지고 사는 신세라 마을엔 불행이 떠날줄 몰랐다.

더구나 곰나루 앞바다는 원산만을 벗어나 있어서 파도가 막힘없이 들어오는 날바다였다. 곰나루라는 이름도 그로부터 유래된것이라고 한다.

말이 난김에 잠간 부언한다면 옛날에 태백산에 힘이 무척 센 장수곰이 살았다고 한다.

그 곰은 힘을 겨루어보려고 험한 태백산줄기를 타고넘으며 원정을 다녔는데 처음엔 설악산의 호랑이와 맞다들어 사흘동안을 싸워서 이기고 다음엔 안변의 황룡산을 찾아가 닷새만에 황룡의 대가리도 꺾어버렸다.

(그러니 날 당할놈이 이 세상에 없으렸다.)

기세등등해진 장수곰은 황룡산에 한달가량 머물러있으면서 몸을 추세우고나서 등성이를 넘어 동쪽으로 갔다.

앞에는 동해바다가 펼쳐져있었다.

집채같은 파도가 흰갈기를 날리며 밀려오고있었다.

《엉? 저건 어떤놈이야?》

장수곰은 파도를 기여다니는 괴물로 알았다.

《내 저 흰대가리괴물과도 겨루어보리라.》

곰은 겅중겅중 뛰여 바다가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으르렁고함을 치며 파도를 맞받아나갔다.

《먼저 네놈의 머리통부터 까부시겠다.》

곰은 두주먹으로 후려치고 이마로 지끈 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로 받아도 파도는 끔쩍을 안했다.

《이놈 봐라. 매집이 좋다. 이번엔 혀바닥으로 볼따기를 핥아 가죽을 벗겨버릴테다.》

곰은 껄끔한 혀바닥으로 사정없이 파도를 핥았다. 짠물이 목구멍으로 꿀떡 흘러들어갔다.

재채기를 하고나니 힘이 진했다. 그러나 곰은 물러설 생각을 안했다.

《이번엔 네놈을 꽉 그러잡고 목덜미를 물어제끼리라.》

곰은 이렇게 마음먹고 밀려드는 파도에 껑충 뛰여들었다. 하지만 그다음엔 영영 솟아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곰이 파도와 싸우다 빠져죽었다는 전설까지 내려오는 곰나루여서 한해에 바다에 나갈수 있는 날이 며칠 되지 못했다.

하지만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운 선주는 파도가 셀 때 사람들을 고기잡이에 내몰기도 하고 아닌밤중에 조개를 캐오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는 날엔 영낙없이 불상사가 생기군했다.

《보천보를 치셨다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고장에도 나오셨으면!》

이 마을사람들은 멀리 북쪽하늘에 뜬 장군별을 바라보며 애오라지 나라를 해방시켜주실 백두산의 장수 **김일성**장군님만을 학수고대할뿐이였다.

그러던 이 지방에 해방되기 몇달전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다.

그리도 파도사납던 곰나루앞바다가 이상스레 갑자기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한달이 흐르고 석달이 흘러가도 파도는 한번도 일지 않았다.

《참 신통한걸! 곰나루가 생겨 처음보는 일일세. 혹시 하느님이 우릴 가엾게 여겨 도와주는게 아니야?》

《그런 하느님이 진짜 있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

곰나루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며 날마다 고기잡이를 나갔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철이 왔다. 바다는 그때까지도 잔파도 한번 일지 않고 거울같이 잔잔해 있었다.

복지경에 이르자 이곳 사람들은 모기가 성해서 저녁마다 바

다기슭의 모래불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에서 멍석을 펴고 누워자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이였다.

한 로인이 첫새벽에 사람들을 두들겨깨웠다.

《여보게들, 일어나게! 어서 일어나 저 바다쪽을 좀 보게!》

모두들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해솟는걸 아직 못봤나요?》

선잠을 깬게 아쉬운지 한 젊은이가 툴툴거렸다.

《그런게 아니라 저길 좀 보라는데두!》

로인이 북쪽켠 바다를 가리켰다.

모두들 그리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다가 너무도 희한한 광경을 보고 눈을 껌벅거렸다. 북쪽바다우에 누런 금띠같은것이 길다랗게 가로 펴져있었다.

얼마나 눈부시게 번쩍거리는지 옛날에 왕들이 허리에 띠던 금띠도 그것처럼 황홀하지는 못할것이였다.

바다우의 금띠는 수평선에서부터 례도앞을 지나 원산만에 이어져있었다.

《혹시 아침해빛을 받아 바다물이 저렇게 보이는게 아닐가요?》

중년의 사나이가 말했다.

로인은 머리를 저었다.

《아닐걸세.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 왜 북쪽바다가 저렇게 보이겠나. 내 칠십평생 여기서 살면서 저런 일은 처음보네.》

정말 그것은 리치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였다.

《그럼 우리 저 높은 뒤산에 올라가서 보세나.》

그들은 우르르 뒤산으로 올랐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바다우에 떠있는 금띠가 더

넓고 뚜렷하게 보였다.

해빛으로 하여 그렇게 보이는게 결코 아니였다.

거기는 배들이 많이 다니는 바다길이였다.

《아, 저건 바다길우에 깔아놓은 금주단일세!

저 반짝반짝 금꽃에서 빛을 뿌리는걸 보게.》

로인이 무릎을 치며 탄복을 했다.

《바다길에 금주단을 깔다니요?》

아무리 신기한 옛말에서도 아직 그런 소린 들어본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저 금주단우로는 누가 지나가게 될가요?》

《글쎄—》

알고싶은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날 선주인 고가도 그것을 보았다. 그는 부랴부랴 어민들을 모이라고 하더니 어서 빨리 배를 몰고가서 그게 정말 금주단이라면 걷어오라고 했다. 욕심이 동했던것이다.

여러척의 매생이들이 노를 저으며 그리로 향했다. 거기까지는 두시간을 잘 가야 했다. 그런데 매생이들이 거의 다달을무렵 난데없는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물결을 일으키며 그것을 휘말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것이였다.

《저건 정말 금주단이다! 금주단이 하늘로 떠오른다!》

먼저 본 사람이 소리쳤다.

모두들 배우에서 벌떡벌떡 일어서서 날아오르는 금주단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바람과 함께 떠오른 금주단은 점점 작아지더니 얼마후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매생이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선주도 그 금주단은 걷어올수 없는것이라는걸 알고 더는 그리로 배를 띄우지 않았다.

그날 저녁 불역에 나간 마을사람들은 어둠속에서도 북쪽바다가 환하게 빛을 내는걸 보았다.

떠올랐던 금주단이 다시 내린것이였다.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금주단은 계속 바다길우에 떠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곧 나라가 해방되였다.

그후에도 금주단은 얼마동안 바다우에 떠있더니 며칠이 지나서 안개 사라지듯 없어졌다.

(어찌된 일일가?)

모두들 영문을 몰라하는데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하셨다오! 왜놈들에게 빼앗겼던 우리 나라를 찾아주시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저 바다길로 개선하셨다오!》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감하는속에 한 로인이 무릎을 치며 말했다.

《옳거니, 옳거니, 그분께서 오시는 길에 금주단이 깔려있었군. 그분은 하늘이 낸분이시니 그분의 개선길에 하늘이 금주단을 내려보냈던거야.》

《아버님말씀이 옳아요.》

곰나루사람들은 오매에도 뵙고싶은 **김일성**장군님을 그리며 금주단이 떠있던 북쪽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장군님의 개선길에 금주단이 깔려있었다!》

《장군님께서 개선하시려고 곰나루 앞바다에 석달전부터 파도가 없었다!》

신화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고장 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니 그런 일이 있은것이 극히 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

3

발굴정리 김형운
편 집 선우연희
사 진 로창업, 김형용 장 정 한명신
편 성 김혜경 교 정 조명희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95(2006)년 4월 20일
발 행 주체95(2006)년 4월 25일

ㄱ-66019 값180원